

시로 읽는 성보순례
금동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삼국시대 ▶2면

현대불교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라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말라
오로지 내 자신의 행동을 살펴라.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8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08호 2012년 10월 3일 수요일

'불교평론' 살리기 교계 불씨 지핀다

전 · 현직 편집위원 확대회의 10월 초 예정

'경허스님 주색과 삼수갑산' 이라는 특별기고가 문제가 돼 최근 폐간이 결정된 〈불교평론〉을 살리기 위한 불교학계 등의 물밑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허우성 〈불교평론〉편집위원장 등을 비롯한 전 · 현직 편집위원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확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기는 조율 중이고, 가능한 한 10월 초에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준 편집위원(동국대 교수)은 "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확대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갔다. 하지만 워낙 급박하게 폐간이 결정돼 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회의 날짜는 잡지 못했다"며 "최대한 조속히 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안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에서도 〈불교평론〉 폐간에 대한 아쉬운 소회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공유돼고 있다.

우희종 현 편집위원(서울대 교수)은 페이스북 '부루나' 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것이 한국불교계의 현실인 듯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논문의 시각을 전부 공감하지는 않지만, 입장이 다른 논문이 제시됐다고 학술지가 폐간되는 것을 보면서 불교학계와 교단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재영 편집위원(불광연구원 상임연구원)도 "이번 사태는 근현대 불교사에서 초유의 필화사건"이라고 전제하며,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학계와 교계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복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평론〉살리기에는 스님도 나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폐간 사태가 전해지자 가장 먼저 9월 24일 발표한 폐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응 스님은 성명서에서 "교계의 매체를 아무리 찾아도 지식인 계층 중 어느 누구도 '폐간' 이란 극단만은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며 "오늘의 불교 현실에서 불교학자들마저도 권력이나 문중, 이름 있는 승려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순응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너무나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교평론 폐간을 반대한다. 다양한 견해의 글이 활발하게 발표돼서 오늘의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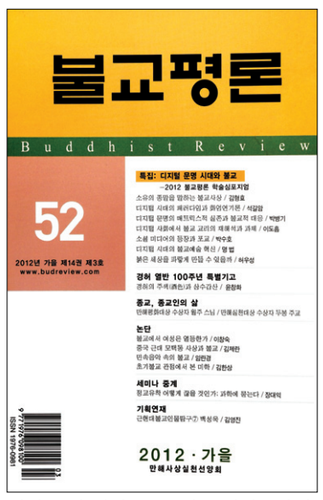
또한, 법응 스님은 〈불교평론〉 폐간을 막기 위한 기금 200만 원도 공개 기탁했다. 법응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교평론〉을 살리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며 "기탁금은 폐간을 막기 위해 나서는 단체에 기탁하겠다. 불교계 유일한 논단인 〈불교평론〉이 다시 살아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 폐간 여파는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행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조계종 불학연구소가 10월 10일 개최하기로 한 기념 세미나는 11월 말로 잠정연기됐다.

불학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발제자들이 세미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11월 종회 이후 동안거 결제 전에 맞춰 세미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간으로 인한 직접적 여파를 받고 있는 수덕사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가 수록된 〈불교평론〉 2012년 가을 통권 52호. 이번 호를 끝으로 〈불교평론〉은 폐간될 위기에 놓였다.

복간 가능성 등 타진할 듯
법응 스님, 기금 공개기탁
SNS도 "살리자" 의견 봇물
경허스님 학술대회는 연기



함께 하는 한가위 합동 차례

물증정 등 다양한 행사로 이어졌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추석을 맞아 9월 27일 복지관 내 강당에서 '추석 합동차례' 를 진행했다. 지역 어르신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26일 '송편만들기' 로 시작된 추석맞이 행사의 하나로 차례 후에는 노래자랑, 바둑대회, 선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선학원, 1백주년 기념관 건립

〈선학원사〉 편찬… 10월 20일 이사장 취임법회도

선학원이 1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안국동 현 청사 내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고, 〈선학원사〉 편찬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재임된 제 18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9월 25일 선학원의 향후 사업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이에 선학원은 올해 안에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고, 계획수립과 재원마련에 나선다. 기념관은 250여 평 부지내에 지상 2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선학원사〉도 편찬한다. 조선 말기부터 1970년대까지의 불교사를 총 망라해 2권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선학원사〉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 2년 이내에 마무리 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을 설립해 소장학자 학술지원 등 불교학 발전을 위해 펼쳐 온 각종 지원사업중 불교문화 부문도 신설해 범위를 확대할 생각이다.

승가노후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 선학원은 65세 이상의 소속 분원 창건주와 분원장들을 위한 요양시설 마련과 승가노후복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540여개의 선학원 소속 사찰 중 요건이 해당되는 곳은 10~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선학원측은 파악하고 있다.

법진스님은 승려노후복지 사업과 관련해 "재단 스님들이 고령화되면서 주지가 상주하지 않는 절이 늘고 있다. 그런 사찰을 정비해 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학원은 10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법사에서 '제18대 이사장 취임법회' 를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제41차 원로회의 10월 10일 개최

차기 의장 등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회의를 열어 차기 의장 선출을 논의한다.

이날 원로회의에선 현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의 임기만료를 2개월 앞두고 신임 원로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을 다룬다. 원로의장 종산스님의 임기는 오는 12월10일이다.

아울러 원로회의 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입안한 종헌 개정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종헌 개정안엔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후보 7명 확정

총추위 27일 회의서… 10월 4일 소견 발표

동국대 경주캠퍼스 차기 총장에 현직교수 7명이 후보자로 확정됐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대오)는 9월 2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차기 총장후보로 7명을 확정했다.

이날 총추위는 총장 후보로 접수한 7명 전원에게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밝혔다. 후보자들은 모두 동국대 경주캠퍼스 현직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총추위는 10월 4일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진행한 뒤 법인 이사회에 후보자 3인을 최종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 법인 이사회가 총추위에서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차기 총장으로 선임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08호 INDEX

종합 3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나선다
야단법석2 두번째 마당
조계종 UN서 평화 행사

국군의 날 특집 5



현대불교 법공양
ARS 후원
060-700-1080

불교의
대(大), 소(小), 현(顯), 밀(密)을
두루 갖춘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자
마음의 본성을 '직지(直指)'하여
깨달음으로 이끌며,
수행에서 나타나는 온갖 마를
조복받는 『능엄경』

선화 상인 강설, 각산 정원규 편역
상권 944쪽, 하권 840쪽 | 각권 42,000원



중국 위앙종(潙仰宗)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의 활발발한 해설

칠처징심(七處徵心), 깨달음의 본성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25종의 수행 과정, 여래장,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문,
능엄신주, 보살의 수행 단계,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50종의 마장 등,
한국불교의 근본경전 중 하나인 『능엄경』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명쾌한 강설

선화 상인 (宣化 上人, 1918~1995) 법명은 안자(安慈), 자는 도륜(度輪)으로 중국 위앙종(潙仰宗) 제9대 조사이다. 중국 길림성 쌍성현에서 태어나 19세에 상지(常智) 대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1949년 홍콩으로 건너가 여러 사찰을 전법하였다. 1956년 운거산에서 허운(虛雲)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아 중국 위앙종의 제9대 조사가 되고 선화(宣化)라는 법호를 받았다.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불교학당을 설립하여 불법을 전했다. 1974년 캘리포니아주에 만불성성(萬佛聖城)을 건립한 후 미국 등 세계 각지에 27개의 도량을 건립하였다. 상인은 평생토록 엄정하게 수행하면서 참선과 염불 예참, 경전 연구, 계율 수지, 대중화합을 특히 강조하였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금동반가사유상

김 종 길

왼쪽 무릎 위에 발목을 얹은
수평으로 접은 오른쪽 다리,
왼손은 그 발목을 감싸고 있다.

허벅지에 고인 팔꿈치 위에 피어난
연꽃인가,
볼에 닿을듯 말듯 살짝 꼬부린
오른손 세 손가락.

천 몇백 년 동안,
그 자태 그대로 흐트림 없이
무엇을 그리도 골똘히 생각하는가.

인간의 업고여, 생로병사여,
그러나 그것들로부터는 아득히 벗어난
오히려 앳되고 예쁜 젊은 그 얼굴!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김종길 시인은… 경북 안동 출생. 194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해가 많이 짧아졌다〉, 〈황금빛 가창오리떼〉 등

원로·중진 학자 "폐간 안돼" 한 목소리

'불교평론' 살리기의 당위성

〈불교평론〉 폐간 결정이 전해진 지 일주일. 불교학계는 직접적 문제 제기 없이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뒤숭숭하다.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 학자들도 있었다.

이번 사태의 공과를 따지기 이전에 〈불교평론〉은 척박한 한국불교학계에 논쟁이라는 싹을 띄운 논단이었다. 사실 〈불교평론〉은 전문적인 학술지도 아니고, 대중에게 친숙한 잡지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술과 저널이라는 양변의 경계에 서 있는 종합 학술 잡지다.

하지만, 매호 기획특집은 기존 불교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시해 왔고, 논단을 통해서는 학술적 사안에 대한 건설적 논쟁들을 불러왔다. 주제들도 섹슈얼리티, 다문화, 성적 소수자 등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시대적 논의가 필요했던 아이템들이다.

또한, 다양한 불교 서적을 다이제스트한 서평과 해외불교 논단도 많은 관심을 불러온 코너들이었다.

적지 않은 주류 학계 학술지들도 폐간되는 상황에서 〈불교평론〉정도의 역할을 하는 잡지는 자본과 수요가 넉넉한 기독교 학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불교평론〉은 단순한 불교 학술 잡지를 넘어 인접 학문, 종교 연구자들에게는 '불교를 바라보는 창' 으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영향력을 알고 있는 학자들에게 〈불교평론〉의 폐간 결정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평론〉은 만해사상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文·社·佛 영역 아우르는
유일 종합 학술 계간지
다양한 담론 성숙 계기
폐간 결정은 '어불성설'

만들어진 매체"라며 "이미 공공성을 가진 매체를 일방적으로 폐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준 〈불교평론〉편집위원(동국대 교수, 불교학연구회장)은 "〈불교평론〉은 불교학을 대중들도 접하게 할 수 있게 끌어올렸다. 또한 인문, 사회, 철학 등 인접학문과 조우하게 한 창구"라고 평가하며, "〈불교평론〉의 폐간은 불교계의 큰 손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경허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을 게제한 것이 폐간 결정에 원인이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목정배 교수



이민용 원장



박경준 교수



김형균 대표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은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며 "경허 스님의 무애행에 대한 논쟁은 이미 있었던 사안이고, 윤창화 대표의 논문은 이러한 지점들을 잘 정리했다. 경허 스님을 절대 천박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건설적인 학술 논쟁은 불교학계의 논단을 풍성하게 한다"며 "〈불교평론〉을 폐간할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학의 다양한 담론들이 성숙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정배 교수도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일만 남았다. 한국불교가 더 좋은 미래를 맞기 위해서는 〈불교평론〉과 같은 논단을 폐간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평론〉 발전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김형균 불지사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교평론〉 역시 독자를 확보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불교학계와 언론들도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편집위원(서울대 교수)도 페이스북 '부루나' 를 통해 "폐간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에 자체적으로 불교평론 발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논문 게재료를 받거나 뜻 있는 이들의 후원금 모금도 시도할 만 하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과 의견 발표가 이뤄지는 진정한 학술지로 변신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결사추진본부 자문위, 소위 구성

25일 봉암사서 4차 회의… 사부대중 의식 개혁 추진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가 조계종단 사부대중 의식개혁을 위해 자문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는 9월 25일 봉암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종단 사부대중의 의식 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소위원회에는 선 · 교 · 율 · 종무 부문에서 참여하기로 했으며, 원로의원 고우스님(선원) · 통도사 혜남 스님(교학) · 계단위원 성우 스님(율원) · 교육원장 현응스님(종무)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식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석종사 선원장 혜국스님은 "의식개혁은 사미계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며, 선 · 교 · 율 · 종무 누가 법사로 가 법문을 해도 동일한 흐름의 내용을 설할 수 있도록 교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은 "간헐적인 교육이 아닌 기초과정, 전문과정 등 전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실생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육바라밀의 보시를 수행하기 위해 양로원 등에서 봉사하는 과정을 넣는 등 수련과정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는 9월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사부대중 의식 개력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과거사 사과한 박근혜, 진제 스님 예방

9월 24일 해운정사서… "사과와 아픔 치유하라"

멸빈자 배석 논란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9월 24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진제 스님을 예방하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경청했다. 먼저 진제 스님은 "오는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로 박 후보를 맞이했고, 박 후보는 "일전 찾아뵈려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찾아뵙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 '나' 라는 허세를 놓을 때 온 국민이 평등해지고, 평등한 가운데는 나와 남이 없으며 취하고 버림도 없다. 이렇게 용심을 하면 온갖 부정부패도 자연히 자취를 감추어 만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덕담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반으로 온 국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면 일등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예방은 멸빈된 서의현 조계종 前 총무원장이 배석해 문제가 됐다. **신중일 기자**

관음종, 태허스님 탄신 108주년 학술대회

'불종대의' 주제로 교계 학자들 논문 발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0월 10일 오후 2시 관음종 총본산인 낙산묘각사서 '태허조사스님 탄신 108주년 학술대회' 를 연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불종대의(佛宗大意) 해제'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해동천태법화종법맥소고 해제'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불종대의에 나타난 태허 홍선의 출세본회 사상' △ 양승규 박사가 '불종대의를 중심으로 본 태허조사의 교판론 이해' △최봉수 교수가 '불종대의 제3항 신앙문에 대한 일고찰' △김경집 진각대 교수가 '관음종(불입종) 창종과 그 의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논문은 400 페이지 분량의 논문집 〈이것이 참 불교다〉로 발간된다. 한편 관음종은 10월 10일에는 다례재와 42수11면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을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청나라 고종 건륭황제 대장경 및 사고전서(四庫全書) 봉정대전 초청의 말씀

중국의 펜타곤, 상해진구상품전시무역중심(上海進口上品展示貿易中心) 사장 가이진(柯爾晋) (불명:玄覺)이 스승이신 한국 대각교단 총재 태화당 가산대장로에게 헌정하고 삼보자존과 조선독립운동 민족대표 용성조사와 광주학생독립운동 대표 봉암대선사 각영전에 봉정하는 거룩한 행사에 초청합니다.

((증명단)) □ 도성대장로. 의현대장로. 정각대장로 □ 봉암문도 : 회장 보산. 부회장 남산. 총무 혜산. 보산. 관산. 화산. 현산. 미산. 홍산. 정산. 엄산. 대산대종사

제 1부 : 건융황제의 건융 대장경 및 사고전서 (四庫全書) 봉정대전

사고전서란?

중국 고대로부터 청대에 이르기 까지 유통되던 모든 기록들을 집대성한 보고(寶庫)로서 청대 건륭(乾隆)황제 38년(1773) 편수에 착수하여 건륭 47년(1782)에 완성하여 도합 15년이 걸린 중국 역사의 모든 것이 수록된 방대한 자료로서 다음과 같다.

◇ 경부(經部) : 역(易) · 서(書) · 시(詩) · 예(禮) · 춘추(春秋) · 효경(孝經) · 5경총의(五經總義) · 사서(四書) · 악(樂) · 소학(小學)의10류로 나누고,
◇ 사부(史部) : 정사(正史) · 편년(編年) · 기사본말(紀事本末) · 별사(別史) · 잡사(雜史) · 조령주의(詔令奏議) · 전기(傳記) · 사초(史鈔) · 재기(載記) · 시령(時令) · 지리(地理) · 직관(職官) · 정서(政書) · 목록(目錄) · 사평(史評)의 15류로 나누었으며,
◇ 자부(子部) : 유가(儒家) · 병가(兵家) · 법가(法家) · 농가(農家) · 의가(醫家) · 천문산법(天文算法) · 술수(術數) · 예술(藝術) · 보록(譜錄) · 잡가(雜家) · 유서(類書) · 소설가(小說家) · 석가(釋家) · 도가(道家)의 14류로 나누었고,
◇ 집부(集部) : 초사(楚辭) · 별집(別集) · 총류(總類) · 시문평(詩文評) · 사곡(詞曲)의 5류로 나누어 연인원 3800여명이 동원되어 편찬한 중국 역사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백과 저서이다.

제 2부 : 전법의식

석가여래 부촉법 제77세 조선불교 중흥율 제7조 대각교단 총재 태화당 가산대장로 입실 건당 사법(嗣法)제자 전법(傳法)식.

※공양 준비를 위하여 미리 접수 인원을 참고하여야 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10월 9일 오후 1시
◆ 장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두타산 원융사
◆ 전 화 : 043)532-1875 / FAX 043)537-4849
◆ 담당자 : 석마조 휴대폰 010-4877-9058

대회장 해아 봉행위원장 해우 석장운 집행위원장 법해 석마조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내달 19일까지… 자격 완화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19일까지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을 공모한다. 후보자의 자격에는 종교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추천자 자격 또한 관련 전문분야 인사와 본인 추천으로 간소화해 많은 작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출품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제작된 작품에 한한다.

불교언론문화상 시상 내역은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1작품 ▷불교언론인상 1인 ▷TV부문 최우수·우수 ▷라디오부문 최우수·우수 ▷신문 부문 최우수 우수 ▷특별상 3인 이내로 대상 1천만원, 불교언론인상 5백만원, 각 부문 최우수·우수상에 각각 5백만원과 200만원 등 총 4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심사결과는 11월 말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덕암 대종사 탄신 1백주년 기린다

10월 8일 법륜사서

태고종 법륜사와 덕암화상문도회(회장 혜일)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법륜사(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법륜사 중창주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10월 8일 법륜사 4층 대불보전에서 열릴 법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덕암스님 사리친견과 유물전시회, 서예·사진전시회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는 세미나도 열린다. 김주일 기자

정한영 구속 폭행, 횡령 등 혐의

정한영(성호 스님)씨가 9월 19일 법정 구속됐다. 따라서 정한영 씨는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10월 중 전주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씨는 금당사 문화재관람료 등 8300만원을 횡령하고 해당 사찰 종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전주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씨의 구속을 결정했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정한영 씨 지지 세력인 '부처님을 찾는 사람들'은 9월 25일 전주지방 법원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청소년 인성교육, 종교계 나선다

문광부, 2013년 신규 사업 선정… 예산 11억원 배정

문화체육관광부(관장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내년부터 종교계와 함께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문화부는 9월 27일 브리핑을 열고 '2013년도 예산·기금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운용 방안에 따르면 문광부는 종교계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11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불교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 개신교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활동', 천주교 '청소년 또래 공동체 운영', 유교 '부자 캠프, 사제 캠프', 원불교 '청소년 마음공부 심심풀이', 천도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민족종교 '전통에서 배우는 인성교육' 및 종교계가 연합해 진행하는 '청소년 종교평화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며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규모로는 불교의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 등 4개 사업에 2억 원이 지원되며, 개신교에도 7개 사업에 2억 원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천주교와 원불교, 종교연합단체에 각 1억 5000만원, 유교와 천도교 각 1억원, 민족종교 5000만원씩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문화부는 "종교계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의 관심을 높여 나가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미 도리사에서 개최하는 '마음나눔' 템플스테이.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사례로 선정됐다.

학교 폭력 예방에 기대 높아
종교 관련 예산 소폭 감소

이와 함께 종교 관련 예산에 대한 운용 방안도 발표됐다. 종교문화 유산 보존을 비롯해 ▷종교활동 지원 ▷종교문화기반 구축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524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소폭 감소됐다.

부문별로 보면 종교화합과 교류지원은 55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종교시설 건립은 178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축소됐다. 종교 문화활동 지원은 61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늘었으며, 불교와 밀접한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예산은 23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올해까지는 종교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편성됐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 관광문화상품인 템플스테이 예산은 경상비 100억 원, 시설지원비 85억 원 등 총 185억 원이 배정됐다. 템플스테이 예산도 올해 200억 원에서 소폭 감소됐다. 템플스테이도 시설 증대보다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뒀으며, 예산안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27법난위원장 지현 스님 선출

25일 회의서…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최근 민간위원 교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사진)이 선출됐다. 하지만 안건에 대한 이견 차이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폐회됐으며, 前 위원장 영담 스님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법적 조치를 천명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 회의실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 ▷심의 안건 ▷보고 안건 ▷긴급 안건 등이 상정됐다. 긴급 안건은 영담 스님이 제안한 것으로 법률 시한 종료 후 10.27법난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 방안과 역사교육관 완공 후 운영 방안, 피해 종교단체 신고서를 제출한 조계종의 법적 범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장 선출의 건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현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선출됐다. 하지만, 선출 직후 지현 스님은 업무 파악 미숙을 이유로 전임 위원장 영담 스님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했고, 위원들은 이에 반발 했다.

또한, 위원들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과 긴급 안건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폐회를 요구했다. 허남오 위원은 "며칠 전 자료집을 받았는데 안건이 108건이나 돼 미쳐 살펴보지 못했다"며 "안건들을 잘 심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의 요구대로 위원장 교체가 이뤄지고 회의가 열리면서 위원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영담 스님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비공개 회의 전환 이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위원 교체의 당위성을 비롯해 ▷민간위원 비대위 활동 ▷지원단장 직위 해제 등에 대해 밝혔다.

특히 비대위 활동에 대해 영담 스님은 "정부 조직에서 비대위 등 사적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비대위가 근거없이 비방하고 사퇴를 시키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조만간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중도를 안 자리가 바로 깨달음"

조계종결사추진본부 '야단법석 2' 진행

고우·도법 스님 문답 나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고우 스님〈사진〉이 깨달음에 대한 실상을 대중과 논했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은 9월 26일 조계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진행했다. 이날 법석에서는 도법 스님이 질문하고 고우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고우 스님은 중도를 바로 알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스님은 "깨달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다. 육조 대사의 경우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며 "사람마다 차이는 존재하고 깨달음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궁극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분별심을 가지고 사고하는 이원적 인식 구조를 일원적 구조로 정화하는 것"이라며 "그것의 시작은 현실에서 '나'라는 분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부처임을 깨닫는 중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법 스님은 "연기와 중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깨달음을 채우는 내용이라면 결국 이를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의 실제"라며 "신비화되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야단법석에는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신중일 기자

"전 세계에 평화의지 전할 터"

조계종포교원 UN방문… 평화의 밤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정전협정 60돌을 맞아 미국 현지에서 세계빈곤아동돕기 및 UN참전 용사를 위로하기 위한 평화의 밤 행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및 추모행사, 반기문 UN사무총장 예방, '천년의 문화 천년의 평화' 순으로 열린다.

11월 1일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및 추모행사'에서는 무명용사 탑 참배와 추모다례제가 진행된다. 다음날인 11월 2일에는 반기문 총장을 방문해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세계 빈곤아동을 위한 기금 10만 달러를 전달한다. 이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포교 및 신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 뉴욕 인터콘티넨털 호텔서 봉행되는 '천년의 문화 천년의 평화' 행사에서는 단청을 소재로 한 문화축제를 열고 지구촌 전쟁종식과 평화 선언을 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 유엔 대사 및 각국 대사, UN참전국 참전용사, 미국주재 한국인 오피니언 리더, 대한불교조계종 평화사절단 등 150여 명이 동참한다.

이번 행사가 의미깊은 것은 내년 9월 14일 예정인 '부산 UN묘지 한국전쟁 정전 60돌 추모행사와 평화대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돌을 기념하여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 의지 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대회 거행 한반도 평화정착 및 전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나눔으로 함께하는 이취임법회

중앙신도회 10월 13일 조계사서

조계종중앙신도회 이취임법회가 나눔문화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중앙신도회는 10월 13일 오후2시 조계사서 봉행하는 '제24대·제25대 회장 이취임식' 법회를 소외이웃을 위한 행사로 진행한다.

따라서 중앙신도회측은 지역독거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친환경 햅쌀을 전달하고 교정시설에 교양도서 2천권을 모아 보낸다. 중앙신도회측은 "축하화환을 정중히 사양하기로 했다. 그리고 쌀과 책 등을 기부해 나눔 문화행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것" 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교구 중심의 전국 대표 등 사부대중 2천 여명이 동참하는 법회는 ▷참여대중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한마당 ▷자비의 쌀 나누기 ▷교정시설 희망 도서 보내기 ▷기념품 나누기 ▷이·취임식 등으로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선(수첩) 200부 이상 @ 65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600
• 규격 : 8.9cm×9.5cm
• 매수 : 16장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일 주 문



생명나눔 자비바자회
남양주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10월 13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노인복지기금마련 자비바자회 등 자비나눔축제를 개최한다.



설악산 산사음악회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0월 13일 설악산 소공원에서 설악산 신흥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초발심 신도 기초교리 강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21일부터 2013년 1월 20일까지 초발심 신도 기초교리강좌를 진행한다.



제8회 금강산림대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제8회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천년솔향 산사음악회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0월 13일 고운사 경내에서 천년솔향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도갑사 주지 취임식
영암 도갑사 주지 설도 스님은 10월 13일 제7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기해 주지로 취임한다.



명상&경영강좌 개설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강에 걸쳐 '명상&경영강좌'를 개최한다.

〈화촉〉 불교신문 홍다영 기자는 10월 7일 오전 12시 보현청소년야영장에서 전영희 씨의 장남 길형진 씨와 화촉을 올린다.

〈인사〉 조계종호법부 상임감찰 효상 스님



조계종호법부 상임감찰 성파 스님 후임에 효상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효상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효상 스님은 종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2년 직지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장육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당파 떠나 불교 현안 살피겠다"

제19대 국회 정각회 27일 개원 법회 봉행



제19대 국회 불자의원들의 신행 모임인 정각회가 개원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정각회(회장 정갑윤·사진)는 9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당파를 떠나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 불교계 주요종단 지도자와 42명의 정각회원 등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불자는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며 "종교를 떠나 성별을 떠나 빈부를 떠나 모든 이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국정에 임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법회에 앞서 회장으로 선출된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제19대 국회 정각회가 9월 27일 조계사에서 개원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회장에 정갑윤 새누리 의원 선출
42명 구성… "불교 외호 견인차"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중도연기'"라며 "너와 나, 시비, 유무 등을 초월한 중도적 입장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해와 용서, 타협과 대화를 통해, 상생과 공존의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의원불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정법구현과 선양에 솔선수범하고, 불교외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각회 회원 의원들 역시 발원문을 통해 여야 구별없이 의정 활동에 충실함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비를 실천해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개원법회에 앞서 제19대 국회 정각회는 총회를 열고 전반기 회장에 정갑윤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강창일(민주당), 정문헌(새누리당) 의원을, 간사장에는 안규백(민주당) 의원을, 간사에는 이재형(새누리당), 임수경(민주당) 의원을, 감사에는 주호영(새누리당), 신경민(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간단한 지식으로도 문화재 훼손 막아"

불교유산 보존작업 진행하는 김선덕 서진문화유산 소장

"불교 문화재를 물건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보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선덕 서진문화유산 소장(48·사진)은 문화재보존과학기술자다. 20여 년간 국내 국보급 문화재와 불교유산 보존 작업을 진행했다.

통도사 금강계단(국보 제290호), 해인사 길상탑(보물 제1242호), 쌍계사 대웅전 벽화(유형문화재 121호) 등 불교문화유산을 비롯해 수원화성(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운현궁(사적 제257호) 등 수십여 개의 주요 유형문화유산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보존처리 됐다.

김 소장이 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할 때 내세우는 철칙이 있다.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선조로부터 전해진 공적자산인 문화재를 잘 보존·관리해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기술과 재료를 선택하고 보존처리하는 전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만 문화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는 문화재 보존윤리규범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김선덕 소장은 발 빠르게 대응해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작업을 진행해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흰개미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보존 컨설팅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분야다.

"의뢰를 받으면 전문가들이 해당 문화재를 진단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조언을 해줍니다. 평소에 문화재를 관리해주면 나중에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 소장은 독실한 불자로, 통도사에서 수계를 받았다. 그는 국내 사찰의 문화재 보존작업 의뢰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기 전 항상 대웅전 불상에 예불을 올린다.

김 소장은 "불교문화재 보존작업을 할 때 가끔 타종교 사람들도 같이 참여한다"며 "그들은 불교문화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사찰문화재 방지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 사찰들은 사찰조경을 위해 통나무를 장식해 놓는다. 이곳에 서식하는 흰개미들이 탱화와 단청을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사찰에서 이런 간단한 기본지식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문화재 훼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스님과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문화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02)2083-152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행원문화상 시상식 성료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주최하는 제 21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려도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와 작곡가 최영철 씨가 학술상과 예술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을 비롯 심사위원을 맡았던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 최정희 현대불교 이사,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자승 스님 목포해양경찰 방문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5일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전·의경들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목포해양경찰서전·의경들에게 체력단련물품인 런닝머신 두 대와 과일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를 방문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하는 해양경비함정을 둘러보고 전·의경들에게 "너무나 수고가 많다. 해양경비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선계사 봉불점안법회 봉행



관음종 직할사찰 철원 선계사(주지 도현)는 9월 23일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지 도현 스님은 "종단의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불교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량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도심을 벗어나 청정한 자연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 수련도 할 수 있는 데는 안성마춤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도 "도제양성과 자비행 실천에 매진하는 도량으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며 "지역주민과 연계한 노인복지시설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2012 PAL GWAN HOE

신라·고려시대
호국불교 의식을 재현

팔관회



2012. 10. 12(금)~
10. 14(일) 3일간
범어사



10월 5일(금) 14시부터
팔관회 세미나_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10월 12일(금)~14일(일) 11시~17시까지
전통문화 무료체험

10월 13일(토) ※ BBS부산불교방송 89.9MHZ 생방송
호국영령 위령대재 13시 30분부터
팔관회 재현 "국왕친영행렬" 14시부터
팔관회 호국기원법회 14시 30분부터
팔관회 재현 "조하의식"및 축하공연 16시 20분부터

10월 14일(일) 14시부터
"팔관재계 수계법회" (고산큰스님 증명)
10월 20일(토) 오전 9시
제4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_장소 : 초읍 어린이대공원 일원

www.palgwanhoe.or.kr
부산불교연합회 : 867-0501 부산불교연합신도회 : 861-8800
(우)614-8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00호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주관 : 팔관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불교TV BBS 부산불교방송

국군의 날 특집

수계 장병 전역후 관리 전무…대책은?

1958년 군포교 시작 이후 군포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과제와 개선점들이 제시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설립 후 군포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군포교가 갈 길은 멀다. 10월 1일 국군의날을 맞아 군포교 현황과 미래를 진단했다.

지난 5월 30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에서는 낙성 이후 첫 수계법회가 열렸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이 법사로 나선 이날 법회에는 3500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장병들이 모였다.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계법회에 참석하는 평균 장병 수는 4~5000여 명. 호국연무사만 해도 매년 10만명 이상의 수계장병을 배출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호국연무사에 모인 장병들이 군법당을 찾게된 계기는 몇 가지로 추려졌다.

"입대 전부터 부모님따라 절에 다녔습니다."(김일환 훈련병 · 24)

"집안이 본래 불교에요"(최익현 훈련병 · 22)

"동기들이 연무사에 가길래 따라 나섰습니다" (김정남 훈련병 · 23)

"먹을 것을 많이 줘서요" (장지수 훈련병 · 20)

당시 수계법회에 참석한 장병들 대부분은 가족과 친구들, 혹은 여러 조건들의 영향으로 불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과연 이들이 제대 후 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군종교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수계인원이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선 사찰에서 군포교 현장에서의 초발심했다는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젊은 남성 불자들이 불교를 접하는 관문으로 군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제대 이후 이들을 관리하는 사후 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일선 한 부대의 군법사는 "장병들이 군법당에 열심히 나오더라도 제대 이후 사찰에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 것 같다"며 "수계 이후 불자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군법사는 "전역 후 불자장병들이 인근 사찰에 다니고 싶어도 대불련, 청년회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제대이후 관리 부재가 10여년 전부터 논의되던 것이란 점이다.

유선재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단장은 "예전부터 수계인원을 종단과 지역사찰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연계가 원활치 않았다"며 "이대로 간다면 실속없이 수계에만 치중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불교계의 제대 이후 관리 부재 문제는 이웃종교의 경우에서 극명히 비교된다. 천주교의 경우 세례대장과 교적제도를 통해 세례를 받은 교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세례는 단 한번 밖에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례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세례대장은 세례를 받은 곳에서 관리하며 교적은 이사를 가거나 이동시 해당 관할 성당으로 이관된다.

군종교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전산화를 통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군종교구는 수계를 받은 군장병들이 전역 뒤 지역사찰과 청년회, 대불련 등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법당에서 조계종 신도증을 받은 장병은 360명. 군종교구는 신도증을 받은 이들부터 일선 사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군법회에서 예불을 올리하고 있는 장병들. 이들을 당당한 불자들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간 10만 명 수계…제대 후 신행활동 미지수
청년회 · 대불련 등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준비
SNS · 사이버 법당 포교 대안으로 꼽혀

군종교구 총무국장 지선 스님은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 되면 일선사찰에서 수계 인적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하지만 수계장병들의 리스트 만을 가지고 지역사찰과 교구본사에서 이들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먼저 전담 인력의 부족이다.

최경환 대불련 회장은 "군종교구 측이 보내오는 전역 불자장병 리스트만 가지고 지역사찰이나 대불련에서 무조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찰 내 인적 자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포교 현장에서는 사이버 포교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역 최선임인 김응 법사(육군 군종감)는 "최근 SNS를 활용한 포교, 사이버법당 등은 포교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전역 이후 일선 사찰에서 법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포교 현황

무종교 장 사병 불자화에 주력

1958년 5명의 군승장교 후보생이 임관하며 시작된 군포교. 50년이 넘는 동안 군포교 현장에는 젊은 장병들을 불교로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군종교구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군승 13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포교 지원 인력으로 비구니 스님 8명, 스님 85명, 포교사 29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웃종교의 기독교 군목사 268명, 천주교 군신부 94명 등에 비하면 열악한 상황이지만 성과는 높다. 2010년부터 수계인원이 10만명을 넘고 있으며 군장성 불자조직도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군내 신자수가 줄고 있는 것. 군내 신자 수는 2007년 11만 1000명을 기점으로 2008년 10만 4000명, 2011년 8만 900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체 군 장병 수가 줄어들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장병들의 수가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군내 무종교인의 수는 50%에 달한다.

무종교인을 불교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수계 인원이 일선사찰의 신도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군종교구는 현재 군승 양성을 위해 기존보다 대폭증가한 83일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TF위원회를 구성 교육편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군종교구 자료 제공)



"포교인력 확충 위해 비구니 파송 시급"

조계종 군종교구 총무과장 지선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 총무과장 지선 스님은 군포교의 시급한 과제로 군포교 현장의 인력확충을 들었다.

지선 스님은 "독신예외 조항인 9조 2항 폐지 이후 일종의 메리트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출가 연령 노령화 등과 맞물려 군포교 현장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대안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파송이 꼽히고 있다"며 "현재 민간인 성직자로 8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활동하고 있다. 복장 및 두발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지선 스님은 "수계장병 사후관리를 위해 전산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며 "천주교 교적제도가 롤 모델"이라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군법사들의 수보다 자질이 먼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예군승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법당도 신도 포교 진행해야"

현역 최선임 김응 법사

군종감인 김응 법사(대령)는 군법당도 신자교육을 통해 신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 법사는 "군법당도 일반 사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일요법회, 어린이집 등 대중에게 다가가는 포교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 법사는 또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춘 일선사찰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 법사는 "포천에서 교도소를 나온 사람이 군법당에 찾아온 적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일요법회를 매주 들었다는 그 사람은 일요법회를 진행하는 사찰이 없어 군법당에 왔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일반 사찰도 현대인들의 삶에 맞게 양력 위주로 행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법사는 "일선 현장에서 군 인트라넷과 인터넷 까페를 이용해 수천명의 장병들에게 사이버 포교를 진행 중인 군법사들이 있다"며 "카톡,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 법회를 못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법회보다 문화콘텐츠 강화"

유선재 대불련 군포교지원단 단장

유선재 대불련 군포교지원단 단장은 "400여 법당 중 군법사가 있는 사찰은 140여개에 불과하다"며 "전방부대로 갈 수록 법회를 보지 못하는 군법당이 많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군불교가 발전하려면 군승법사 수가 일단 늘어야 하고 재가 포교사들이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또 "단순한 육성법회 보다는 문화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눈높이 법회가 돼야 한다"며 "교구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민간에서의 활동을 소개했다. 유 단장은 "지난 4월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수련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단장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일요일이면 전방 부대를 찾아 법회를 진행하는 재가불자들이 있다"며 "군법사들과 민간 포교사, 여러 불교단체들이 함께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경을 일부씩 공부하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이센스 경전학습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일관성 있게 편집하여 탑재하므로써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화면을 보면서 듣고 반복할 수 있도록 체계성과 정확한 강사의 음성을 들어 학습할 수 있도록 짜여진 시청각 경전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제주도에 성지 순례길 열린다

제주도에 불교 성지 순례길이 만들어진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3월부터 성지순례 코스개발팀을 구성해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기반으로 6개코스의 불교성지 순례길을 완성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10월 6일 오전 9시 관음정사 옆 해태동산에서 6개 코스중 지계의 길을 먼저 개장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나머지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코스 개발은 제주불교신문과 제주도 관광공사가 함께 손잡고 장성수 교수(제주대 관광개발학과), 한금순 강사(근현대 제주불교 박사 학위 취득), 고은경(제주대 지리교육학과) 강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성과다.

순례길의 이름은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수행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六波羅蜜) 수행방법을 지역특색 및 역사적 유래 등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순례코스의 주요 자원은 관음사, 수정사지, 법화사, 법정사지, 원당사지 등 주요사찰 5곳, 불탑사를 비롯 약천사 등 전통사찰 12곳, 불교문화재 보유사찰 18곳, 템플스테이 3곳, 불교관련 토속신앙 산신기도터 등으로 구성됐다.

보시의 길(33.3㎞)은 수천년동안 이어온 불법을 세상으로 전하는 길로 극락사에서 시작해 수정사지~장안사~보덕사를 지나 원당사지에서 끝난다. 지계의 길(14.2㎞)은 선인들이 함께 걸었던 길로 해태동산을 출발, 관음사까지 이어진다.

인욕의 길(21㎞)은 존자의 신행을 상징하는 길로 관음사를 출발해 천왕사~선녀폭포~영실오백나한~존자암까지 이어진다. 정진의 길(18.6㎞)은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수행의 길이다. 존자암에서 시작돼 한라산 둘레길을 거쳐 시오름~남국선원~선덕사에 이른다.

선정의 길(39.6㎞)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지혜의 길로 해탈을 상징한다. 선덕사를 출발해 정방사~봉림사~약천사~광명사로 이어진다. 지혜의 길은 산방굴사와 월계사, 삼광사 등을 지나는 길이나 사찰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이동하는 코스다.

순례코스…보시, 지계 등
6바라밀서 길 명칭 따와
10월 6일 관음사서 첫 개장


제주도에도 본격적인 성지순례의 길이 열린다. 사진은 10월 6일 첫 개장하는 관음사 전경

제주불교신문측은 "이번 성지순례길은 기원전 2500년 전 부처님의 여섯 번째 제자 발타라 존자의 기원설이 담긴 존자암을 비롯해 수정사지 · 원당사지 · 법화사지 등 고려시대 1000년의 역사 ·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사찰 및 유적지와 연계, 성지순례 코스로 체계화해 불교 ·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다"며 "이 길은 2천만명의 국내 불자를 비롯해 일본 · 중국 등 동북아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순례길을 통해 마음치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은 "천주교와 기독교 순례길에 이어 제주 고유의 불교역사문화가 접목된 불교성지코스가 선보였다"며 "국내 뿐 아니라 동남아 등 불교문화권에서도 종교성지순례 관광수요가 많은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힐링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파라미타 전용회관 건립할 것"

파라미타 신임 사무총장 법경 스님



5년 간 모금 전개해
회관 건립 재원 마련
단체 자생력 확대 최선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유관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조계종 대표적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법경 스님(사진)은 9월 24일 불교계 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으로 전용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라는 과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3년 전 조계사 교육관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현재까지 더부살이 중이다. 이전 후에도 조계종 측의 퇴거 요청은 꾸준히 있어왔다.

"전용공간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의견만 있을 뿐 실제로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파라미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회관 건립은 필요합니다. 저부터 제 활동비를 전부 기부해 파라미타 문화회관 건립에 나서겠습니다"

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급선무. 법경 스님은 향후 5년 간 모금 활동을 전개해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 바자회와 CMS 후원 등도 추진한다.

또한 법경 스님은 문화회관이 단순히 파라미타만을 위한 공간만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화회관 건립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들의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문화회관을 건립해 파라미타와 불교청소년단체들이 입주해 함께 활동하게 된다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라미타도 탈북, 소외계층 청소년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회 사상 첫 만점자 軍에서 나왔다"

제4회 나란다축제 수상자 발표

김청강 일병 대상 수상영예

제4회 나란다축제에 참여한 육군 제7포병여단 661포병대대 소속 김청강 일병이 대회 사상 첫 만점을 기록, 군장병부문 대상수상자로 확정됐다. 김청강 일병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상휴가, 장학금 50만원이 지원되며, 소속 포대에는 격려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은 9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4회 나란다축제 중 · 고등 · 군장병 부문 등 개인상과 단체상, 특별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했다.

중등부문과 고등부문은 경포여자중학교 2학년 장재선 학생(강원파라미타연합회)과 대구 운암고등학교 2학년 박진경 학생(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체상 대상은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차지했으며, 현장에서 결과가 발표된 초등부와 일반부는 오남초등학교 5학년 양윤성 학생(봉선사 어린이법회)과 조계사불교대학팀(이정애 · 전선호 · 전홍연)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상은 군장병 부문에 참가한 부대 2곳과 사찰 4곳, 응시율 등에서 앞선 종립학교 2곳 등 총 9곳을 선정했다. 대상 단체로 선정된 강원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종립학교가 설립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높은 참가율과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참가학생들의 평균 점수 또한 높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 9명이 접수한 특별상의 경우 문화재지킴이 활동, 환경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한 3명만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거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1회 은정장학 · 학술연구지원, 생활격려금 증서수여식'이 함께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불청 "도심사찰서 키크기 교육"

조계사 봉은사 진관사서 10월 6일부터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0월 6일부터 11월까지 도심사찰에서 '아동 키크기' 체육교실을 개최한다. 체육활동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조계사, 봉은사, 진관사에서 각각 40명으로 나눠 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교사의 지도로 성장판을 자극해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비만도를 확인하는 '체질량지수(BMI)' 검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지도교사로는 정전철 한국유아체육지도자협회 교육이사, 현일환 한국선수트레이너 협회 이사, 최윤성 연성대 육아재활특수학과 교수, 전완기 태화복지관 사회체육팀 전임강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공모에 당선돼 마련된 이번 행사의 참가 신청은 대한불교청년회(www.kyba.org)에서 하면 된다.

정혜숙 기자

강정마을 어르신 법륜스님이 위로

평화재단 강정마을 경로잔치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이 한가위를 맞아 10월 1일 제주도 강정마을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는 법륜스님이 주민들을 위한 '위로와 화합이 말씀'을 전하고, 방송인 김제동씨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또 뚜럼브라더스, 제주민요패 '소리왓', 가수 김미린씨, 강정마을 민속보존회와 제주민예총의 풍물패 등이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평화재단은 "제주도의 아름답고 소박한 강정마을이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분열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지쳤던 마음, 분노했던 마음,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카이스트 유학생 템플스테이 체험

국제포교사회 주관 법주사서 진행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카이스트 유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고 대전충청전법단이 후원한 '대전충청지역 청년 불교문화 국제교류 템플스테이'가 9월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 동안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최됐다.

카이스트에 재학중인 스웨덴과 파키스탄,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국 등 15개국의 유학생 34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한국의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새벽예불, 법주사 탐방, 사찰음식체험, 그룹미션(인생이 즐거운가? 고통스러운가? 불교문화를 접한 소감 등), 108배, 참선, 스님과의 차담시간 등이 진행됐다.

국제포교사회는 "KAIST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전 · 충청 국제포교사와 대전충청전법단이 템플스테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가진 한국과학기술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취지를 말했다.


카이스트 유학생 템플스테이가 9월 22일 진행됐다.

불교문화 체험의 장 마련
미국 등 15개국 유학생 참여

대학생들과 함께 포행을 진행한 법주사 주지 현조스님은 "한국불교문화체험을 통해 각자의 성품, 잠재력을 개발하여 더욱 풍부한 삶을 살길 바란다"하고 당부했다.

앞으로 대전충청지역 국제포교사와 대전충청전법단 네트워크는 외국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불교태고종 종정을 역임하신 불이성 법륜사 중창주

덕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

1. 다례제	: 불기2556년 10월 12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
2. 보살계 입재일	: 10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
회향일	: 10월 12일(금) 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장소 :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
3. 덕암큰스님 사리친견	: 10월 8일 ~ 12일	장소 : 불이성법륜사 3층 대불보전
4. 세미나	: 10월 8일 14시 부터 ~ 17시(3시간)	장소 : 전승관 1층 대회의실
5. 덕암큰스님 유물전시회	: 10월 8일 ~ 12일	장소 : 불이성법륜사 종무소
6. 서예전시회	: 10월 8일 ~ 12일	장소 : 전승관내
7. 사진전시회	: 10월 8일 ~ 12일	장소 : 전승관내

◆주 최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덕암큰스님탄신100주년기념대법회추진위원회 ◆주 관 : 덕암화상문도회, 불이성법륜사

◆후 원 : (사)대륜불교문화원, (사)한국불교문화예술사연구회, 대륜화상문도회, 한국불교신문, 불교TV, BBS불교방송, 각시도교구종무원, 선암사, 봉원사, 백련사, 청련사, 한국불교태고종 연화비구니회,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회,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불이성법륜사신도회

◆문 의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총무부(김지미주임) 02) 739-3450~4 불이성법륜사 종무소 02) 732-2710, 3920

교계 복지관 노인의 날 행사 '다채'

일산 · 은평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공경을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 '노인의 날'이다.

유엔은 세계 노인의 날로 10월 1일을 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25일부터 불교계 복지관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관 야외무대에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을 펼친다. (02)385-1351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0월 5일 오후 1시 개관 9주년과 노인의 날을 맞이해 '9988 해피투게더'를 실시한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와 모범어르신 시상, 초청공연, 가요제 등이 마련되며 어르신들에게는 무료점심식사가 제공된다. (02)466-6242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영운)은 10월 10일 지역사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 간 상호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 천태자비 시니어 樂 축제'를 실시한다. 지역 노인과 주민,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여하는 이날 행사에는 길놀이 등 식전행사와 무료공양, 문화공연 등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02)999-9179

서울 방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현숙)은 9월 25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서초어르신 열린잔치를 진행했다. 복지관은 노인의 날을 기념해 모범노인표창식과 특별초청공연, 연예인 특별공연 및 어르신 문화공연 등을 개최했다. 또한 9월 17~21일 서초구청 서초플라자에서 서예, 문인화, 수채화, 공예 등 어르신 작품전시회를 마련했다.

경기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전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및 호수공원 일대에서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제3회 전국어르신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고 문학 작품을 공모한다. (031)919-8677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9월 25일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위한 국악콘서트 '헌화(獻花), 너에게 꽃을 주다'를 열었다. 국악콘서트를 진행한 우도농악보존회는 무형문화재 제17호로 판놀음, 판소리, 민요, 가야금 병창, 창극, 한량무 등 다양한 국악으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신명나고 뜻 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제16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축하공연 및 어르신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교계 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어르신 위문공연 모습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9월 27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심 대한노인회장 등을 비롯한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행사,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행사에는 '노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홍보동영상이 상영되고 유공자 포상식, 평양통일예술단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홀몸노인 및 경로당을 방문해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가수 이무송·배우 곽진영 종로복지관 방문

어르신 600명에게 식사 대접


가수 이무송과 배우 곽진영(사진 오른쪽)이 복지관 이용 어르신 600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대접했다.

가수 겸 사업가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무송 바로연 대표와 배우 곽진영이 9월 24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이날 이무송씨와 바로연 임직원 10여명, 배우 곽진영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 600명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대접했다. 바로연 임직원은 복지관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김정숙 경기민요국악원장을 초청해 흥겨운 민요 한마당을 벌였다.

이무송 바로연 대표는 "어르신들이 지난해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다. 바로연에서 많지는 않지만 작은 정성을 모아 점심식사와 간소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이 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근 김치 사업을 시작한 곽진영도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해 "오랜만에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 요즘 사업한다고 정신없고 좀 처져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하시게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다시 힘이 솟는다"며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종말이 김치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위안부 피해할머니, 3000만원 장학금 보시

배춘희 할머니, 중앙승가대에 기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중앙승가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나눔의 집 배춘희(89) 할머니는 9월 26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 중앙승가대학교에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나눔의 집 배춘희 할머니(사진 오른쪽서 두번째)는 9월 26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중앙승가대에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배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아껴 모은 돈이다.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배 할머니는 19살 때부터 중국 만주에서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으며 광복 이후 중국과 일본 생활을 거쳐 1981년 귀국해 1997년부터 나눔의 집에 살고 있다.

배 할머니는 노환으로 지난해 가을 이후 수요집회에 나가지 못하고 와병 중이다. 하지만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아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증식에 참여했다.

배춘희 할머니는 "내 꿈이 스님이 되는 것이었다. 못다 이룬 내 꿈을 대신해 스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지 않은 돈이지만 드린다"고 전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무처장 미산 스님은 "할머니께서 주신 귀한 돈을 값지게 잘 쓰겠습니다"며 "좋은 인연이 되어 늘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할머니의 마음이 학인스님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금전달식 이후 배춘희 할머니는 학인스님들을 만나고 강의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전생에 내 고향을 온 느낌이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이 곳인 것 같다. 꿈에 왔다 가는 기분이다"라며 감격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

동화사, 화계사 신도 봉사활동 다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이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개최해 불교계자원봉사조직의 체계적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하는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으로 2004년 시작된 이후 80여 곳의 사찰 및 신행단체가 교육에 참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과 이승만 차장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불교계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이념'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등 강의를 통해 불교계 자원봉사자단의 조직화와 체계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9일 대구 동화사에서 150여 명을 대상으로, 15일에는 서울 화계사에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동화사 자원봉사단은 9일 교육을 마친 후 '조계종자원봉사단 지회'로 공식 등록하며 불교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9월 15일 서울 화계사에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받았다.

또한 화계사 봉사교육에 참가한 봉사단원들도 선서문낭독을 통해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찰 신도조직을 체계적 자원봉사 조직으로 전환한다면 사찰이 지역사회와 서로 공존하는 사회적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사찰 내 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발대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의 체계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찰에게 무료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개소 후 첫 행사

'어르신 위한 효사랑 나눔잔치' 개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독거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한가위를 맞이해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과 한화생명 강북지역본부(본부장 윤병철) 임직원들은 9월 26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孝사랑 나눔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복지관 종사자와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독거어르신 100분에게 식사를 대접했으며 '동행 연우회 봉사단'이 어르신 위문공연을 펼쳤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운영지원사찰인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담소 스님(마음연구소장), 김영태 원장(신당데이케어센터)이 참석했다.

법타 스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두 어르신들 덕분이다. 복지관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용갑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오늘 행사는 한화생명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을 처음으로 모신 뜻 깊은 행사다. 앞으로 중림동 지역 복지를 위해 열심히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02)362-3348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0월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산사랑! 가족사랑!"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가족 산행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박현성)에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골드윈코리아가 후원하는 가족사랑 프로그램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가족 산행』 2012년도 3차 및 4차 산행을 오는 10월13일(둘째주 토요일)과 10월 27일(넷째주 토요일)에 각각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2년 10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 참가대상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5~6학년(10명) 및 그 부모 / 서울시 거주 중학생(10명) 및 그 부모
• 맞벌이 가족으로써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가족 우선
• 회기당 참여 가족이 많을 경우 아빠와 함께 참여한 가족 우선

▣ 프로그램 개요
목적 : 부모-자녀 관계개선 및 가족화합 및 자연보호
장소 : 3차 : 도봉산 둘레길(18코스) 도봉옛길구간 → 10월 2주차 토요일(10월 13일)
4차 : 북한산 둘레길(21코스) 우이령구간 → 10월 4주차 토요일(10월 27일)

▣ 참가자에게는 등산모, 등산스틱, 수건 등을 제공 합니다.
▣ 참가 학생에게는 자연보호 자원봉사활동(4시간)증을 발급 합니다.
▣ 접수 : 선착순 마감(신청서 작성시 참가 희망 날짜를 정확히 기재 요망)
▣ 참가자 준비물
• 산행에 편리한 복장 • 우천시 대비 비옷 및 우산 • 점심 도시락
• 진행계획 : 자연보호 캠페인 및 산행, 둘레길 탐방(참가비 없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 02)733-5138, 735-8165
• 참가신청은 이메일 yeba@chol.com 또는 팩스 02)722-6623 으로 보내 주세요.
•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www.yeba.or.kr 에 올려 놓았습니다.

주 관 : 청소년교화연합회. 주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후원 : 골드윈코리아(노스페이스)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가족산행" 프로그램은 골드윈코리아(노스페이스)가 후원 합니다.

국제선센터 명사 초청 일요법회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깨어있는 삶은 '바른 관계 맺기'

현대사회는 생명 위기의 시대다. 연기법에 근거해 생명 존중과 비폭력의 삶을 존중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지남과 같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생명과학자이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생명과학에 어떻게 투영시킬 것인가를 천착해왔다. 9월 23일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법정)에서 열린 일요명사초청법회에서도 우 교수는 생명에 대한 예의와 불교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대중들에게 설파했다. 이날의 강연 현장을 정리해봤다. **정리=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늘은 '생명에 대한 예의와 깨어있는 삶'을 주제로 대중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연기법을 통한 생명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오늘 이야기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인혁당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작된 것으로 다들 알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면 간첩단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중세로 가봅시다. 중세시대 마녀재판의 경우 무고한 여인들이 마녀라는 지목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대부분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이들을 실제 마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자신이 보고 있는대로 존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은 나의 인지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마녀재판과 인혁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 현대사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과학과 자본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자본주의의 시각이 부처님의 시각과 어떻게 다르고, 그 경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행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137억 살

오늘 모이신 분들의 연령대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다들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 없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역시 당신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수많은 조상들의 역사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현대 천체물리학의 이론대로 추산하면 이 우주는 137억 년 전에 빅뱅과 함께 형성됐습니다.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고, 그 지구 안에서 초기 생명체가 생기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나이는 137억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137억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 자본이 결합한 시대
인간의 욕망만 확대
관계 단절 · 왜곡은 '폭력'
바른 관계 회복이 시대과제
'생명연장'이 생명존중 아냐
죽음, 삶의 일부로 인식해야

아름다운 죽음은 삶에 있다

내 피를 빠는 모기도 내 피를 빨기 위해 137억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차없이 잡죠. 내 뺨에 있는 모기를 살려야 할까요, 죽여야 할까요? 우리는 '죽인다, 살린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사는 게 좋은 것이고, 유수한 역사 속에 생명이 살아 있다면 지구는 반토막이 났을 것입니다. 흔히들 '생명 연장'을 '생명 존중'으로 착각하는데 생태계가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피해야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야말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하지만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피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 때 아름다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고, 앞으로 펼쳐질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과 같은 무의미한 죽음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무수한 시간의 역사는 수많은 관계들로 채워집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이런 관계 맺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불교적으로 풀이하자면 연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런 연기적 실상을 깨달으라는 데 있습니다. 연기적 실상은 현대적 언어로 보면 바른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명 안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관계는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당신이 잘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자본주의로 투영되는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과학자로서 소회를 밝히자면 과학이 자본주의와 과도하게 연결된 형국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쉬워졌고, 이 잉여가치는 자본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과학과 자본은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이미 과학도 생산 효율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경쟁 시장 속으로 과학자들을 내몰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키려 합니다. 생산과 그에 따른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 경쟁은 가능한가

사회는 무한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할까요? 경쟁은 대등한 조건에 놓은 사람과 집단이 하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무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사회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생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선 순환 구조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연기적 실상은 깨지고 고통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는 이 같은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해고된 사람들 중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의 죽음, 바른 관계가 깨어지는 경계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가 우리 불자들이 고민해할 지점들 입니다.



우희종 교수는 … 법명은 여산(如山). 우희종 교수는 1981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강사 등을 거쳐 1992년부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면역학교실 교수로 있다. 현재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불교평론 편집위원 등 한국불교 지성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어리석음은 곧 폭력이다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연기적 실상이라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명이고 폭력입니다. 세상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파렴치한 범죄와 종교 갈등 등 수많은 폭력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상처 입히고, 주먹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왜곡과 단절 역시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 경책하는 것을 폭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분풀이로 문제에 접근해 아이들 채근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감정으로 아이를 때릴 때 관계는 단절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주체가 아닌 대상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참된 관계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명이고, 이는 내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강자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약자들은 폭력적 상황에서 무관심과 체념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관계를 스스로 닫아버림으로서 이를 모면하려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나선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와 같은 우리들의 체념들은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내몰리게 된 사람들에게는 폭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이 살고 있다면 이런 폭력적 구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면목을 바로 보기 위한 수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회에서, 일상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유훈인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은 스스로를 밝혀 폭력적인 삶의 구조를 바로잡으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을 깨뜨리라'는 말도 내 안의 무명으로 형성된 왜곡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수행의 방법은 많지만, 그 형태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당신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9월 23일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우희종 교수 초청 일요법회에서 참가대중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고려 사원이 국가경제 지탱해

승시봉행위 학술세미나서 기여도 중점 조명

"고려시기 사원의 경제활동은 고려사회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간인의 3/10을 상회하는 승려의 수와 사원에 소속된 노비들은 국가경제에 크게 일조했다."

고려시기 사원은 많은 농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원의 경제활동에 주목한 세미나가 열렸다.

승시봉행위원회(위원장 성문)가 9월 15일 대구 보현사 보광명흘에서 연 '승시의 역사와 그 재현 방향성' 학술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당시 사원경제가 차지하는 국가경제에서의 위상과 승시가 불교와 민중의 소통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다뤄졌다.

이날 이병희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려시기 사원은 많은 농지를 지배했으며 여기서 나온 곡물을 비롯해 구황식품 등을 생산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고려시대 수공업 제품 제작을 비롯해 소금 제조 등 고급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스님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원에 불화를 그리고 기와를 굽는 등 사원 조영에 여러 장인이 동원됐지만 승려 신분의 기술자들도 상당했다"며 "고려시대에는 고급기술을 보유한 승려가 많아 부채, 모시, 붓, 농기구 등이 사원에서 제작됐으며 이런 것들은 세속사회에 다양한 보시로 다량 베풀어졌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국가기구와 왕실에서도 생산은 했지만 이는 소비 측면이 더 강했으며 사원은 소비보다 생산 측면이 강해 민중에 대한 보시가 가능했다"며 "이는 세속의 보시에만 의존하는 현대 불교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구황식물 재배 · 농기구 생산
민중에 보시로 사회역할 강화
당시 스님들은 전문기술자
교역로 사찰은 국제무역도


팔공산 승시축제에서 당시 승시 모습을 재현하는 스님들의 모습

한기문 경북대 교수도 '고려시대 사원 교역의 범위와 기능' 발제를 통해 사원 생산품들이 국제교역에도 활용됐다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사원은 광범한 분포와 연계망을 형성해 고려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했다"며 "국가 유통체계에서 사원이 이를 대행했으며 승려대회를 기해 전국적 중심 교역장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지방 도심에는 분원을 소유해 교역창구로 활용하기도 했으며 교통요지에 위치한 사원은 국제 중계무역 장소로서 기능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사원 교역이 사원경제를 활성화 했으며 이는 사회적 지위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쟁으로 사라진 사찰, 사진으로

성균관대 박물관, '유리원판에 비친 문화유산'展 개최

곡성 관음사와 평양 광법사 등 전쟁이나 개발로 사라진 사찰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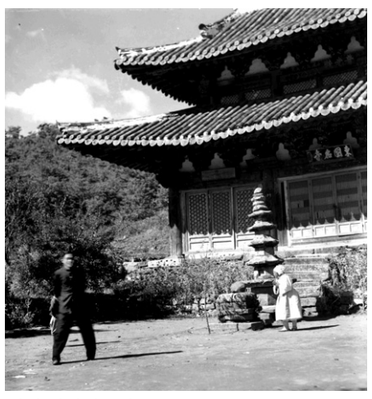
성균관대박물관(관장 이희목)은 9월 24일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특별기획전을 개막했다. 특별기획전은 12월 24일까지 성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6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이번에 복원된 유리원판 필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부터 1940년까지 일본인 식민사학자 후지타 료사쿠가 찍은 1876장이다.

성대박물관에서는 2005년부터 유리원판 사진의 디지털 복원작업을 시작해 올해 복원작업을 완료하고 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곡성 관음사, 평양 광법사 등 한국전쟁으로 사라져 버린 사찰의 옛 모습은 최초 공개된 것으로 1952년 소실된 곡성의 관음사 원통전과 관음보살상, 후불탱화가 소개됐다.

곡성 관음사 원통전과 관음보살상은 고려 말에 조성된 것으로,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올렸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사찰이다. 현재 복원불사가 진행 중으로 복원을 위한 기본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평양 광법사 모습

평양 광법사는 북한 제1의 사찰로 역시 1952년 소실됐다. 광법사 대웅전 현판에는 '동국명사(東國名寺)'라고 씌여있다.

또 문경 봉암사 봉황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등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됐다.

성대박물관은 "이번 사진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이었던 후지타 료사쿠가 찍어 보관하던 사진을 해방 직후 성균관대가 입수해 보관해오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석가탑 해체 시작

9월 27일 해체수리 착수보고회 개최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와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9월 27일 불국사에서 전문가, 관계인사와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 · 석가탑) 해체수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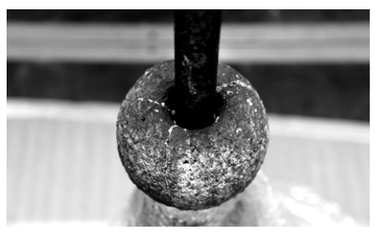
이날 보고회는 고불의식(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과 삼층석탑 해체수리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부재 해체시연으로 진행됐다.

이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0분 간 석가탑의 꼭대기 부분인 상륜부를 해체하는 시연 작업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해체작업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초순경부터 시작된다.

삼층석탑의 해체수리는 지난 2010년 12월 정기안전점검 시 북동측 상층기단 갑석에서 갈라진 틈(길이 1.32m, 최대폭 5㎜)이 확인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2014년 완료될 예정이다. 1966년에는 도굴 미수 사건으로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보수한 바 있다. 해체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석탑주변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설덧집을 설치하여 일반관람객이 해체수리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석가탑 해체수리 및 조사 개념도


해체 시연에서 파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부재 보주

대각사상연구원-화엄사 공동 학술세미나

10월 17일 화엄사서… '용성스님의 한글화엄경과 화엄사' 주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과 화엄사(주지 종삼)가 공동으로 10월 7일 구례 화엄사에서 '용성 스님의 한글화엄경과 화엄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산당(离山堂) 도광(導光) 대선사 28주기 추모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도업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의 '화엄사상-법신불 사상'을 비롯해,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의 '용성스님 국역 〈조선글화엄경〉 연구',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백용성과 이운허의 번역을 중심으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근현대 화엄사의 사격과 진진응 · 이동헌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 스님의 '구도자, 도광스님 연구-그의 보살행과 구도 행각' 등 5편 논문이 발표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권탄준 금강대 교수,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 김종인 경희대 연구교수, 화엄사 포교국장 우문 스님, 이재수 동국대 연구교수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석전 스님 시문학 · 글씨 문화 축전

불교학의 큰 스승이자 근대 불교교육의 선각자인 석전 박한영(1870~1948) 스님의 시문학과 글씨 유품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정각원과 백파사상연구소는 10월 8~23일 동국대에서 '석전 박한영 스님 축전'을 개최한다.

석전 스님은 조계종 전신인 조선불교 제1대 교정(현재 종정)으로 1932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맡아 오랫동안 인재양성에 나섰다. 청담 스님과 운허, 운기, 운성, 청우, 남곡, 서경보 스님 등이 제자다.

이번 축전은 교장 취임 80주년을 맞아 시문학과 유품을 통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자 열린다.

축전은 10월 8일 석전 스님 시문학 연구 세미나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또 같은 날 시전에서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의 '석전의 한시세계', 강상일 동국대 교수의 '석전의 한문학 및 한문학사론', 고재석 동국대 교수의 '석전문학의 근대 문학사에서의 위상', 홍신선 동국대 교수의 '석전이 현대 시인문장가에게 끼친 영향' 등 발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는 석전 스님의 유품 전시전과 음악제, 영상상영 등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 63집 출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최근 〈한국불교학〉 제63집을 펴냈다.

이번호에는 '오대산 화엄의 특징과 탄허의 원융사상'을 주제로 △자현 스님의 '오대산 문수화엄신앙의 특수성 고찰'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탄허 택성의 생애와 사상'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한암과 탄허의 동이점 고찰' △임상희 중앙승가대 연구원의 '탄허 택성의 화엄사상'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탄허의 시대인식과 종교관'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탄허 스님의 예지, 그 배경과 의의' 등이 실렸다.

또 연구논문으로 이종수 박사의 '조선후기 삼문수학과 선 논쟁의 전개', 김성순 박사의 '경허성우의 몸과 마음', 양오영 박사의 '티베트 불교에서 성불의 의미', 현서 스님의 '산따락시따의 세속과 유식설', 여현 스님의 '마조선에 나타난 교학사상', 이석환 박사의 '불성의 본질과 중생의 관계'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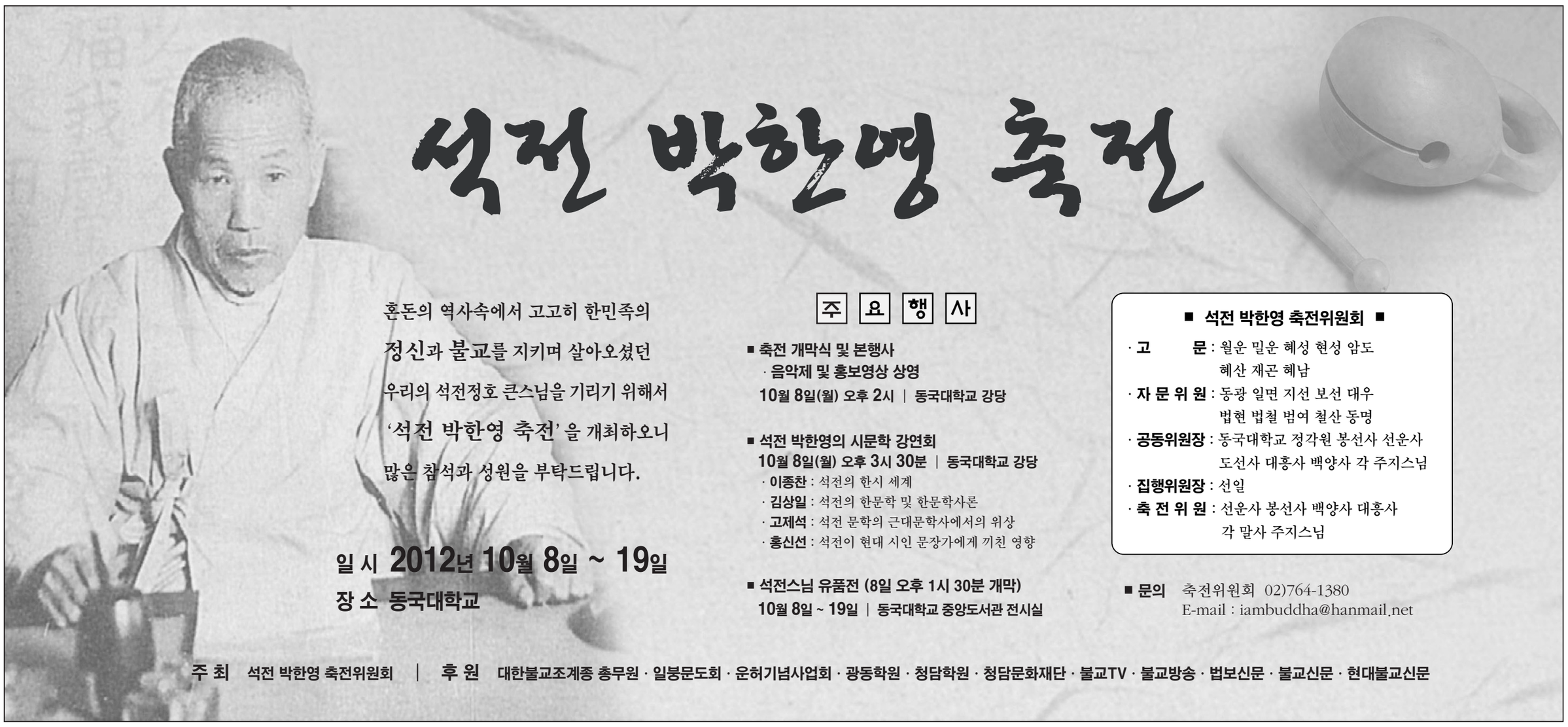
'불교문화재와 나' 사진 공모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스님)은 10월 15일까지 '불교문화재와 함께한 사진전(展)'에 전시될 불교문화재 사진을 공모한다.

'문화재와 나'를 주제로 진행되는 사진 공모전은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주제 기획특별전(10월17일~12월9일) 개최를 맞아 불교문화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관람객들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된 사진은 특별전 기간 중 소규모 사진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ddhis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진은 심사를 거쳐 10월30일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전북불교회관 108산사 순례단 4기 회향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108산사 순례단(지도법사 보연)이 4기 순례를 회향하고 5기 순례길에 올랐다.

지난 2000년 11월 당시 금산사 주지이던 도영 스님이 발의해 조직된 108순례단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사찰을 찾아 108번뇌를 닦는다는 의미로 창단됐다.

매기마다 108산사를 순례하면 회향하고 다시 입제하면서 12년 동안 4기 회향을 맞고 5기 순례길에 올랐다. 매 기수마다 연인원 3000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다녀온 사찰 숫자만 500여개에 달한다. 그동안 동참 회원들 수는 1만 5000명에 육박한다.

5대 적멸보궁과 삼보사찰은 물론 전국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면서 참회기도 정진을 하며 신심을 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결제철이면 봉암사, 대승사와 같은 선방의 대중공양을 하고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108산사 순례단의 가장 큰 성과는 회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포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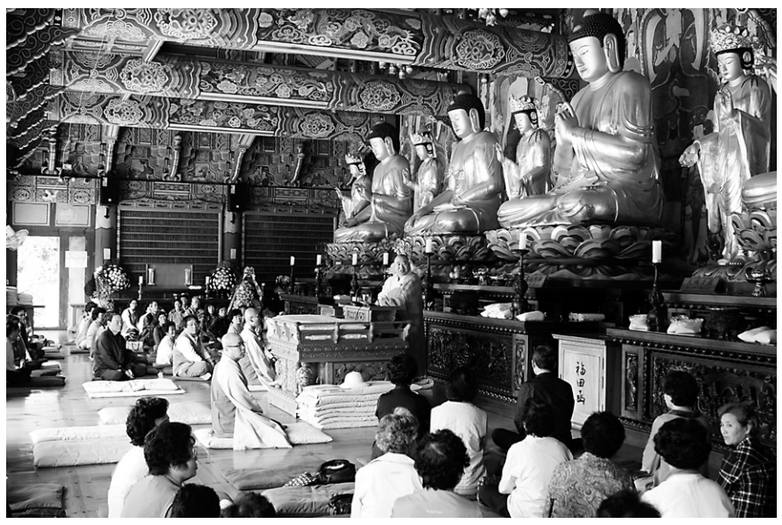
순례길서 만난 한 회원은 자신은 아직 불자라고 할 수 없지만 친구와 함께 순례길에 따라 나서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며 불교를 알아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달 4기 회향을 맞은 순례단은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회비 중 약 2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지역 불교계에 회향했다. 그동안 지역불교계에 군불교발전기금이나 포교기금으로 회향한 금액도 8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4기에는 전주 혁신도시의 포교당 토지 매입기금 1000만 원과 금산사 복지원에 운동기구, 전북불교회관에 복사기를 구입해 기증하기도 했다.

동참자 1만5000명 달해

포교기금 8000만원 모연

포교당 토지매입 복지지원 나서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전북불교회관 4기 회향식 및 5기 입제식 장면

초대 김기운 단장에 이어 순례단을 이끌어 온 주정기 단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108산사 순례는 순례사찰의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당해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주변 문화유적지도 함께 순례하는 불교문화유적 순례에 주안점을 두는 성지순례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정기 단장은 이어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의 사찰도 순례하면서 우리 지역의 불교역사유적에 대한 관심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24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보연 스님과 130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4기 회향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지난 3년간 뛰어난 신심과 원력으로 108산사 순례를 마무리한 순례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출범할 5기 순례단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기 임원단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3년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한 이록순 씨와 이옥순 씨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5기 108산사 순례단은 입제식에 이어 군산 은적사, 김제 흥복사, 완주 송광사 순례길에 올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1월 전북서 세계순례대회 열려

600리 구도(求道)의 길, 그 아름다운 길이 전북에서 열린다. 한국순례문화연구원이 마련한 세계순례대회는 11월 1~11일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등 4대 종단 지도자와 신도 등 1만여명이 참가한다.

11월 1일부터 9박 10일간 걷고 10일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종교화합 한마당이, 11일에는 세계순례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는 티베트 종교문화부 삐마 친조르 장관(불교), 세계평화회의 공동 대표인 이오은 교무(원불교), 로마 교황청 순례특사인 조셉 칼라피 파람빌 대주교(천주교) 등이 순례와 종교 화합의 상관관계를 조명한다.

순례가 진행되는 길은 전주~완주~김제~익산을 잇는 240㎞로 순례길 선포 이후 전국에서 해마다 1만명 가량이 이 길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이 길을 '2010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길'로 지정하기도 했다. 순례길은 1845년 한국인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 성지(익산시 망성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명의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완주군 비봉면), 불교문화의 정수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호남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시 다가동),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군 소양면) 등으로 연결된다.

개막식은 11월1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폐막식은 11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수곤 조직위원장은 "4대 종교가 순례길을 통해 통합하듯 이 길을 걸으며 분열과 반목의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월 8일 광주 생명나눔 음악회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오는 10월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생명나눔 콘서트5'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광주전남본부의 홍보가수로 활동 중인 주권기 씨의 콘서트를 겸한 공연으로 임지형(광주현대문용단), 이환희, 유미랑, 한서은, 아리아 등이 재능기부로 출연할 예정이다.

유한진 사무국장은 "주위에 난치병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 희망과 새 삶을 주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 보내는 음악회이므로 많은 참여바란다"고 했다.

15년간 생명나눔 홍보가수로 활동 중인 주권기 씨는 "이번 음악회에는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병고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힘을 보태고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이다"라고 강조했다.

5회째 맞는 이번 음악회는 수익금의 전액이 환우들에게 전달되며, 음악회에는 생명나눔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홍보활동이 같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 5회 선운문화제 성료

보은염 이운식 · 산사음악회 · 음악놀이경연 열려



보은염 이운식에서 법만 스님이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

가을의 전령사 꽃무릇이 일주문에서 도량곳곳에 붉은 카펫을 펼쳐 놓은듯한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제5회 선운문화제가 9월 22 ~ 23일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제5회 선운문화제는 1500년 전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스님이 양민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보은염 이운식'을 토대로 전개된다.

행사는 검단마을 사람들이 백제시대 의상을 입고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소달구지에 싣고 선운사에 도착하며 시작한다.

행사에서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들과 이강수 고창군수, 고창군의원들이 행렬을 맞이하며 함께 부처님께 육법공양을 올렸다.

이와 함께 'KBS 찾아가는 음악회'가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돼 선운사 스님들과 종무원들로 구성된 선운사 밴드가 음성공양을 올렸다. 또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소프라노 김주연, 하피스트 곽 정, 가수 박완규, 타악 연주자 최소리 등이 출연하는 공연이 이어졌다.

23일 같은 무대에서 열린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전북지역의 청소년들이 밴드, 노래, 댄스, 국악부분으로 나뉘어 동아리 활동으로 다져진 자신들만의 다양한 장기를 뽐냈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 청소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참가 신청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예정에 없던 예심을 거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공연참가 열기를 반영했다.

대상인 교육감상에는 노래에 크레센도, 댄스 베아트리스, 밴드 에어포일, 국악 어울림 팀이 선정되는 등 12개팀이 수상했다.

이밖에 만세루 주변에는 서각 전시회와 꽃무릇 시화전이 열려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립광주박물관 '절강성의 보물' 특별전시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금동불좌상 등 선뵈



항주 뇌봉탑 금동불좌상.

중국 절강성의 1급 유물이 광주에 온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중국 절강성박물관과 국제교류전시를 통해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절강성의 보물'을 특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총 6부의 주제로 ▷1부 절강성의 선사문화 ▷2부 분열과 통합의 시대 ▷3부 절강성의 불교, ▷4부 청자의 본향 ▷5부 중국회화 500년 ▷6부 절강성 박물관 소장 문화제 등 전시된다.

특히 절강성의 불교전에는 항주 뇌봉탑에서 나온 중국 1급 유물에 해당하는 금동불좌상, 아육오아탑을 비롯해 중국 5대 시대의 보살상이 전시된다.

전시회에는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벼를 논에서 재배한 하모도 유적과 신비로운 백옥기로 유명한 양저문화의 유물, 월왕 주구의 검(劍),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청자유물 등이 전시된다.

조현종 관장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는 최초로 중국 최대의 유적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이다"라며, "전시회를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교환전시회로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012년 12월 중국 절강성박물관에서 '신안해저침전선과 강진 고려청자' 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천불천탑'의 신비가 있는 운주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전남 화순군은 9월 6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서원 · 전통사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증진 연구' 보고서에 "유산의 독특함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에 단독유산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운주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불교문화와 서원을 통한 유교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세계에 알려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의 전통 사찰과 서원을 답사하면서 운주사를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전라남도,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11월 경에는 천불천탑 운주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계 전문가 그룹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운주사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전문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운주사와 세계유산,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앞으로의 전략방법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때의 세미나를 통하여 추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한 종합 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남 화순군 천불산에 위치한 운수사에는 연화탑과 굴미륵석불, 보물 제796호인 9층 석탑, 보물 제797호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臥佛)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화제의 신간

작대기 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호국 사찰, 역사의식 고취 나선다

전등사 제12회 삼랑성 축제 · 장경사 제1회 의승군 문화제

강화도와 남한산성 등 고려, 조선시대 국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 지역의 사찰들이 의승군들의 호국불교정신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성남 장경사(주지 경우)는 조선시대 행궁인 남한산성의 불교문화 복원을 위해 10월 13, 16, 23일 3일간 장경사 일대에서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를 봉행한다.

이번 문화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앞두고 이뤄지는 전통문화 복원의 일환이다. 장경사는 조선시대 남한산성을 지키던 의승군 군영인 승영이 있던 사찰로 당시 남한산성 축성 및 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문화제에서는 13일 의승군 추모 남한산성 걷기대회와 팝스오케스트라 뉴트리와 도신 스님 밴드가 출연하는 별밤 숲속음악회가 열리며 16일 수륙무차대법회가 장경사 도량에서 봉행된다.

또 동국대 불교학술원 주관으로 의승군과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11월 23일 남한산성 내 행궁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10월 4일에는 50평 규모에 전통양식으로 승영 복원불사로 설선당 상량식이 봉행된다.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은 "당시 의승군의 역할을 보아 남한산성 내 불교문화도 복원돼야 온전히 남한산성내 전통문화가 복원된다고 볼 수 있다"며 "행궁으로 종묘를 지니고 있는 남한산성의 위치와 남한산



강화 전등사에서 지난해 열린 제11회 삼랑성 축제에서 호국 영령들을 위한 다례재가 봉행되고 있다. 최근 호국 사찰을 중심으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지역축제가 기획 · 개최되고 있다.

장경사– 승영복원 불사 진행
전등사– 지역문화축제 발돋움

성을 만들고 지킨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도 10월 6일~14일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에서 열린다.

삼랑성 축제는 전등사와 주변 삼랑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지역 연례축제다.

'관(觀)'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6일 가수 정재형, 루시드 폴, 김창완 밴드, 퓨전국악 '다비' 등이 출연해 어쿠스틱과 락 음악을 함께 선사하는 '전등사 가을음악회' 가 마련된다. 7일에는 전등사 역대 스님들에 대한 '다례재' 와 양헌수 · 어재연, 죽산 조봉암 등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 가 열린다. 특히 이날 영산대재에서는 고려 원종이 대(對) 몽골항쟁 때 전등사에서 4개월간 대불정오성도량(大佛頂五星道場)을 펼친 장면을 재현될 예정이다.

삼랑성 축제에는 지역민을 위한 공연과 전시도 함께 펼쳐진다.

인천 · 강화 지역 문화 단체의 모듬북과 설장구, 화관무, 부채춤, 은율탈춤 등의 공연이 이어지며 강화 특산품인 화문석공예, 짚풀공예, 도자기물레 등 각종 체험행사와 지역 특산물 장터 등도 마련된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삼랑성 축제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지역 어르신 대상 문화활동 실시

거창군삶의쉼터, 19일부터 3차례

거창군삶의쉼터(관장 도영)은 9월 19일, 21, 24일 총 3회에 걸쳐 총 9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활동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문화 활동에 함께한 어르신들은"직원들이 이렇게 어른들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거창군삶의쉼터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은해사 스님들 추석 맞아 자비행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 스님들이 추석을 앞둔 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을 비롯한 20여 명의 본말사 스님들은 9월 21일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을 찾아 독거노인과 결식노인 60여 명의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또 점심시간에는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을 위해 급식활동을 진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9월 20일 열린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재에서 문도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있다.

월산 대종사 15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20일 불국사서 엄수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9월20일 경내 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 대종사의 제15주기 추모 다례재를 엄수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을 비롯한 수덕사 방장 설정, 원로의원 월탄,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등 월산문도회 대중 및 불자 600여 명이 다례재에 동참, 월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에서 월산문도회 운영위원장 설조 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수행자로서 올곧은 면모를 보였으며, 대중포교에도 남다른 원력을 보였다"며 회고의 인사말을 올렸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올해는 월산 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조만간 월산스님의 일대기를 영상물로 제작해 큰 스님의 정신 세계의 법을 널리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모 다례 후에는 참가대중들은 대종사의 사리탑과 행적비를 참배하고 스님의 넋을 기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아름다움은 지극한 정성으로부터

신라 말 이후 우리나라 사찰은 산간벽지에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화엄십찰의 건립과 더불어 구산선문이 열리면서 교리를 실천하고 선 수행에 적합한 땅을 찾은 결과였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산속에 자리를 잡을 바에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 더 좋았으리라. 이른바 풍수적으로 물 좋고 바람 막기 좋은 곳이 바로 그러한 땅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사가 급한 산지에 절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골라 평평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지정지를 할 때 서양과는 달리, 절토보다는 성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능하면 원생의 땅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성토를 하기위해서는 석단이 축조되어야하는데, 이 석단이야말로 우리나라 사찰의 수직적 경관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 구조물이다.

석단이 아름다운 사찰로는 단연 불국사와 부석사를 손에 꼽게 된다. 불국사는 돌을 잘 다듬어 목가구식으로 쌓아 올린 석단이다. 이 석단은 워낙 섬세하게 조성하여 1200여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그 예술성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부석사는 덩어리가 큰 산석을 날라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석단으로 불국사 석단에 비해 남성미가 돋보인다. 당시에 지금과 같은 장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한 석단을 축조한 것은 오로지 지극한 정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단을 쌓아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신도수가 늘어나고 사찰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가용지가 필요해진 까닭이다. 문제는 석단을 쌓는 방법인데, 석산에서 가져온 깬 돌을 무질서하게 들여쌓기 하거나 보강토옹벽을 도입하여 한국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전통성이 가미된 콘크리트 옹벽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오래된 사찰에서 쌓아올렸던 석단의 아름다움을 최근에 축조한 석단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전과 같은 좋은 재료를 구하기 어렵고 값도 비싸 사중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석단을 쌓아올리면서 기울인 정성이 예전에 비해 부족한 것이 더 중대한 원인이 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돌 하나 올리고 절 한번 하는 정성스러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고 비싼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석단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도 ㅇ사찰에 발파석을 이용해서 축조한 석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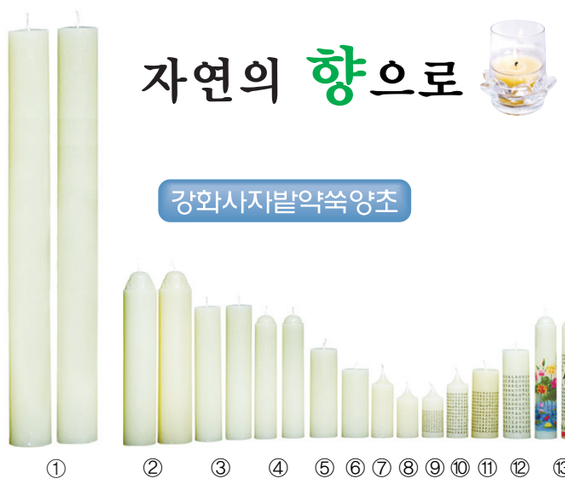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cm
④ 약쑥초 밀대 4.7ϕ×25cm ⑤ 약쑥초 1호 5.9ϕ×18cm ⑥ 약쑥초 2호 5.9ϕ×14cm
⑦ 약쑥초 3호 4.7ϕ×13cm ⑧ 약쑥초 4호 4.7ϕ×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cm
④ 밀납초 밀대 4.7ϕ×25cm ⑤ 밀납초 1호 5.9ϕ×18cm ⑥ 밀납초 2호 5.9ϕ×14cm
⑦ 밀납초 3호 4.7ϕ×13cm ⑧ 밀납초 4호 4.7ϕ×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부모님·가난한 사람 등 잘 받드는 것 '참 불공'

⑦ 대구 동화사(桐華寺)

황하서류곤륜정(黃河西流崑崙頂)
일월무광대지침(日月無光大地沈)
거연일소회수립(遽然一笑回首立)
청산의구백운중(青山依舊白雲中)

황하수 서쪽으로 거슬러 흘러 곤륜산 정상으로 오르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린다.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려 서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오도(悟道). 가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순간. 스스로의 증명이 전부인 세계. 스무 살 때, 〈증도가〉에 무릎을 치고 '생사(生死)'에 뛰어든 '성철'이란 이름이 스물아홉에 스스로를 증명한 28자의 문자. 오도송이다. 스님은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이 오도송을 읽었다. 9월 22일 성철 큰스님 수행도량 순례단은 이른 아침 대구 동화사로 향했다.

동화사는 신라 소지왕 15년(493) 극달 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부르다가 흥덕왕 7년(832) 심지대사가 중창할 때 오동나무가 겨울에 상서롭게 꽃을 피웠다하여 동화사로 고쳐 불렀다. 또 하나는 진표율사로부터 영심대사에게 전해진 팔간자를 심지대사가 받은 뒤 팔공산에 와서 이를 던져 떨어진 곳에 절을 지으니 이곳이 바로 동화사 첨당 북쪽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창건설 가운데 신라 흥덕왕 7년(832) 심지 대사가 중창한 시기를 사실상 창건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동화사는 창건 뒤 현재의 대가람으로 정비되기까지 여러 차례 중창과 개축이 있었다. 신라말인 934년 영조 선사, 고려 명종 20년(1190) 지눌 보조 국사, 고려 충렬왕 24년(1298) 홍진 국사에 의해 중창 중건되었다. 또 고려 말기에는 홍진 국사가 대규모 중창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 39년(1606) 유정 사명대사, 숙종 3년(1677) 상숭 대사, 영조 8년(1732) 관허, 운구, 낙빈, 청월 대사 등이 중창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담장 밑으로 코스모스가 피었다. 금당선원. 점심공양을 마친 300여 명의 순례단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선원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원택 스님도 선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스님이 이곳에서 오도송을 읊으셨습니다." 선원 현판 앞에 선 원택 스님이 금당선원을 소개했다. 원택 스님이 쓴 성철 스님의 행장에서 가져다 쓴다. "은해사 운부암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세존응화 2966년 7월 15일자로 발행된 안거증에는 종주가 하용봉, 즉 동산 스님으로 밝혀져 있다. 4월 1일 용성 스님이 입적하였다.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을 읊었다. 스님의 친필 이력에는 동화사 금당이 아닌 운부암에서 안거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친필 오도송에는 '29세 금당에서'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이미 괴각이라고 소문이 나서 금당선원의 방부가 거절되었다고 한다. 오도 이후 장좌불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안거를 은해사 운부암에서 났다. 운부암에서 단식 정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평생의 선우인 향곡 스님을 운부암에서 처음 만났다. 깨달음을 얻어 오도송을 읊고 나니 깨달음의 점검을 위해 제방에서 정진한다." 순례단은 선원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스님의 흔적을 더듬었다.

통일대전에서 법회가 시작됐다. 원택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성철 스님이 여든이 되셨을 때였다. 원택 스님은 연로해진 성철 스님의 모습에 문득 걱정이 들어 조심스럽게 여쭈었다고 한다. "스님, 이제 서서히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놈! 가긴 어딜 가!" 그 때까지 원택 스님은 큰스님의 오도송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스님, 스님의 오도송을 도반이셨던 향곡 스님이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스님의 오도송을 알지 못하니 스님의 오도송을 정리해 주십시오." 시봉의 간곡한 물음과 애절한 성화에 스님은 오도송을 정리한다. 노장은 앉은 자리에서 작은 수첩 한 장을 찢어 스물아홉에 지은 오도송을 적는다. '…동화사 금당, 29세.' 원택 스님이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눈부신 한지에 빳빳한 붓글씨가 아니었다. 찢어낸 수첩 한 장. 한국불교 1600년 연보에서 근대에 가장 주목받으며, '깨달음'을 불러일으킨 스님의 오도송은 그렇게 전해졌다. 원택 스님이 말을 이었다. "스물아홉에 쓴 원본엔 운부암에서 쓰신 것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본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행장대로다. 운부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철스님이 대중에게 오도송을 알린 곳은 동화사 금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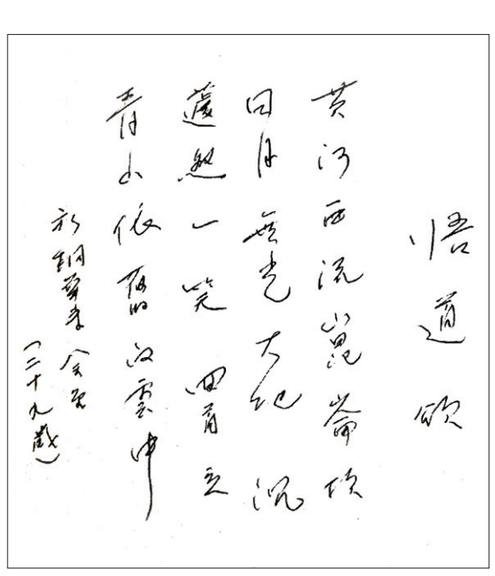
운부암에서 지은 오도송
방부 거절한 금당에서 읊어
시봉도 알지 못한 29세 오도송
말년에 쪽지 한 장에 적어줘

원택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법문을 독송하며 스물아홉의 스님과 만났다. "참다운 불공.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님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 불공(佛供)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발밑에 기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은 공부를 늦추지 않았다. 점검을 위해 각지의 제방과 선지식을 찾아 나선다. 스님은 먼저 조계산으로 향했다. 다음 순례는 10월 13일 조계산 송광사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이 금당선원 앞에서 스님의 오도송과 금당선원을 순례단에게 소개하고 있다.


성철 스님이 80세 때 원택 스님에게 적어준 오도송


운부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은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을 읊었다. 금당선원 전경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생태사회와 불교

사찰의 에너지 소비의 전환을 위해

청빈한 전통 되살리는 소비 전환 절실

후쿠시마의 원전사태로 인해 일본은 반핵운동 열풍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수상관저 앞에서 매주 금요일 반핵시위가 작게는 몇백명에서 최근에는 몇만명에 이르고 있고 급기야 최근 7월 16일에는 요요기 공원에 17만명이 모여 반핵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20일-22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199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언했던 유엔환경회의가 있은지 20년을 기념하여 '리우+20' 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20년간의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한 교토의정서에 조인한 국가들이 약속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들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그저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싶어하는 의지만 확인되었다고 비판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초미의 관심이 된지 오래다. 그래서 석유나 석탄에 의존한 에너지소비를 감축하는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이 주목을 받다가 작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더 이상 원전이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단순히 개인주택이나 학교단위 만이 아니고 지역단위의 에너지공급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사찰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사찰은 산속에 있으며, 마을이나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건립으로 전력생산이 높아지자 농촌과 산촌에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전력요금인상으로 인해 심야전력대신 화목에너지를 전환했을 경우 막대한 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물론 보다 현실적이며 섬세하게 계산을 해봐야 하며, 인건비와 화재의 우려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무튼 현재 날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전력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틀림없다. 관련 전문가들은 막대한 사찰림에서 발생하는 임부산물과 인근농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스를 이용하여 사하촌과 연결하여 소규모 지역난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사찰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의 모델을 만들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단 사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현재 사찰건물의 에너지 효율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서 윗풍이 많은 한옥구조에 단열보강과 기밀성을 높이는 철저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이나 냉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되 지역의 특징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태양열, 태양전지, 풍력, 파력, 소수력등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산림과 농촌인근에 있는 사찰이라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사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양식의 전환이 또한 중요하다. 냉난방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가능한 산속의 자연적 조건을 이용하며, 철저한 절약과 내핍을 통해 불교본래의 청빈한 전통의 삶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네 번째는 새롭게 신축하게 되는 사찰건물은 가능한 전기나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패시브하우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양식을 발전적으로 변용하여 건축의 구조의 밀폐와 단열, 복층유리나 로이유리를 이용한 에너지 초절약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사찰의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사하촌과 지역을 연동하여 농부산물, 축산분뇨, 간벌한 나무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만들기를 시도해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사찰과 사하촌및 마을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문제로 인해 효율성을 철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찰이 독자적으로 시도할 때와 지역사회에 바이오매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출 때와 엄청난 비용과 효율의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 받는 에너지 자립마을

덴마크의 삼쇠섬은 4,400여명의 주민들이 1mw풍력발전기 11기, 2.3mw 풍력발전기 10기, , 밀짚, 목재 등을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4개를 가동하고 있어 섬전체가 쓰고도 남는 전력은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테현의 구즈마키도 이미 한국에 많이 알려져있다. 낙농업을 주로 하는 이 마을은 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읍 규모의 마을에 풍력발전기 15기가 있고 목축과정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프랜트를 가동하며, 산촌이기 때문에 풍부한 목재를 활용하여 우드펠렛을 만들어 바이오매스 플랜트를 가동한다.

독일 중심부의 니더작센주의 윤데마을은 800여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 경제, 농업, 지질학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도하면서 바이오에너지마을을 만들었다. 농사이후 볏짚과 과 가축분뇨를 중심으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열과 전기를 주민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풀무학교가 있는 홍동마을, 태양광마을인 광주 신효천 마을, 제주도 동광리 그린 빌리지, 유채꽃 마을 부안군 주산면,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0년 부터 도농복합형 녹색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기로 하여 1차로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마을이 결정되었고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등 주민들의 참여속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갈수록 기후문제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대안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동시에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한 에너지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사찰 에너지 효율 점검 급선무
바이오매스 이용 가장 효율적
사찰, 에너지 자립 체계 준비해야
에너지 순환형 마을 조성 필요

에너지 순환형 마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로

원전과 같이 고도기술의 에너지공급체계는 강력한 중앙통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안에너지는 결국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다른 에너지방식을 선택하게 되며 지역분권적 사회에 잘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석유정점 (Pick-Oil)으로 인해 세계는 심각한 자원위기가 시작되었고, 또한 온난화문제로 탄소발생을 국제적으로 억제하고 있고, 원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원전산업은 더 이상 친환경적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금 사찰은 중앙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 독립' 체계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우선 단위사찰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찰자체를 원전이나 석유에 의존하지 안는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하촌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궁극에는 '에너지 순환형 마을(또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경북 포항 천묵사가 운영하는 소천문화관의 태양열에너지 시스템. 천곡사는 지열에너지도 도입해 에너지 자립화에 앞장서고 있다.



마곡사 신록축제에 에너지 시민연대의 신재생에너지 홍보부스가 차려져 있다. 사찰이 지역에너지 자립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짚, 왕겨, 미강 등 농산부산물은 사료나 비료로 사용할 수 있고, 축산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등은 퇴비와 액비등으로 만들어 비료를 만들고, 유채등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작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열이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과 지역정부, 주민들의 오랜 논의와 참여, 그리고 긴밀한 협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찰 스스로 그러한 지역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향후 사찰이 지역민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지역의 도덕적 중심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불교가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립에서 사회경제적자립으로

돈이 많으면 굳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서로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협동, 상호부조하면 가난해도 나름대로 풍족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환경문제는 지역단위의 생산과 소비 폐기가 최대한 가능하게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에너지만의 자립이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도 지역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고, 지역기업, 마을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같이 결합된다면 더욱 생태적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05cm , 하단 가로 3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크리스탈 인등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법의 공함 깨닫고 부처님 법신 최초로 만나다

⑤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중〉깨달음



〈거조암 수보리 나한상〉



그림 · 김홍인

영취산 토굴서 용맹정진
마음의 작용원리 깨달아
무쟁도 행한 모범 수행자

수보리는 죽림정사에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를 떠올렸다.

"수보리야, 포악한 성품에서 저지르는 나쁜 허물과 번뇌는 선근(善根)을 소멸시키고 악(惡)을 키우느니라. 설령 그 고통에서 벗어나더라도 용, 뱀, 귀신 따위로 태어나 악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살해하게 되는 과보를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는 부처님이 설한 진실한 도리를 되새기며 지난 일을 참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는 일만이 참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의 작용을 깨닫다

수보리가 수행하러 떠나기 전 어느 날이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구족계를 받고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닦아 성취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수행자가 어떤 원을 세우고 수행해야 하는지 일러주셨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서원을 세워야 한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구족계를 받고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수행해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워야 한다. 그대들에게 음식과 의복과 모든 생활도구를 보시하는 사람에게 큰 공덕이 있도록 하기 위해 관법을 수행해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워야 한다.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모기와 등에의 괴롭힘을 참으며 몸에 병이 들어 목숨이 끊어지려 한다 하더라도 수행해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워야 한다. 즐겁지 않은 일을 견디고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집착하지 않기 위해 구족계를 받고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수행해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원을 세워야 한다."

출가 전 남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수보리였지만 부처님을 만나면서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귀중하게 느껴졌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보물과도 같았다. 수보리는 부처님 설법을 기억하며 영취산 토굴에서 수행정진에 들어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새겼다.

"수보리여, 마음을 청정하게 챙겨서 형상을 비롯해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 그리고 정신적인 대상에도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며,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생각했다.

'그래, 마음은 안과 밖에도, 또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문제들로 더럽혀지지만 번개와도 같아 잠시도 머물지 않고 순간 소멸해버린다. 왜 그동안 몰랐을까.'

그렇다. 마음의 정체는 분명 알 수도, 찾을 수도 없기에 얻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얻을 수 없는 것은 생기는 일이 없고, 생기지 않는 것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은 사라지는 일 또한 없으며, 허공이 어디에서 보아도 평등하듯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아! 바로 이것이구나."

수보리는 무릎을 쳤다. 자신의 인생을 시정잡배로 몰아넣은 것은 가족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동안 밖으로만 찾아 헤맸다. 좋다 싫다를 늘 입에 달고 살았다. 누군가 나에게 성을 내고 비난하면, 나는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성질내는데 급급했어. 난 왜 그리도 어리석었을까.'

수보리는 크게 뉘우쳤다. 모든 것에 분별하는 마음을 내며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잘못 살아온 자신을 보게 된 수보리는 밤낮이 가는 줄 모르고 환골탈태를 위한 수행 정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본성을 통해 공(空)의 이치에 접근해 가고 있었다.

부처님 법신을 맞이한 수보리

수행정진하는 동안 수보리는 부처님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죽림정사에 들러 사리불에게 부처님의 거처를 물었고, 사리불은 아나율에게 부처님의 안부를 물었다.

천안(天眼) 제일로 인정을 받은 아나율은 잠시 우주의 법계를 살핀 뒤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도리천에 올라 당신을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생모 마야왕비님을 위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쯤 뵐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석 달 후, 보름날입니다, 사리불 장로님."

예전의 수보리였다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린가 하고 반박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수보리는 그 순간 또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었다.

'아, 내가 지금 찾아가려던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의 참다운 모습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신(法身)인 것을, 내가 맞이하려던 부처님은 덧없는 '육신'이 아닌가? 법신의 참다운 모습은 공한 것이어서, 가고 오는 곳이 없으며, 바로 지금 여기에도 계신 데 굳이 부처님의 육신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보리는 이미 출가하기 전에 살인자의 칼날 앞에서도 허공과 같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 다만 그때는 불가사의한 현실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부처님이 그저 신비롭게만 보였었다.

그러나 이제 수보리에게 부처님은 신비에 쌓인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부처님이 우주 법계에서 인간과 같은 육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은 진리에 대한 하나의 비유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처님은 분명히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이 품고 있는 부처의 씨앗을, 마음처럼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불성을 육신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 드러내고 일깨우기 위하는 것이 아닐까.'

수보리는 그 의문을 화두로 삼고 다시 영취산 토굴로 돌아와 용맹 정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나율이 말한 보름날이 왔다.

죽림정사의 모든 제자들은 도리천에서 내려오시는 부처님을 먼저 맞이하기 위해 다투어 마중을 나갔다.

영취산 토굴에서 화두와 씨름하던 수보리는 토굴을 빠져나가다 말고 멈추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진정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출가할 때 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거듭 수보리의 뇌리를 스쳤다. 수보리는 생각했다. 부처님의 참모습은 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법신(法身)이다. 그런데 지 · 수 · 화 · 풍 4대의 가합일 뿐인 육신을 맞이하러 그토록 절박하게 찾아나서려 했다니….

'육신은 참다운 진리 그 자체인 공(空)이 아니므로 법신이 될 수가 없다. 법신의 참모습은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고 오는 곳 없이 항상 우주 법계에 머물고 있다. 지금 이 토굴 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볼 수 있는 법신을 두고 무엇을 찾아 나간다는 말인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수보리는 토굴에서 나가려던 발길을 돌렸다.

이윽고 제자들은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부처님을 맞이하게 됐다. 이때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신통력으로 제일 먼저 부처님께 환영 예배를 올렸다. 그러나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다들 마중을 나와 줘서 고맙다. 하지만 나를 가장 먼저 마중한 사람은 수보리다."

모두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표정을 짓는 가운데 부처님이 말을 이었다.

"수보리는 모든 법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나의 육신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내 법신을 만났으며, 내 제자들 가운데 나의 법신을 최초로 보고 맞이한 제자는 수보리이니라."

무쟁제일의 수보리

수보리는 이제 더 이상 출가 전의 수보리가 아니었다. 조용히 수행에만 정진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무쟁(無諍)과 팔정도의 삶에 대해 설법했다. 그것은 달라진 수보리를 이야기 하기 위함이었다.

"싸워서 이기면 원수와 적만 더 늘어나고, 패하면 괴로워서 누워도 편치 않다. 이기고 지는 것을 다 버리면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편안하리라. 싸워서 능히 이긴다 한들 끝내는 원한만 더욱 커져서 이익이 없다. 서로 놓아주면 편안하고 안락해질 것이다."

이어서 강가로 간 부처님은 강 가운데로 큰 나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저 나무가 바다에 이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쪽 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가라앉거나 언덕 위로 오르지도 않아야 하며, 사람이나 사람 아닌 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하며, 물길을 거스르지도 썩지도 않아야 무사히 바다에 이를 수 있다. 수행자들이 수행하여 열반의 바다에 이르는 것도 이와 같다. 이쪽 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아야 하며, 중간에 가라앉거나 언덕 위로 오르지도 않아야 하며, 사람이나 또는 사람 아닌 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하며, 물길을 거스르지도 썩지도 않아야 열반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열반이란 바른 소견, 바른 다스림,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생활, 바른 방편, 바른 사념, 바른 선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무더기를 없애지 못한 채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잘못된 행을 끊고 팔정도를 열심히 닦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설법의 마지막에 "비구들이여, 수보리는 무쟁도(無諍道)를 행하는 이다"라며 수보리를 무쟁의 삶을 사는 최고의 모범으로 칭송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참고문헌
〈부처님의 십대제자(성각 스님 편저)〉〈부처님의 십대제자(성법 스님 편저)〉〈붓다를 만난 사람들(조계종 출판사)〉〈금강경〉〈아함경〉

무료배송
현공풍수학의 대가 장태상 선생님의 정수를 담다
風水總論
장산 장태상 저
현, 불교TV에서 풍수학 강의 중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 泰 相
정가 : 40,000원

무료배송
회전목마 위의 서민경제
The economy
저자 : 아이크 정 안형렬 공저
정가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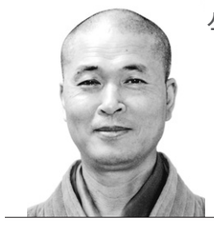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
국민의 부와 국가의 부를 정의 내린다

30년 전통의 제조명가에서 제조하는 수공예 불교 은제품
건강과 믿음을 위한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순은 99.9% 사용

국내최다불교용품 은불교용품 사각금강저목걸이 49200원 연꽃옴자목걸이 17600원
30년전통의 은제품 은일반제품 만자목걸이 17600원
국내최다불교용품 은불교용품 불자목걸이 522000원
2012년 행운의 흑룡해 은용제품 용자펜던트 52000원

※상기 제품은 목걸이 줄 미포함 펜던트가격 입니다.
도서 및 쥬얼리 은제품 구매문의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100-023-357023) 농협(1282-17-003433)
예금주 : (주)한메소프트
인터넷 상품구매 : 칠성상회 http://shop.7-star.net 에서 해당 상품 검색 후 구매 가능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322호 (주)한메소프트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10월 감사 특가 919,000원(유류할증료 불포함)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7일 | 13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4일 요금문의
▣중국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 4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189만원(유류할증료 불포함)
▣라오스 직항 5일 129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도인은 생각 밖에 있다

학승이 물었다.
"근본에 돌아가 뜻을 얻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매우 황당할 뿐이다."
학승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인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問 歸根得旨時如何 師云 太慌忙生 云不審 師云 不審從甚處起

뜻을 얻다니, 가소롭다. 그렇게 뜻을 얻는 것이라면 왜 납자들이 수십 년을 찾아 헤매고도 얻지 못하는가? 또 3아승지겁을 수행한 석가모니도 가섭에게 전하지 못했는데 네 말은 나를 황당하게 하는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는데 그 인사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가? 그것을 안다면 근본 뜻을 얻었느니 얻지 못했느니 하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유상공(劉相公)이 절에 와서 스님이 경내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대선지식이 어찌하여 먼지를 쓸고 계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劉相公入院 見師掃地 問 大善知識爲什麼卻掃塵 師云 從外來

조용한 아침에 먼지 한 알갱이가 들어와 도량 전체를 어지럽히는구나.

학승이 물었다.
"예리한 검이 검집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녹슬었어."
학승이 물었다.
"올바른 질문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판별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런 한가한 공부 하는 사람 없네."
학승이 물었다.
"그렇다면 차수하고 면전에 서있는 사람을 어찌하시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침저녁으로 자네의 차수를 보네."
학승이 물었다.
"차수하지 않을 때는 가히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가 차수하지 않는 자인가?"

問利劍出匣時如何 師云黑 云正問之時如何辨白 師云無者閑工夫 云叉手向人前爭奈何 師云 早晩見你叉手 云不叉手時如何 師云 誰是不叉手者

예리한 검이라고 말하나 검집에서 나오면 벌써 무뎌지고 만다. 때문에 아무리 폼 잡고 올바른 것이라며 질문을 던져 봤자 항상 본질에서 빗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한가하게 그런 것에 대답해줄 사람이 이 도량에는 없다. 그대가 백날 합장하고 서있어 봐라. 눈썹하나 움직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공연히 고생하지 말고 합장하고 합장하지 않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보라. 종문의 제1 화두이다.
"매해 봄만 되면 꽃이 피는데 쳐다볼 겨를이 없으니."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힘을 얻는 것(得力處)입니까?"
조주 스님이 물었다.
"자네의 어디가 힘을 얻지 못한 곳인가?"

問 如何是沙門得力處 師云 你什麼處不得力

도인은 최소한 구름을 타고 다녀야 하고, 미래 일을 알아맞혀야 하며, 수염을 근사하게 휘날리고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라. 도인은 그런 곳에 없다. 도인은 그대의 생각 바깥에 있다. 생각해 보라. 역사 이래 고래등 같은 대궐에서 사는 사람 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는가?

신기하지 않는가.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내딛어 앞으로 갈 줄을 알다니. 뿐만 아니라, 김치를 담그고 된장으로 요리를 한다. 어디를 가도 저녁에 집을 찾아오다니, 이것이야말로 신통 중에 신통 아닌가. 바로 그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33〉

십이연기설-②여러 관점의 십이연기

분석다양… 열반으로 가는 길 동일

십이연기(十二緣起)란 인간이 경험하는 괴로움[苦]의 전개과정을 열두 가지의 인과관계로 분석해 놓은 것이다. 초기불교의 경전에서는 이 열두 항목을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로 나누고 이들의 관계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리와 괴로움을 없애는 원리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전자를 유전연기(流轉緣起)라고 하고 후자를 환멸연기(還滅緣起)라고 한다.

유전연기에 의하면 십이연기는 사성제(四聖諦)나 연기의 이치를 알지 못함[無明]으로 인해 신체와 생각과 말의 잘못된 행위[行]가 있게 되고, 이러한 행을 원인으로 해서 인식주체로서의 식[識]이 있게 되며 마지막에는 태어남으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는 등의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환멸연기에 의하면 십이연기는 사성제나 연기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인해 신체와 생각과 말의 잘못된 행위가 멸하게 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태어남도 없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등의 모든 괴로움이 멸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십이연기는 동일한 학파에서도 여러 관점에서 분석됐고 그 이해는 후대에도 그대로 계승됐다. 우선 부파불교에서는 십이연기를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로 설명한다. 삼세양중인과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라고 하는 두 번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십이연기 중에 무명과 행은 과거의 원인이고 식·명색·육처·촉·수는 그 원인에 대한 현재의 결과이다. 또한 그 다음의 애·취·유는 현재의 원인이고 마지막 생·노사는 미래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삼세양중인과설은 남방불교와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에서도 정설이 됐다.

또한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는 삼세양중인과설과 별개로 십이연기의 존재방식을 네 종류의 연기로 설명한다. 첫째가 찰나연기(剎那緣起)로 십이연기의 십이지 각각은 동일한 찰나에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연박연기(連縛緣起)로 십이지가 각각 연속해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은 이 연박연기에 의한 것이다. 세 번째는 분위연기(分位緣起)로 십이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관계로 설명한 삼세양중인과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 원속연기(遠續緣起)는 분위연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장해서 아주 먼 과거와 아주 먼 미래에까지 이르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십이연기설은 또한 사제설(四諦說)과도 연관된다. 예컨대 고집멸도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보는 순관(順觀)을 집과 고로 설명할 수 있고 괴로움을 멸하는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보는 역관(逆觀)을 멸과 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집은 고의 원인이고 도는 멸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사제설에서는 고를 멸하는 원인인 도(道)를 특히 강조한다. 이는 십이연기설이 괴로움[苦]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인 유전연기의 설명에 중점을 두고 그 괴로움을 없애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인 환멸연기를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환멸연기는 오히려 도제(道諦)로서의 팔정도에 의해 구체화된다. 말하자면 사제설의 도가 팔정도를 통해 괴로움을 멸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이라면 십이연기의 환멸연기는 그 팔정도를 통해 괴로움이 멸해 가는 원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십이연기는 상대의 근기나 이해력에 맞추어 여러 각도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십이연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든 그 목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자각하고 그 원인을 없애가는 것에 의해 열반을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㊳



참으로 희유하고 불가사의 합니다. 세존의 어머님은 단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다나(自說經)〉

"엄마가 죽었다. 오늘, 혹은 어제일지도." 까뮈의 소설 〈이방인(異邦人, L'étranger)〉은 이렇게 시작된다. 까뮈전집을 완역하신 김화영(金華榮)선생은, 불어의 원어 마망(maman)을 '어머니'로 번역해서는 오역이라 본다.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한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전집판의 새로운 번역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다 고쳤다 한다.

어머니와 엄마는 무엇이 다를까? 나는 김화영 선생의 이 새로운 번역에 동의한다. 어머니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는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 다 동일한 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게는 '엄마'만 있고 '어머니'는 없다. 사실상 그렇다. 그것이 나의 의식 속 일이다. 이제 다 어른이 되었으니까, 남들 앞에서라든지, 혹은 존칭의 뜻으로 '어머니 보셔요'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나 내게는 '엄마'일 뿐이다.

내가 엄마를 의식하기 전부터, 나는 엄마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끈이 잘렸지만, 이제는 그 끈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끈은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한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더라도, 그렇게 엄마는 내게 살아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는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되는 것, 그것은 금생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엄마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 수는 없다. 그저 내 마음에 미루어서 짐작할 뿐이다. 어쩌면 나보다 더 끈끈하게 엄마를 엄마로 가지고 있을 터이다. 나는 엄마를 한번 떠난 적이 있지만, 아들은 엄마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들에게 엄마는 그 모든 것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그런 엄마가 없는 아이가 있다. 어떨까? 그 어린 마음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 엄마는 "태어난 지 이레째 되는 날에 죽음을 맞아 도솔천에 태어났기"(이미령 옮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족사, 90쪽) 때문이다. 이보다 더한 사례도 있긴 하다. 중국 근대의 고승 허운(虛雲, 1840-1959)스님은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레(七日)의 시간차는 있지만, 부처님이나 허운 스님이나 다 엄마와 자기 생명을 바꾼 셈이다.

이 사실이 부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불교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나는 오래 전부터 궁금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문헌을 만나지 못했다. 가끔 혼자서 이리저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뿐이다. 지금까지 읽어본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어린 소년 싯다르타가 매우 감수성이 풍부했다. 일찍부터 생노병사를 겪는 인간존재에 대해서 깊은 사색에 빠져들곤 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네 성문(城門)에서 만난 견문들이 그의 발을 성 밖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나는 상상한다. 거기에는 분명 그와 함께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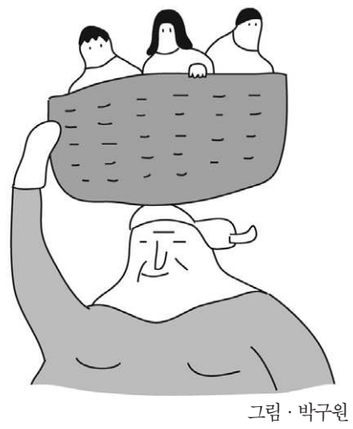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숨쉬고 있던 엄마를 한번도 만져보지 못한 한 아이의 고독이 있었을 터이다. 그 고독이 미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한다. 비록 이모가 키워주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모(姨母)는 이모(二母)이다. 한없이 감사한 이모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있었지만, 이모는 어디까지나 이모일 뿐.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 아난다여! 무릇 보살의 어머니는 단명을 한다."(90쪽)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던 것처럼, 붓다의 깨달음 뒤에는 엄마의 죽음이 남겨준 무상감(無常感)이 있었을 것이다. 엄마 이야기를 하니 눈물이 난다. 우리 엄마, 내 환갑 때까지 꼭 살아주시길 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삼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1실 평생거주할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1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1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녀 20분만 평생모십니다.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헤매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문의 : 회향선원 011-771-7575

모 집

심인불교대학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教)와 기본교리(基本教理)는
밀교사상(密教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등록금 : 100,000원
◆교재비 : 30,000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 학림암서 추사 만난 후 외연 확대

추사와 초의선사의 만남은 필연이었을까. 결과적으로,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이는 동 시대에 태어나, 고락을 함께 나눈 지인들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유학자와 승려라는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한 통유가 그렇다. 따라서 이들의 우정은 금생의 인연이 아니라 숙생(宿生)의 인연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1815년 겨울, 학림암에서이다. 당시 초의가 무슨 연유로, 상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산 정학연(1783~1859)과의 내락(內諾)이 있어 상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초의가 상경해 두릉을 찾았던 늦가을, 유산은 갑진으로 부친을 뵈러 떠난 후였다. 당시의 상황으로 운길산 수종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초겨울이 되자, 수종사는 산이 높고 추워 겨울을 지내기 어려웠다.

이 해 초겨울인 10월에 두릉으로 돌아 온 유산은 초의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수락산 학림암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초의가 추사를 만난 것은 바로 이 무렵이다.

초의의 〈해붕대사화상찬발(海鵬大師畵像贊跋)〉에서 "옛날 을유(1815)에 해붕 노화상을 모시고, 수락산 학림암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추사가 눈길을 헤치고 노스님을 찾아와, 공각(空覺)의 능소생(能所生)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하룻밤을 학림암에서 보내고 돌아갔다.(昔在乙酉 陪老和尚結廬於水落山 鷓林菴 一日阮堂披雪委訪 與老師大論空覺能所生 經宿臨歸)"고 하여, 이들의 첫 해후시기를 정확히 밝혔다.

또 초의가 모신 해붕 노스님(1717~1790)은 선암사 승려로, 다산과 교유가 있었던 인물이라 짐작된다. 당시 추사는 연경을 다녀 온 후, 학림암에서 초의를 만났던 것이다.



1815년 10월 초의가 추사와 지인들에게 보낸 공람 편지

추사는 부친이 1809년 동지사절단으로 사행길에 올랐을 때, 군관자제의 신분으로 연경을 방문해 청대의 석학 옹방강(1733~1818)을 만난다. 당시 추사의 나이는 24세이요, 옹방강은 78세의 노인이었다.

젊고, 기백이 넘치는 추사를 만난 옹방강은 자신의 서재 석묵서루(石墨書樓)에 보관된 서화와 장서, 탁본들을 보여주었고, 추사를 '학문과 문장이 해동의 제일이다(經術文章海東第一)' 라고 극찬하였다.

특히 옹방강이 불교에 조예가 깊었고, 사경(寫經)과 차에 일가견을 가진 인물이었다. 후일 추사가 불교에 조예가 깊었고, 격조 높은 차인 안목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옹방강의 영향이 컸다하겠다. 특히 학림암에서 해붕노스님과 공각(空覺)의 능소생(能所生)을 담론했던 추사의 깊은 성찰은 그의 불교적 안목을 드러낸 것이다. 후일 추사와 초의가 불교적인 담론이나 불경의 고증 문제를 자주 거론했던 것은 이미 이 시절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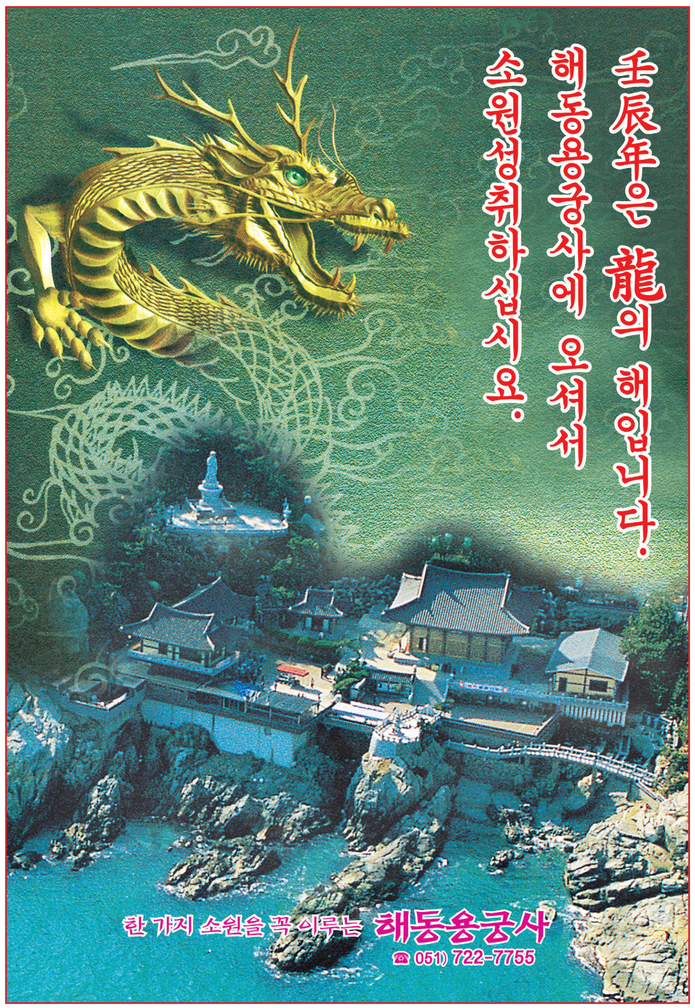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한편 초의가 학림암에서 추사를 만난 후, 추사의 지인(知人)인 정벽 유최관, 형암 김흔, 소유 박창암을 만나 교유 외연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최근 발굴된 초의의 편지에서 확인된다.

"저는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아둔하여 젊어서는 배우지 못해, 하나는 연이은 구설의 갈등으로 곤란을 겪었고, 다시 지식이 천박한 세속의 친구들로 인해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는대로 막히니 의미도 모르고, 다만 문자만 따라 갈뿐이어서 잠시 서책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시야가 넓고 흉탄한 분들이 비천한 사람을 욕되다 여기지 않고 함께 어울릴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而 性本愚魯 少而失學 一困于連舌之葛藤 再踬于搤心之窄友 隨例塞課 只是尋行數墨 乍離方册…豈謂哲人大觀 不以卑枉爲琴 披煙寒窓)"

이 내용은 초의가 추사와 그의 지인들에게 공람형식으로 보낸 편지이다. 그가 자신을 낮추어, 겸손을 한껏 드러냈지만 지인들의 따뜻한 정이 엿보아 크게 그의 심금을 울렸는지는 이 글의 행간 사이에 오롯이 배어난다. 특히 초의가 만난 김흔은 불화 중에 관음상을 잘 그렸고, 박창암은 박제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골프는 여백 다스리는 마음의 스포츠"

명상 골프 칼럼니스트 방민준 씨

인생이라는 길은 종잡을 수 없는 문제의 연속이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잘 풀어 넘길 것인가는 내 마음 관리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하나가 아니다. 실체가 없는 마음은 바다와 같다. 때로는 요동치고 때로는 잔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의 출렁임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술술 풀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이다. 골프칼럼니스트 방민준 씨는 이 모두가 골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장시간 계임을 진행해야 하는 골퍼들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골프〉 〈초원의 길 골프〉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등 방 씨가 집필한 책은 대부분 불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골프 이야기다. 명상과 골프 혹은 달마와 골프가 서로 어울리기는 한 것일까? 서양에서 온 골프가 도대체 선(禪)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방 씨는 우선 골프는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스포츠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선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요즘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골프 양궁 사격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포츠의 공통점은 정신적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그룹에 비교하면 여백이 많은 동양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백이 많다는 말은 잡념 망상에 휘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격투기나 구기 종목 같은 스포츠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장시간 필드를 걸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골프는 여백을 다스리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 보다는 정신력이 더 중요한 운동이 바로 골프다. "골프는 기술이 20%입니다. 나머지는 정신 즉 마음이 중요하죠. 절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골프에요. 그래서 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된다고 우쭐하고 안 된다고 교만하면 그 모든 마음이 다음 경기로 이어져 영향을 미칩니다. 신지애 선수를 보세요.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씩씩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골프에 있어서는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않는 평정심 유지가 중요합니다"

방 씨는 이 모두를 마음의 원리와 연관시킨다. 요동치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경기를 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불교 명상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은 요물과 같아요. 수시로 움직이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마인드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죠? 화나는 마음을 억누르는 거에요. 하지만 이렇게 참기만 한다고 이 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판도라 상자처럼 억눌려 있다가 뚜껑이 한번 열리면 더 큰 화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꾹꾹 참기만하면 한이 돼서 홧병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명상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스포츠는 이겨야 된다는 강박감념에 시달리고 있다. 승리를 향해 매진해 가는 격투기나 여타 구기 종목은 잠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 땀흘리고 뛰면서 목표를 향해 가니 고민할 겨를이 없는 거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필드를 거닐어야 하는 골프는 이런 운동과 구분된다. 그래서 골프는 변뇌 망상이 끼어드는 순간을 경계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잘해면 지레 겁을 먹고 상대가 잘못하면 우쭐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란해지죠.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골프도 마찬가지에요. 뗏목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듯 이미 지나간 시간이나 다가올 시간을 걱정하지 말아야해요. 좋은 결과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실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죠. 그 순간만큼은 오직 지금 현재를 직시해야 하죠. 그래서 경기에 임할 때는 지나친 욕심, 불안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다투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방 씨는 골프를 '선쟁(禪爭)'의 스포츠라고 한다. 선쟁이란 자신과 객체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골프와 사격 양궁 같은 스포츠는 이런 선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가령 4명이서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그때 누가 적일까요? 이 친구를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 안 좋은 날씨, 잔디 상태에 대한 불만 등 나를 제외한 모든 게 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원래 있는 그대로죠. 이런 것들을 적으로 두면 운동에 전념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모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매우 고차원적인 스포츠에요"

이 원리는 불교서 말하는 마음공부의 원리와 매우 흡사하다. 내 일의 모든 결과를 남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 거기서부터 원인을 밝히고 고쳐나가는 것이 곧 수행 아닌가?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는 그 진리를 알면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원망도 없는 법이다. 방 씨가 말하는 골프 역시 상황을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고차원적인 세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골프, 기술 20% 나머지는 정신
'자신과의 싸움' 잊지 말아야
불교의 마음공부 원리와 흡사

불서 읽으며 불교철학에 심취
'線·善·禪' 3선 골프이론 확립
골프 구도 소설 곧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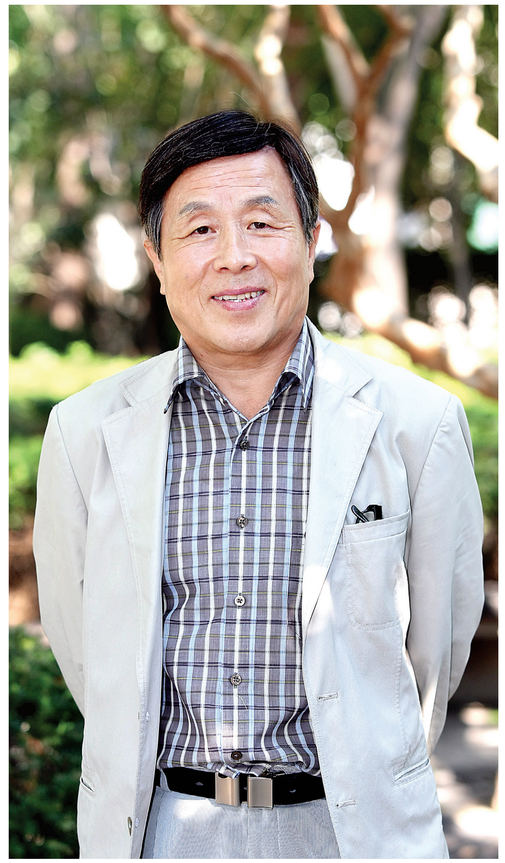
물론 방 씨 역시 골프 초창기 시절에는 스포츠를 하듯이 임했다고 한다. "예전에 축구도 하고 운동을 잘해서 모든 스포츠에 자신이 있었어요. 보통의 스포츠를 하듯이 골프에 덤볐죠. 하지만 운동 신경과 신체조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게 또 골프였어요. 왜 잘 늘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에 있다고 깨닫게 됐죠"

이후 그는 불교철학에 심취해 〈금강경〉 〈육조단경〉 등 불교 서적을 섭렵했고 노장사상 등 동양철학, 마음을 다스리는 책 등을 읽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세 가지 선(線 善 禪)에 대한 스스로의 이론을 확립한다. '곧게 공이 가야한다'는 첫 번째 선(線)의 의미에 이어 그는 두 번째의 착할 선(善) 즉 정직을 강조했다.

"골프는 정직이 우선입니다. 동떨어져 혼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가 쉽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골프를 신사의 게임이라고 하고 정직성을 테스트하는 스포츠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돌고나면 한 명의 인간을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미국의 한 기업에서는 임원 승진 여부를 골프로 결정한다고 해요. 골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기에요. 정직한가? 속이지 않는가? 또한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냉철한 도전을 하는 사람인지, 동반자를 배려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화를 찾는다면 사교 골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역시도 라운드를 돌고난 뒤 거래를 할 것인지 말



방 민준 씨는 요즘 수묵화 그리기에도 심취해 있다. 특히 골프 장면을 그림으로 승화시켜 논길을 끈다. 그림은 스윙장면을 수묵화로 표현한 작품.



방민준 씨는 … 1950년생으로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와 논설위원 실장을 역임했으며 뉴데일리 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우리금융 사외이사로 한국일보에 골프 칼럼 '골프의 세계'를 연재하고 있다. 〈명상골프〉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등 골프와 선(禪)을 주제로 한 책을 펴냈다.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 禪이라는 것은 선정을 일컫는다. "우리 대부분이 상대와 주변에 영향을 받게 돼있어요. 상대가 잘하면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잘한다고 우쭐대고 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지쳐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해지면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중심 잡지 못하면 주변에 휘둘려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죠. 그래서 골프에서 중요한 것이 禪이라는 요소입니다"

또한 골프는 대상과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자연 조건 캐디 도구 이런 대상과 마찰 감정이 생기면 경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마음의 마찰과 대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주변상황에서 눈살 찌푸리는 것이 있다고 화를 내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길 가다가 느닷없이 뺨을 맞으니 옆의 제자가 때리는 사람을 말렸겠지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생 업보니 당신께서 이 사람한테 맞아야지 해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골프 역시 이런 대립적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도 이런 골프를 대하는 자세 못지 않게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등산을 한다고 침시다. 그러면 부작정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는지 오늘 폭우가 오는지 이런 상황들을 미리 파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등산을 감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에 부딪히면 상사와 부딪힐 것인지 아니면 고개를 숙일 것인지 이런 판단도 상황을 잘 통찰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돼요. 또 통찰만 해놓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를 결단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 이것이 선정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옳바르다고 판단하는 것에 몰입을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 신지애 선수 이런 사람들 다 구도자 같잖아요?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해요. 생활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몰아일체 무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한 내려놓기를 운동에 적용하면 누구나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적대감은 사라지고 배려심이 솟아난다. 마음의 경계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경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결국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면 저도 좋아집니다. 상대를 적 관계로 보면 이 모두가 가슴에 맺히게 되고 마음의 그림자를 만들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수행하듯이 운동을 한다면 그만큼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나를 닦는 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삶과 골프에 불교 철학을 적용시킨 방 씨의 사상은 평소 불자로 살아온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6.25 동란 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여러 종교를 섭렵하시다가 결국 불교를 택하셨죠. 어머니는 유명한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경청하러 다니셨어요. 저도 이런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조계사 근처의 중앙중학교를 다녔는데 늘 학교를 마치면 이곳에 들려 참배하곤 했죠. 불교는 그래서 제 삶과 일상에 늘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사상과 골프를 결합시킨 소설을 출간한다. 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총망라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아마추어 골퍼가 동양의 스승을 만나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골프 구도 소설입니다. 인생이란 벽을 넘으면 또 다른 벽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새롭게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골프에요. 그런 구도자의 자세와 같은 골퍼의 인생을 그려봤습니다"

앞으로 골프 칼럼 연재는 물론 각종 강의를 통해 골프와 명상을 알리겠다는 방 씨. 그는 그렇게 오늘도 골프를 통해 구도의 길을 가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염불 소리에 감동 기도 동참한 등산객

법문보다 염불

겨우 머리를 깎고 아직 승복이 제대로 어울리지도 않는 초발심 때, 은사스님께서는 수행자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했다.

"출가인은 법상에 오르면 법사가 되어서 법문을 해야 하고, 밭에 나가면 농부처럼 일해야 하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병인이 되어야 하고, 부엌에서는 부엌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탁자의 마지(摩旨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를 내려먹을 수 있을 만큼 염불도 해야 한다."

본사주지 소임을 사시던 당신이 직접 행자들에게 초발심자경문을 강의하시고 한명 한명씩 암기한 것을 확인하시곤 하셨다. 때때로 새벽 도량엔 염불을 하시곤 하셨는데 경쾌한 목탁소리와 청아한 염불소리에 산중대중이 모두 그 염불소리에 흠뻑 빠져들곤 했다.

강의시간 중에 한마디씩 배운 염불로 곡조를 익혔고, '나무아미타불' 한구절의 곡조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앉아 부지깽이를 두드리며 일주일이 넘도록 반복에 반복을 거듭했었다.

몇 달 시간이 지나 염불을 완전히 외운 행자들에게는 도량염불을 차례로 시켰는데, 얼마나 큰 목소리로 염불을 했는지 큰절과 산내암자에서 염불을 하는 행자들이 서로 누가 염불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 행자생활 중에 초발심자경문을 암송하고 염불을 외우는 것은 생활이고 습관이었으며 최고의 즐거움 이었다.

수덕사는 어느 산중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라고 알려진 산중이었지만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는 엄격함과 법도가 분명하였다. 어느 날 법당예불 시간에 정확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방장 노스님께서는 당신 방으로 젊은 승려들을 불러서 직접 중노릇 하는 법을 일러주시고 염불을 가르쳐주기도 하셨다.

계를 받고 겨우 가사장삼 입는 법을 익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당에서 100일기도를 하던 어느 날, 평소예불만 하고 나가시던 주지스님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나가시지 않고 자리를 하셨다. 큰 스님께서 뒤에 계시는 부담감으로 염불곡조가 흐트러지고 축원을 올릴 때는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다. 예상대로 따끔한 지적이 따랐다.

"염불을 그렇게 해서 선도들이 무슨 신심을 내겠느냐. 뒤에 부처님이 계셔도 자신 있고 분명하게 염불을 해야지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서는 안된다."

100일기도가 익어가던 어느 날 사시예불을 마치고 돌아서니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한명 함께 하고 있었다. 기별계 뭐례를 나누고 지나치려는데 말을 걸어왔다.

"스님, 잠깐 말씀 좀 나누어도 될까요?" 사연인즉 단체로 등산을 왔고, 잠깐 법당에 참배를 하고 산에 가려고 했는데 염불소리가 너무 좋아서 등산을 포기하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곤 양발이라도 사서 신으라고 약간의 보시금을 내놓았다.

그 진지한 얼굴과 태도는 나에게도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순간 "100마디 훌륭한 법문도 좋지만 때로는 한마디 염불이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염불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해인사 학인시절 염불습의사를 자청해서 하고, 수덕사에서 행자들을 가르칠 때도 어른스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려 애를 썼다. 포교사단에서 처음으로 염불교육을 할 때도 흔쾌히 강의를 맡았고, 누구라도 배우려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전하곤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법문보다 염불' 이다.



그림 · 박주원

"백마디 훌륭한 법문도 좋지만
한마디 염불 마음 움직이기도"
은사 스님 늘 그 중요성 강조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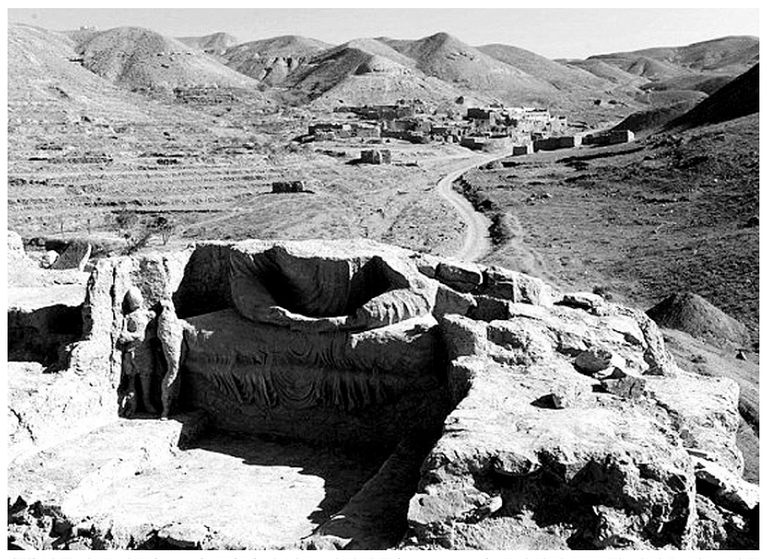
(사)대한불교 조동종 연수교육 안내

대한불교 조동종은 포교방법과 전법이 뚜렷한 선종으로서 묵조선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종단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찰에서는 포교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5차 연수교육 및 금강계단(수계 및 구족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전 종도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종도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556년 10월 17일 (음 9월 3일) ~
10월 19일 (음 9월 5일) (2박 3일)
장 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다보사
수련원 043)833-7789
대 상 : 전 종도 및 불자
준 비 물 : 종단가사, 장삼, 바루, 세면도구
집결시간 : 오전 12시까지
문 의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02)2091-0408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 수락산 도선사 (내)
Tel : 02)2091-0408 Fax : 02)952-0408 홈페이지 : 조동종.kr

아프간, 불교유적 파괴 또 시작되나





(좌)아프간 로가르(Logar) 주(州)의 메스 아이나크(Mes Aynak). 5세기경 중국과 서역을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최고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메스 아이나크유적지 (우)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불상들

中 광물개발공사, 오는 12월 메스 아이나크 구리광산 본격 채굴

국제 여론, 제2 바미안 대불 … 보존의 길 모색해야

2001년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세계 최고의 불상 바미안 대불을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무참히 파괴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아프간 남서지역 고대불교 유적과 유물들은 이제 탈레반이 아닌 '경제 이익'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고 인도 언론 뉴스트랙(News Track) 인터넷판은 9월 25일 보도했다.

문제의 유적지는 아프간 로가르(Logar) 주(州)의 메스 아이나크(Mes Aynak). 5세기경 중국과 서역을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최고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메스 아이나크의 위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프간 정부는 메스 아이나크에 매장된 구리에 주목, 광산 채굴권을 경쟁 입찰에 부쳤다. 전쟁 후 국가재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세계 제2위의 구리 매장량으로 유명한 메스 아이나크의 채굴권 입찰에는 캐나다 · 미국 · 러시아 · 중국 등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달려들었고, 중국이 채굴권을 차지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광물개발공사(이하 'MCC')는 입찰 당시 경쟁기업보다 10억 달러나 많은 34억 달러(약 3조9000억원)를 써냈다. 아프간 사상 가장 많은 외자 투자액이었다. 이 계약으로 중국은 30년간 1100만t에 이르는 구리를 채굴할 수 있게 됐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연간 4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얻게 됐다.

그러나 국제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구리 매장층과 고대불교 유적지 사이의 거리가 1㎞ 남짓에 불과했고, 채굴은 필연적으로 고대불교 유적지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메스 아이나크를 본격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국제 여론에 떠밀려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시한은 올 12월 말까지다.

2011년 여름부터 이 과정을 영상에 담고 있는 브렌트 후프만 교수는 9월 22일 미국 언론 CNN에 "아프간의 지정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중국 기업의 손에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MCC는 낙찰 전까지 메스 아이나크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3년이나 유예기간을 줬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강경 이슬람 국가인 아프간 정부 역시 메스 아이나크를 1조 달러에 이르는 광물자원 개발의 본보기로 삼고 싶어 한다.

한편 인도 언론 뉴스트랙은 미대사관 소속 고고학자 라우라 테데스코 박사의 말을 인용, "중국국영 광산업체가 채굴을 시작하면, 메스 아아니크 지역의 불교유적지는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메스 아이나크는 2600여년 된 불교유적"라고 강조한 테데스코 박사는 "특히 5세기께 꽃핀 불교문화는 200개 이상의 거대 불상과 사원들을 남겨놓았다"며 "실크로드 시대에 구리를 한반도에까지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있고, 청동기 시대 유물도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리 광산이 있는 부근은 아프간 국립고고학연구소와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2009년부터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 지역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6세기 사이에도 채굴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벽화와 수백 점의 조각상이 발견됐다.

이중에는 높이가 5m에 이르는 와불도 포함돼 있고, 높이 9미터 이상인 사리탑과 검은색과 붉은색 물감으로 그린 프레스코 벽화, 보석으로 장식된 석고상 등도 있다.

영국 온라인 매체인 메일온라인은 "광산 채굴이 시작되면 유적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최대한 유물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메스 아이나크를 위협하는 것은 채굴만이 아니라, 가난한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벌이고 있는 밀반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운석에 새겨진 1천년 전 티베트 사천왕상

나치 독일 친위대 발견, 현재 독일 컬렉션에 공개

운석에 조각한 사천왕상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나치 독일 친위대(SS) 탐사대는 9월 26일(현지시간) "1938년 티베트에서 손에 넣은 사천왕상이 운석을 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구원들은 아리안 주의의 기원을 찾기 위한 탐사활동에 나섰던 SS탐사대가 독일로 가져온 이 사천왕상이 24㎝ 높이의 작은 크기이지만 무게가 10.6㎏에 달한다고 학술지를 통해 밝혔다.

연구원들은 "북방을 수호하는 다문천왕을 묘사한 조각상의 재질 분석 결과 철과 니켈이 많이 들어 있는 아탁사이트 운석 조각을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의 엘마 부흐너는 "이 조각이 1만5000년 전쯤 몽골과 시베리아 접경지대에 떨어진 철질 운석의 파편을 쪼아 만든 것"이라며 "이 운석 파편들을 금광 탐사자들이 1913년에 처음으로 공식 발견했지만 전에도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운석의 파편들이 수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각상의 연대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조각 양식이 티베트의 11세기 본 문화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위대장 하인리히 힘러의 지원 아래 동물학자이자 인종학자인 에른스트 셰퍼를 대장으로 전원 SS대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탐사대가 이 조각상을 획득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나치의 어금꺾쇠 십자기장 모양으로 불교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만자(卍)가 다문천왕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 탐사대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흐너는 "'철인'으로 이름 지어진 이 조각이 운석에 새겨진 인간의 형상으로는 알려진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각상은 현재 독일 민간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으로만 공개되고 있다. **이나은 기자**



나치 독일 친위대 탐사대가 1938년 티베트에서 손에 넣은 사천왕상. 운석에 조각한 것으로 24㎝ 높이의 작은 크기이지만 무게가 10.6㎏에 달한다.

슈라마나 전통연구 권위자

세계의 불교학자(35)

파드마나브흐 자이니

美 UC 버클리대 교수



파드마나브흐 자이니(Padmanabh S. Jaini · 89) 美 UC 버클리대 교수는 불교와 자이나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 슈라마나[沙門] 전통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다.

1923년 인도 카르나타카 주에서 출생한 자이니 교수는 영국 런던대를 졸업하고 1959년 〈아비달마 디빠〉 사본의 교정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바라나시 힌두 대학과 영국 런던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했으며 미국 미시간 대학을 거쳐 1972년부터 1994년까지 UC 버클리대 불교학 담당교수로 재직했다.

자이니 교수는 반세기에 걸친 학문적 여정을 통해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사본의 연구로 세계불교학계에 큰 공헌을 남겼다.

특히 자이니 교수가 1959년 펴낸 〈아비달마디빠(Abhidharmadipa)〉 교정본 출판은 프라단 교수의 〈아비달마구사론(1967)〉출판과 함께 이 분야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구 불교학계는 19세기 이후 실비안 레비 등을 중심으로 네팔 사본에 근간한 산스크리트 교정본 출판을 지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근대 불교 사본연구에 큰 획을 그은 라훌라 상끄르티야야나가 티베트 샤루사에서 갖고 온 불교 논리학 관련 마이크로필름으로 인해 산스크리트어 사본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유능한 편집자를 물색중이던 자야스왈 연구소는 당시 바라나시 힌두 대학의 빨리어 강사였던 20대의 자이니에게 〈아비달마디빠〉의 편집과 교정을 위탁했다.

교정을 시작한 자이니 교수는 당시 사본 수집 차 네팔로 가던 런던대 존 브라프 교수의 눈에 들었고, 영국 유학을 권유 받았다. 런던으로 자리를 옮긴 자이니는 신속하게 〈아비달마디빠〉의 교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1959년에 런던대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1930년대 아비달마 관련 학계에는 이렇다할 새 교정본의 출판이 없었다. 그러던 차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론과 빨리 아비담마 및 프라단 교수의 미발표 구사론 교정 원고까지 참조하며 각주에 공을 들인 〈아비달마디빠(Abhidharmadipa)〉 출판은 세계 학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사본 발굴과 출판을 통해 근대불교학을 개척하던 자이니 교수는 1980년대 초 자타카 문학의 동남아시아적 전개에도 주목했다. 이러한 관심으로 1981년과 1985년 빨리성전협회를 통해 〈빤냐사 자타카(Pannasa-Jataka)〉 교정본과 번역본을 출간했다.

〈빤나샤 자타카〉는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빨리어로 구전돼 오던 50개의 전생담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빨리어 〈자타카〉와 달리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유입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불교인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각색된 지역판 전생담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 자료다.

자이나 교수는 세계 불교학계에서는 보기 드문 인도출신의 불교학자이지만 태생적으로 자이나 교도였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독특한 시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이나교 태생 인도출신 불교학자

산스크리트 · 빨리어 사본연구

동남아시아 자타카문학도 전개

그는 인도사상자를 비판적 관점이 아닌 모국인으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불교나 자이나교 등을 사문(沙門) 전통이라는 인도사상의 큰 흐름에서 파악했다.

자이니 교수의 대표적 저서로는 〈Abhidharmadipa with Vibhasaprabhavrtti(1959)〉, 〈Millinda-tika(1961)〉, 〈Saratama(1979)〉〈The Jaina Path of Purification(1979)〉, 〈Gender and Salvation(1991)〉 등이 있으며, 최근 그의 반세기에 가까운 불교, 자이나교 연구를 〈Collected Papers on Jaina Studies(2000)〉와 〈Collected Papers on Buddhist Studies(2001)〉의 논문집으로 묶어 출간했다.

이 가운데 〈자이나 청정의 길 (The Jaina Path of Purification)〉은 인도사상사를 다시 파악하고자 하는 자이니 교수의 균형 잡힌 시각이 잘 반영돼 있다. 이 책에서 자이니 교수는 방대한 분량의 원전 연구에 기초해 브라흐마나와 슈라마나 두 전통을 종횡으로 넘나들며 해탈이라는 인도문명 전체의 관심사에 대한 자이나교적 해법을 교리와 역사, 문화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필치로 기술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추석맞이 현물샵 상품 대잔치

秋夕

원목 고탁자

상판과 다리를 두껍게 제작하여 견고성이 탁월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원목 그대로의 나무결을 살려 나무 고유의 멋과 은은한 자연미를 선사합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엄선 사용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GS가구의 통원목 고탁자 입니다.
모던한 거실 풍경과 어우러진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원목 고탁자는 상판만 원목이며, 통판으로 제작되어진 제품입니다.
원목 통판으로 제작되어 여름과 겨울에 원목의 수축작용으로 갈라짐이 생기는데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갈라짐 현상은 제작상의 문제가 아닌 원목(나무)의 특성상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식탁, 응접실테이블,책상,아이들 공부택상, 다과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테이블

● 가격 : 18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청도 王(반) 건시

왕건시 30과 청도군 특산품 추석 선물세트

친환경 농산물로 수입저가 농산물과는 비교 하지마세요.

경북 청도군은 감이 씨가 없습니다. 간혹 씨가 있는제품이 있긴 하지만 거의 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씨가 없으니까 먹기가 편하시겠죠? 일단 드셔보시라니까요~

청도반시 꽃감으로 씨가 없고 당도가 높으며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버릴 것이 전혀 없는 청도가 자랑하는 특산물입니다. 미주지역 수출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품은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는게 좋구요.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가격 : 6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 원산지 : 경상북도 청도 ● 제조사 : 동일농산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추석 맞이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질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장미목 미니찻상



장미목에 우레탄 칠을 한 미니찻상입니다.
찻잔 받침없이 여러분이 담소 나누실때 매우 실용적입니다.

찻상이 오래사용해서 상처가 많이 나거나 찻상으로 쓰기 힘들때 화분받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5,000원

가로 515㎜ × 세로 115㎜ × 높이 35㎜
3만원 미만 주문시 배송시 택배비 2,900원 별도.
[계좌 : 053-01-269062 농협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발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 (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불화에서 실린 소

〈미황사사적비〉에 의하면 검은 소가 경전을 싣고 가다 멈춘 곳에 미황사(美黃寺)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온다. 창건주인 의조화상(義照和尙)의 꿈속에 금인(金人)이 나타나 “나는 우전국(優塡國, 인도)의 왕인데, 경상(經像)을 모시며 여러 나라를 다니다 이 곳에서 일만불(一萬佛)을 보았기에 이 곳에 경을 모시려 한다”고 말한다.

의조화상(義照和尙)이 장운(張雲)·장선(張善) 두 사미와 더불어 배 안을 살피니 〈화엄경〉 80권, 〈법화경〉 7권, 비로자나·문수보살 및 40성중(聖衆), 16나한과 탱화 등이 있고 또 금환(金環)과 흑석(黑石)이 각 한 개씩 있었다.

향도들이 경을 해안에 내려놓고 봉안할 장소를 의논할 때 흑석이 저절로 벌어지며 그 안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문득 커졌다. 소에 경을 싣고 가는데 소가 가다 처음에 누웠다가 다시

미황사 창건은 소와 연관
안양암 금륜전 흰소 ‘눈길’

일어나 산골짜기에 이르러 다시 누우며 ‘미(美)’하고 크게 울며 죽어 버렸다.

소가 처음 누웠던 곳에 사찰을 창건하니 곧 통교사(通敎寺)요, 뒤에 누워 죽은 골짜기에는 미황사를 짓고 경과 상을 봉안했다. 미황사의 ‘미’는 소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취한 것이고 ‘황’은 금인(金人)의 황홀한 색을 취한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가면 독특한 절이 아파트와 민가로 둘러 싸여 있는 안양암이 있다. 1889년에 창건된 작은 절엔 많은 불교문화재를 지니고 있다. 골목에 붙은 작은 문을 지나면 대웅전, 관음전, 명부전, 금륜전, 천호백불전, 영각, 염불당을 만날 수 있다.

그 곳의 금륜전이란 편액이 걸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 있는데, 그 편액을 쓴 이가 바로 해사 김성근 대감이다. 소납이 사는 동화사에도 종정스님이 계시는 염화실로 오르는 길에 영산전이 있는데 그 현판도 그가 썼다.

북송의 서예가인 미불의 독특한 행서체인 미남궁체로 쓴 현판이다. 김성근 대감은 살아 생전에 사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다고 한다.

그 금륜전 안에 칠성탱(서울시문화재



금륜전 칠성탱의 무소

자료 제21호)은 1930년 고산축연(古山竺演), 보응문성(普應文性), 학송(鶴松) 등의 화승들이 그린 것이다. 화면 안에는 중앙에 흰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있는 치성광여래와 좌우에 일광보살, 월광보살, 칠원성군 등이 빼곡이 그려진 구도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흰 소의 모습이다. 교토 고려미술관에 소장된 조선 선조 2년(1569년)에 그린 치성광불제성강림도(熾盛光佛諸聖降臨圖)를 보면 수레를 끄는 소는 물소이다. 물소는 우리 나라에는 없다. 물론 무소(코뿔소)도 없다.

미국 보스톤 박물관세 소장된 고려 14세기 초엽의 치성광여래강림도에도 수레를 끄는 소는 물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십우도(十牛圖)의 기우취적도(소를 타고 피리부는 동자)가 타고 있는 소도 역시 물소이다.

소납이 베트남에 갔을 적에 그 곳 농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물소라는 말을 들었다. 물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이 많은 논에서 황소는 힘을 못쓰는데 물소는 황소의 두세배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금륜전 칠성탱의 소는 흰 뿔이 머리 위에 홀로 장대하게 서있는 무소(코뿔소)이다. 지금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흰코뿔소이다. 왜 화승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탱화의 물소 대신에 무소를 그렸을까?

그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다. 단지 수타니파타의 무소품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날 따름이다. “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에서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마곡사 불화의 역사 한눈에 조명”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마곡사의 유구한 역사와 근대 불화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가 12월 9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승희)에서 열린다. 국립공주박물관과 마곡사(주지 원혜), 공주시(시장 이준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마곡사의 소장 문화재를 통해 사찰의 역사를 살피고, 마곡사 출신 화승(畵僧)들의 근대기 계보의 형성과 활동상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1388, 보물 제269호)을 비롯한 문화재와 마곡사 계보의 화승들이 참여 제작한 신원사 ‘신중도’(1907), 표충사 ‘천수천안관음도’(1930), 흥천사 ‘감로도’(1939) 등 100여 점이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은 ‘마곡사의 역사와 문화’ ‘근대불화를 만나다’ 두 주제로 꾸며진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세조의 어필로 알려진 ‘영산전’ 편액과 정조 때의 명필 조윤형(1725-1799)의 ‘심검당’ 편액, 범종(충남 유형문화재 제62호), 향완(충남 유형문화재 제20호), 과거칠불 중 구류손불(拘留孫佛)로 알려진 17세기 목조여래좌상 등 많은 문화재가 최초로 절 문 밖을 나와 공개된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주로 마곡사에 주재하며 활동한 화승 약효(若效, 1846-1928) 스님과 그의 제자들로 현재까지 가장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는 계보를 보여준다.

근·현대기의 문성(文性, 1867-1954) 스님과 일섭(日燮, 1900-1975) 스님은 서구문물의 유입과 함께 증폭된 새 문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불화에 적용시켰던 화승들로 유명하다.

특히 이들 문하 중에 문성 스님은 서양화법을 잘 구사하여 근·현대기 불화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에서는 그들의 대표작과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작품들을 한 자리에

마곡사 출신 근대 화승 계보
신원사 신중도, 흥천사 감로도 등
근현대 100여점 작품 선보여

서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그렇다면 공주 마곡사와 ‘근대불화’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공주박물관 홍승완 학예 연구사는 “조선시대 불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파괴된 사찰을 정비하기 위해 재건불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그림을 담당하는 화승들이 늘어나 한 불화에 적게는 두어 명 많게는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제작하기 시작한다. 불화를 그리는데 많은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가 12월 9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승희)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마곡사의 소장 문화재를 통해 사찰의 역사를 살피고, 마곡사 출신 화승(畵僧)들의 근대기 계보의 형성과 활동상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림은 마곡사 ‘석가설법도’

화승들이 참여한 것은 화폭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불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분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 가운데 화승들을 이끈 우두머리 화승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불화 제작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한다.

이후 18세기 대표적인 화승인 전라도의 의겸, 경상도 의균과 임한 등을 비롯해 19세기 신겸, 응상 등 많은 화승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화승들의 활동이 지역적인 연고를 중심으로 폭이 넓어졌다. 서울·경기 남양주 흥국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응석, 강원도 금강산을 무대로 활동한 철유와 축연, 그리고 마곡사와 계룡산 일대에 많은 불화를 남긴 약효와 그의 제자 문성, 정연, 만총 스님 등을 들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일 대표 전통춤 한자리에 선보여”

한국춤예술센터 전통춤 류파전

사)한국춤예술센터가 주최하는 ‘제 4회 한-일 전통춤 류파전’이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강남구민회관 등에서 10월 3일~7일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의 전통춤은 물론 일본 전통춤과의 합동공연이 진행된다.

사)한국춤예술센터 이철진 이사장은 “동아시아와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전통춤의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소극장에서 열리는 전통춤 국제 교류전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5일간 7회의 공연 역시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전통춤 공연의 아쉬움을 달래줄 것이다. 꿈꾸는 공작소는 80석의 소극장을 무대로 감상하는 사람과 공연자의 상호작용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 무용가 박덕상이 이매방류 한량무를 선보인다. 남성적이며 고고한 선비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 춤을 박덕상이 기운찬 움직임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와 함께 정우정연무용단의 김수악류 구음검무가 펼쳐진다. 홀춤을 정우정연무용단의 차명희, 정연희 두 사람이 이인무로 구성해 교방의 아름다움과 흥으로 살렸다.

특히 음악은 김수악의 구음과 장고로만 편성되어 김수악의 예기를 감상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박덕상 이매방류 한량무
일본-미타노리아끼 난릉왕

마지막으로 남기성의 허튼 덧배기춤도 펼쳐진다. 춤의 고장인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덧배기춤은 동래와 수영, 고성 등으로 전파되었다.

일본 전통춤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미타노리아끼의 궁중아악인 ‘난릉왕’이다. 미타노리아끼는 일본아악을 전승하고 있는 젊은 예능인 중 하나다. 그는 2011년 2인무 페스티벌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일본아악인 ‘나소리’와 공연한 바 있으며 궁중음악에도 조예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하라타 사치코의 ‘신곡포도’도 펼쳐진다. 65세에 달하는 그의 인생만큼이나 ‘신곡포도’라는 민요에 맞추어 공연되는 반동류의 일본무용은 접하기 쉽지 않은 일본무용의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다.

정혜숙 기자





사)한국춤예술센터가 주최하는 ‘제 4회 한-일 전통춤 류파전’이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강남구민회관 등에서 10월 3일~7일 열린다. 사진 왼쪽은 박덕상의 ‘사풍정감’, 사진 오른쪽은 하라타사치코의 ‘신곡포도’.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문의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품으로 본 성철스님 청빈과 구도열정

성철스님 탄생 1백주년 기념
유품 및 사진 전시회 개막


사진왼쪽부터 청담 · 향곡 · 성철 스님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성철 스님이 평소 입고 다녔던 승복과 신발 등 유품

10월28일까지 대장경천년관서 열려
유품 60점과 해인사 기록물도 전시

성철 스님(1912~1993 · 사진) 탄신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의 전시회 등이 마련됐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축전 주제관인 대장경천년관에서는 10월 28일까지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일대기 특별전, 해인사 100년 전 모습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지난해 열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의 하나로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가 기획했다.

'100년의 궤적, 살아있는 지혜를 만나다'란 주제의 이번 행사에서는 성철 스님의 유품 및 사진 60점, 스님의 생애와 다비식 동영상 상영, 해인사 100년 전 모습 사진 40점, 2011 축전 기록 · 사진 60점 등을 볼 수 있다.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에는 스님이 쓰시던 각종 유품과 낡은 누더기, 손수 기운 덧버선, 검은 고무신, 글씨 등이 전시돼 스님의 청빈하고 구도적인 삶을 확인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1935년 지리산 대원사에서 거사로 수행하다 출가했다. 이후 국내 유명 사찰 등에서 안거하고, 1981년 조계종 제7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종정 추대식에 참여하는 대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법어를 남기기도 했다. 대장경조직위는 한국 불교의 산실로 널리 알려진 천년고찰 해인사 100년 모습을 담은 사진전도 선보인다.

해인사는 미국 CNN 방송에서 선정한 한국의 가볼 만한 곳 13번째로 선정될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성철 스님의 상좌인 원택 스님은 "수행자로 일생을 사셨던 스님의 면목들이 많은 사람의 신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전시전은 조선 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가야산 단풍과 홍류동 소리길이 함께 어우러져 잔잔한 기쁨을 선사한다"며 "수행자로 일생을 사셨던 성철 스님의 면면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축전 주제관인 대장경천년관에서 9월 26일 열린 개막식에는 윤상기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하창환 합천군수, 선해 해인사 주지스님, 원택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강렬한 붓 터치로 내면의 마음 표현

추상화가 장영주 개인전


강렬한 필치가 돋보이는 작품인 '열망'

10월 9일까지 신작 30여 점 전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서

강렬한 색채가 화면 위에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에너지를 뿜어내는 작품을 선보여온 추상화가 장영주가 10월 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에서 전시회를 연다.

작가는 화려한 색상을 사용해 거침없는 붓질로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를 캔버스 위에 담아낸다.

천상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 찬란한 광경을 표현한 '하늘의 영광', 푸른 숲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는 붓질로 그려낸 '신록',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린 '사랑으로' 등에서는 작가의 내면에 에너지가 물씬 느껴진다. 장 작가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면의 에너지를 모으는데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그는 "나는 붓을 잡은 시간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에 담긴 생각을 오랫동안 품는 시간이 더 길다. 추상표현이 결국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호, 200호 크기의 대작 위주로 지난 3년간 작업한 신작 30여 점을 내놓았다.

미술평론가 서성록씨는 "그의 그림은 '살아있음에 대한 축가' 넘어 샘솟는 기쁨과 희열에 충만해 있다. 설렘과 벅참이 화면을 수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감에 차오르고 있다"고 평했다. (02)399-1114~6.

정혜숙 기자

선지식들의 경구 일필휘지에 담아

서예가 양상철 초청전시회 열려
10월 8일부터 한국불교전승관서


양상철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서예가 양상철 선생의 서예초대전이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서 열린다.

'선사의 향기'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에는 8m 금강경 10폭 병풍과 초서반야심경 병풍, '나무아미타불' '관음' '대광명' 등 50여점이 벽에 걸린다.

한국서가협회초대작가인 양상철 작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2005년부터 6년에 걸쳐 4회씩이나 초대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온 누리에 벽이 없고/사면에는 문이 없네/부처와 조사 조차도 올 수 없는 곳/흰 구름에 누워 한가로이 잠이나 자리"를 내용으로 하는 '證庵(증암)'은 초서 특유의 휘갈리는 맛을 잘 살려 한지위에 옮겼다. 정배열로 가지런히 꼼꼼하게 금강경을 사경한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을 보면 수행자가 쓴 것처럼 꼿꼿한 기상을 느끼게 해준다.

'無枝無葉樹(무지무엽수)'로 시작되는 '古林(고림)'에서는 큼직큼직하게 쓴 글씨 사이로 작가의 큰 기개를 엿볼 수 있다.

제주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덕암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은 "양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 서예기법을 고수하면서도 개성적이고 예술성이 높아 이번 덕암스님 탄신 1백주년을 기념하는 서예전에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상철 작가도 "한획 한획 종이위에 일필휘지로 펼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작업했다"고 그간 작품 준비하며 겪은 고된 과정의 소회를 털어놨다.(02)732-2710

김주일 기자

"조선 기록문화의 꽃, 의궤를 만나다"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9월 25일~11월 25일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조선왕실 의궤가 본향 전주를 찾았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곽동석)은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을 기념하는 특별전 '조선왕실의 위엄, 외규장각 의궤'를 9월 25일~11월 25일 개최한다.

2011년 프랑스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총 297책으로 대부분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된 어람용(御覽用)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의궤의 개념과 내용, 외규장각 의궤의 특징 그리고 의궤에 담긴 조선왕실의 의례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조선 왕실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전주와 영조가 주도했던 의례에 관련된 의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궤와 관련된 궁중회화, 인장(印章) 제기(祭器) 등 조선 왕실의 유물도 전시돼 조선 왕실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부 '조선 기록문화의 꽃, 의궤(儀軌)'는 외규장각 의궤의 역사적 배경과 어람용 의궤의 특징 그리고 의궤의 제작 과정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2부 '의궤로 보는 조선 왕실의 의례(儀禮)'는 책례, 혼례, 장례 등 왕실의 주요 의례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다룬다. 3부 '의궤로 보는 영조의 일생과 조선왕실'은 왕실의 조상과 왕실 어른의 위상을 높이고, 국정을 직접 운영하는 영조의 정책이 반영된 의궤가 포함되어 있다.

전주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조선왕실 의궤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외규장각 의궤의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어린왕자 힐링메시지로 태어나

대만 작곡가 하진진 영감 표현



"어린왕자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과 같았다. 누가 나더러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린 왕자〉를 선뜻 고르겠다"

법정스님께서 생전에 찬사를 보내셨듯이 〈어린왕자〉는 우리들에게 삶의 경구와 같은 명작이다. 성경책 다음으로 전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생텍쥐페리의 명저 〈어린왕자〉가 감동과 영감의 음악적 언어로 태어났다. '어린왕자와의 조우'는 우리들에게 삶의 경구와 같이 진정한 성찰과 힐링을 주는 음악동화 편지 같은 앨범이다. 원작의 묵직한 철학적 담론을 음악동화처럼 그려내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틴 휘슬 악기 등의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보컬, 일러스트 환타지 스토리북이 시청각적인 효과와 감동을 더욱 더 배가시킨다.

이 앨범은 버클리 음대 출신으로 대만의 떠오르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하진진(Chen-Chen Ho)이 〈어린왕자〉에서 받은 음악적 영감을 표현했다. 하진진은 비유, 은유와 상징, 역설과 반어법으로 쓰여진 원작의 묵직한 철학적 담론을 음악동화처럼 풀어내고 있다.

'The Fantasy of the Painting Brush'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어린이의 순수함과 상상력을 잃어버린 어른들로 하여금 지난 날을 반추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흐밍곡이다. 'Sad Desert(슬픈 사막)'은 서로를 길들이며 관계를 맺었던 오만하지만 그 약하고 순진한 장미꽃을 책임지기 위해 지구에 처음 도착한 사막에서 자신의 별로 떠난 어린왕자와 슬픈 사막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 타이틀곡 돋보이는 트랙이다.

한편, 하진진은 대만출신으로 떠오르는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로 버클리 음대에서 학사학위와 1등상으로 퀸스 존스상(Quincy Jones Award)을 수상했으며 재즈작곡 석사학위를 받았다. 음반뿐만 아니라 TV광고음악과 대만의 TTV, CTV 방송국 등의 TV드라마 음악을 작곡했다. 주요 앨범으로는 2004년도 데뷔 앨범 'Three Cat Cookies'과 'All The Best In Memories' 등이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연꽃과 LED조명과의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재질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밥,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켜지므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몸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꽃과조명 LED ART FLOWER
NAVER 카페 꽃과 조명 cafe.naver.com/flowernled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nled)
제휴쇼핑몰 불교TV(btn mall) / 사찰몰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마음은 온갖 종류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다”



꽃과 쓰레기
틱낫한 지음
한창호 주영아 옮김
이솔 펴냄

시인이고 학자이고 세계적인 정신지도자인 틱낫한 스님(사진)의 아름다운 깨달음이다. 책은 우리 의식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는 책을 통해 마음을 분석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 5세기의 승려이자 학자인 세친의 〈유식삼십송〉, 〈유식이십송〉에 바탕을 둔 것으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의 안내서이다.

“마음은 밭이다. 마음은 온갖 종류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다. 이 마음 밭을 모든 씨앗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책에 수록된 50여 편의 시들은 수행의 길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다. 50편의 시는 빠알리 성전 〈논장〉의 가르침으로부터 〈화엄경〉같은 후기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이르는 인도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흐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책의 시들은 저자가 수행 시절 베트남에서 한자로 공부했던 세친의 〈유식삼십송〉과 〈유식이십론〉에 토대를 둔 것이다. 부처님을 비롯해 세친, 안혜, 현장, 법장 등이 우리에게 전해 준 귀한 가르침을 빛나게 하기 위해 1990년에 50편의 시를 지었다. 이번 책은 이미 출간되었던 〈transformation at the base〉의 새로운 판본이다. 저자는 이 책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심리학 학위가 필요하거나 불교를 많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천천히 읽으라고 말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읽으려고도 하지 말고, 다음 시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읽은 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천천히 이해하라고 말한다. 알아차림과 자애와 연민으로 시를 읽다보면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나 의식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저자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이 드러날 뿐이다. 화를 내기 시작한다고 해서 화가 바로 그 순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화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의

유식의 8식으로 ‘마음’ 설명
꽃은 쓰레기가 되는 과정
쓰레기는 꽃이 되는 과정

씨앗으로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혀서 화의 씨앗이 발화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화가 드러나는 것이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억누르지 말라. 두려움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애쓰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알아차림이라는 놀라운 씨앗으로 그 모든 번뇌를 받아들여야 한다. 알아차림의 빛으로 번뇌를 접할 때 번뇌가 변환된다. 번뇌라는 쓰레기를 붙잡아 그것을 퇴비로 활용하면 기쁨과 평화, 해탈과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우리는 알아차림의 에너지로 우리 안의 꽃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다시 꽃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우리 안의 꽃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다시 꽃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더 이상 쓰레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직 드러남뿐이라는 유식(唯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는 여덟 가지 의식이 있다.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 전오식(前五識)과 인식대상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제 6의식(意識), 제 6의식을 발생시키고 뒷받침하는 말나식(末那識), 일곱 가지 의식의 토대이자 근거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책은 ‘아뢰야식’, ‘말나식’, ‘제6의식’, ‘감각의식’, ‘감각의식’, ‘실체의 본성’, ‘수행의 길’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시부터 열다섯 번째 시까지는 아뢰야식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비결은 알아차림으로 지금 이 순간을 다루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보고 접하는 모든 것에서 상호 의존하는 존재의 본성을 보면 어리석음은 지혜로 변환된다.” 어리석음과 지혜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파도는 물이 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파도는 이미 물이기 때문이다. 상호 의존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만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 있는 깨달음의 본성과 만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있음을 알기 위해 알아차림을 한다. 흡연이라는 습관 에너지에 대한 알아차림은 매일 더욱 깊어질 것이고 흡연으로 폐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신의 폐와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 고리를 인식하면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정원에 줄 퇴비를 만드는데 쓰레기를 사용하는 정원사의 얘기를 통해 꽃은 쓰레기가 되는 과정에 있으며 쓰레기 또한 꽃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번뇌를 붙잡아 그것을 퇴비로 활용하면 기쁨과 평화, 해탈과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날 것이다 괴로움과 망상을 받아들이면 이미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살인자에게도 참회할 기회 주어야

불교의 생명관

진관 지음 | 정우 서적 펴냄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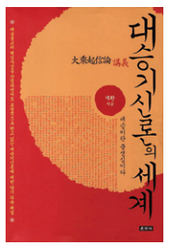
오랜 세월 종단 개혁과 민주화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진관스님의 연구로, 불교의 경전과 논서 등에 의지하여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형제도에 관한 반대 논란은 18세기 후반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많은 사회단체들에 의해 사형제 폐지운동이 펼쳐지자 유럽 일부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1987년 6월 10일 민중항쟁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고, 백용성과 한용운, 강운규 열사들이 투옥되었던 방사에 누워 그들을 생각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저자는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인간 자체로 귀하고 위대함을 이야기 하는 불교적 사유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인마에게도 성불의 기회를 주었던 부처님을 이야기 하며,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세 번째는 부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사세의 이야기를 통해 악행의 범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두이며, 사람을 죽인 자에게도 참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네 번째에서는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법이란 이름으로 살생하는 사형을 계속 집행한다면 그 사회는 어떠한 이념을 말해도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대승’ 이란 ‘중생심’ 이다

대승기신론의 세계

계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7천원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는 〈대승기신론〉의 해설서다. 마명(馬鳴)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대승기신론〉은 불교 논서의 걸작 중 하나로, 그 구성이 치밀하고 문체가 간결하며 독창적인 철학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고금의 학자들로부터 찬탄과 함께 ‘명작’으로 평가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그 연구가 활발했다. 이 번 책은 2005년 출간됐던 〈대승불교의 세계〉의 개정판으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서술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에 들어가는 관문, 대승불교의 입문서이자 개론서로서 최적의 ‘논’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그만큼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널리 사랑받고 읽혀온 것이다. 찬사를 받아온 만큼 이 논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와 해설서가 등장했는데, 이 논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책은 ‘명작’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1부에서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하고 있다. 대승은 무엇을 의미하고 기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자(마명)의 진위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다섯 개로 구성된 각 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주석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2부는 일반 불자들을 위한 장으로, 〈대승기신론〉 전체에 대한 현대어 번역문이다. 비교적 쉬운 언어와 문장으로 다듬어서 굳이 전문 학자가 아니라도 이 논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과 주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3부는 이 논의 취지를 보다 정밀하게 살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장으로, 원문과 직역, 요지, 해설과 각주로 이루어져 있다. 〈대승기신론〉 자체가 명쾌한 만큼이나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문장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나아가 그 뜻을 바르게 파악하게란 쉽지 않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각 단락의 앞부분에 핵심 요지를 간략하게 기술하여 내용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300여 개의 상세한 주를 달아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역시 도움을 주고 있다. 해설은 간략하게 압축된 〈대승기신론〉에 풍부하게 살을 붙이고 풀어쓴 부분이다. 각각의 용어나 문장 혹은 단락에 대한 설명을 행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고 〈대승기신론〉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 부분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또한 중간중간 등장하는 도표들은 〈대승기신론〉의 사상과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혹도 깨달음도 중생심 안에 있어
전문가 비전문가 모두에게 도움될 책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대승’의 의미는 소위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대승, 즉 소승의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대승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 즉 중생심이 바로 대승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은 ‘중생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중생심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하며, 슬퍼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마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생심의 본질은 그야말로 무한히 크고 넓고 풍부하며 뛰어난 것이어서 미혹의 세계도 깨달음의 세계도 바로 이 중생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중생심의 비밀을 파헤쳐, 중생심을 중심으로 대승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승기신론〉이라고 말한다.

또한 〈대승기신론〉은 수많은 대승경론 가운데서 특히 ‘기신’에 중점을 둔 논서라는 인상을 제목에서 강조하는 있다. 그렇다면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이라는 뜻의 ‘기신’ 속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책은 “불교의 근본을 바르게 이해하고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 〈대승기신론〉에 있어서의 ‘기신’의 의미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은 ‘대승의 기신’, ‘대승적인 믿음의 모습’, ’대승적인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설한 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책은 대학에서 오랫동안 〈대승기신론〉 강의를 해온 저자가 그동안이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승기신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나 새로운 견해보다는 선학들의 기존 연구 선과들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정리, 해설에 중점을 뒀다. 때문에 일반 불자들은 물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9~9/2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6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7	꽃과 쓰레기	틱낫한	이솔
8	종교란 무엇인가	오강남	김영사
9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10	붓다처럼 살기	릭 핸슨	열대림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지혜와 공덕, 깨달음
성취하는 생산적인 도道!



불교TV 방송강의中
타방정토와
유심정토를 포용하는
《일심정토 염불수행》
정목스님 지음
변형 신국판 | 칼라 | 232쪽
13,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정정취의 깨달음
환경과 의식을 창조하는, 체험으로 증명되는 마음의 과학!

원효 대사의 일심정토 염불수행은 독창적인 정토사상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염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 스님은 누구든지 염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확립했다.

양산 정토원: T.055-375-5844,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참된 명상은 삶에 대한 완전한 각성"



명상 나에게 이르는길

샐리 켐튼 지음
윤구용 옮김
한문화 펴냄
1만8천원

요즘 명상에 대한 책과 자료가 범람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명상 지식과 방법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참 의미를 알고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전히 적다. 그렇다면 참된 명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명상은 '자기 계발'이 아닌 '자기 발견'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명상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왜 명상을 하는지, 명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명상의 전 과정을 친절하게 펼쳐 보여준다. 명상의 원리에 저자의 생생한 체험담과 구체적인 수련을 더해 지식이 아닌 지혜로, 자기계발이 아닌 참자아 발견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명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명상의 세계에 첫 입문하는 사람부터 진지한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명상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명상의 세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저자인 샐리 켐튼은 〈에스콰이어〉 〈뉴욕매거진〉 〈빌리지 보이스〉 등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다. 1970년대 초 스승인 스와미 묵타난다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면서 본격적인 명상가의 길로 들어선 그녀는 사라스와티 종단에서 수도승으로 명상 및 영적 지혜를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현재는 캘리포니아를 거점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워크숍과 수련회를 개최하며 명상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수련자를 깊은 명상 상태로 인도하는 탁월한 명상 스승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수행한 수행자들이 일상적인 명상에서 벗어나 더 깊은 명상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40여 년 동안 매일 명상을 하고 지도하면서 터득한 명상의 원리와 방법을 명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명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경험이라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이 책에서 유명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동양의 명상과 지혜를 서양의 과학적인 눈과 논리로 멋지게 풀어내고 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참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근원에, 존재의 중심에 다가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각성을 인간관계뿐 아니라 일과 삶에 적용시켜서 삶과 명상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명상은 방석 한 장만 있으면(심지어 그마저 없어도) 언제든 내가 머무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다. 단지 나를 둘러싼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눈을 감고 그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기만 하면 된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시끌시끌한 마음을 대면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면 자신 안의 또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명상은 자신의 근원이자 내면의 연인인 참자아에 닿는 과정이다. 생각이나 감정,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실체가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결국 명상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 알게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영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인 쿤달리니가 깨어나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

명상 원리부터 이론과 실제 총 망라
"명상 꾸준히 하는 것 중요" 조언
마음 고요해질때가 명상 시작 순간

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한다. 쿤달리니는 힘들고 고달픈 영원한 타자(他者)가 아닌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 세상을, 이 사랑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세상과 이어져 있음을, 자신이 사랑 그 자체임을 자각하게 한다.

명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명상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깊은 체험에서 우러난 명상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명상의 원리부터 생생한 체험과 구체적인 수련까지 명상에 대한 모든 것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명상을 할 때 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상 상태에서 여러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년 간 명상을 해도 전혀 진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상 중에 올라오는 두려움이나 저항감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자신의 체험을 진솔하게 녹여서 전해주는 그녀의 가르침은 마치 일대일 개인 레슨을 받는 느낌을 준다. 또 수많은 요가 경전들에서 인용한 명구들을 통해 참자아를 찾아 떠난 여행길에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오랜 세월 명상을 해온 저자는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명상의 과정은 날씨와 같아서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니, 명상 중에 체험하는 이상한 느낌이나 기분에 놀라거나,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경험에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라고 한다. 명상의 과정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에 가까워 한 발 전진했다가 두 발 후퇴하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은 참자아의 길에 이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자의 이 한마디를 기억하자. "명상 하다가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가? 틀렸다. 진짜 명상은 그때부터다. 내면의 우주와 그 안에 깃든 사랑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자신에 맞는 삶의 속도 찾아라"

느림보 마음

문태준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3천원





2009년 〈느림보 마음〉으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서정시인 문태준(불교방송 PD · 사진). 그가 한껏 풍부해진 감성과 깊어진 사유로 더 아름다워진 산문을 들고 3년 만에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의 글은 서정시의 음률을 품고 있다. 그래서 문장을 곱씹다 보면 메마른 마음이 여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0여 편의 원고를 추가해 새롭게 구성한 이 책에서 저자는 서정 미학의 정수를 보여 준다. 그는 참깨꽃, 햇배, 도토리 등 일상서 놓치기 쉬운 작고 평범한 것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사랑하는 사물과 풍경은 하나같이 작고 사소하다. 볼품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일상의 소소한 풍경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낸다. 5천 원짜리 왕순댓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스치는 말 한마디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그 말하는 이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문태준이다.

이렇듯 그의 시선은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에 느릿느릿 가 닿는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시구절처럼 그는 작은 것에도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오래 본다. 일상에 치여 우리 주변에 있었으나 보지 못했던 혹은 보고도 무심히 넘겼던 사물과 풍경들은 문태준의 따뜻한 시선 아래 다시 태어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그의 시선을 좇아 주변에 있던 평범한 사물과 풍경들을 새롭게 보게 될 것같다. 낮은 자리에 눈길이 머무는 그의 글은 독자들의 마음에 고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산문집 바탕에는 고향과 가족이 있다. 그의 몸은 도시에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고향에 머물러 있다. 그는 추풍령과 황학산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여름이면 냇가에서 멱을 감으며 놀았고, 그러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따뜻한 돌을 귀에 대어 빼내곤 했다. 가을에는 탱자나무 울타리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사과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 사과 서리를 하기도 했다. 자연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고향 마을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기억들은 그의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저자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글은 '들밥 풍경' 같다. 일상에 너무 떠밀려 살지 않기 위해, 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마다 들밥 풍경을 떠올린다고 한다. 들밥을 이고 가는 여인, 그 밥을 나눠 먹는 농부들, 빈 들밥을 집으로 가져가는 여인 등 아주 느릿느릿하게 흘러가는 고향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들밥 풍경. 그의 글 역시 이 들밥 풍경처럼 서정적인 풍경화 한 폭을 떠올리게 한다.

가족이라는 말보다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눠 먹는 존재를 뜻하는 '식구'라는 단어를 더 좋아한다는 저자. 평범하고 작은 것들에 눈길 주며, 고향 풍경과 사람을 사랑하는 저자는 삶에서도 욕심부리지 않는다. 느림보 시인이라는 별명답게

2009년 책에 30편 추가
'고향'과 '가족' 이야기
"덜어내기 느림보 마음의 필수"

묵묵히 그의 길을 갈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덜어 내기'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가 이야기하는 덜어내기의 모습은 다양하다. 소찬(少饌)으로 먹기, 말 줄이기, 욕심부리지 않기, 헐거운 하루 보내기, 마음속의 혼란과 혼돈 몰아내기 등등이다.

덜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덜어 내다 보면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며 자신을 비우고 느린 마음으로 살 때,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렸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숨 크게 내쉴 필요가 있다. 남이 빨리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뒤꽁무니만 쫓아가다간 넘어지기 십상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걸음의 속도를 찾는 것,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느림보 마음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김주일 기자

걷기 전문가의 '걷기 정보' 백과사전

나를 찾아 길 떠나는 도보여행

박용원 지음 | 책숲 펴냄 | 1만5천원



21,545km. 이 거리는 서울서 부산을 50번 넘게 오갈 수 있는 긴 거리다. 또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에베레스트 산을 2,400번 넘게 오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는 처음 운동 삼아, 또 쉰 살 기념으로 서울서 삼천포까지 402km를 9박 10일에 걸쳐 걸어보았다. 무엇인가에 도전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라는 세상의 편견에 한번 맞서보기로 한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 그러나 성패를 떠나 그는 '걷기'가 주는 의외의 희열에 사로잡혀 버리고 만다. 이후 그는 틈만 나면 길을 걸었다. 하루 10~15킬로는 예사이고, 주말에는 20~30킬로, 여름과 겨울에는 열흘쯤 시간 내 수백 킬로미터를 걸었다. 지금에야 각 지자체 별로 올레길, 둘레길, 마실길, 산소길 등 여러 이름으로 걷기 코스를 마련해 놓았지만 그 길들이 생기기 전부터 그는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방방곡곡을 다니며 걷기 코스를 만들어왔다. 이 책은 바로 그동안 걸었던 길에 대한 기록이다. 더불어 길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색의 여정도 담았다.

2002년, 저자는 자신의 '걷기'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싶어 우리나라 최초의 도보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을 개설했다. 당시 여가 시간이 늘면서 카페는 개설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에는 기존 카페와 차별화된 도보 장르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다시 '나를 찾아 길 떠나는 도보여행' 카페를 재개설했다. 이 카페 역시 회원 수가 2만 명이 넘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이들을 걷기의 세계로 이끌면서 쌓은 경험을 이 책에 오롯이 담았다. 책에는 초보자를 위한 걷기의 자세와, 등짐 꾸리는 방법,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등등에 관한 정보 담겨져 있다.

김주일 기자

명저에서 뽑은 마음공부 안내서

영혼을 깨우는 책읽기

이현경 지음 | 교양인 펴냄 | 1만6천원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말씀들이 이 책을 타고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바로 깨달음을 위한 책들을 소개하는 '책으로 시작하는 마음공부 안내서'이다.

삶이 괴로울 때 우리는 자기 내면을 돌아본다. 나는 누구이고 삶은 어디로 가는지 새삼 의문을 품지만 내가 아는 지식을 토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어느 순간 마음이 다스려지는 듯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다.

저자 역시 머리로 하는 생각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삶을 수십 년간 살아왔다. 십 년 넘게 사회운동에 헌신하면서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로 사회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상처, 소통과 감정의 문제는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영혼을 깨우는 책'이 처음으로 저자에게 다가왔다.

저자는 책 속에서 자신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정성들여 골라 정제된 언어로 풀어 전한다. 책 속에서 만난 한 구절이 일상 속 고민의 지점과 놀랍게도 맞닿을 때, 이 책에서 얻은 배움이 저 책으로 이어지며 가슴에 점차 아로새겨질 때, 그 설레고 기쁜 깨우침의 장면들이 저자가 책 속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말씀과 감동적으로 어우러져 마음공부의 길을 보여준다.

'영혼을 깨우는 책'은 생각을 멈추라고 한다. 내가 알던 상식과 관념을 버리라고 한다. '나' 자체를 손에서 놓아버리라고 한다. 멀리 특별한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김주일기자

2012년 2학기 치유요가테라피 강사과정
2012년 9월 8일(토) 오후 2시 개강!!!

1. 교육목적
건강과 테리피(Therapy)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요가에 대한 관심도와 수련자들의 체계적인 학습의 욕구에 부흥하여 질병과 스트레스를 치유 YOGA 와 명상(Meditation)을 통해 心身의 안정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치유로서의 Yoga를 학문적으로 이해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요가지도자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교육과정
◆요가테라피 1 – 생활통증별 원인과 예방행법
◆요가테라피 2 – 도구를 이용한 치유요가테라피
◆요가테라피 3 – 대상별 원인에 따른 치유요가 테라피 (임산부, 실버 요가 등)
◆요가테라피 4 – 개인 맞춤 운동습관 프로그램하기
◆요가테라피 5 – 비만관리와 요가테라피
◆그 외 요가의 정의, 아사나 기본 행법, 요가호흡법, 기초 요가생리학, 요가해부학, 대상별 심리에 따른 교수법 활용

3. 교육기간 및 수업료
1) 이수기간 : 16주 (총 64시간)
2) 수업시간 :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3) 수 업 료 : 80만원 (교재 및 자격비용 별도)

4. 입학대상 및 정원 (20명) – 19세이상 남녀 누구나

5. 전형방법 및 접수기간
1) 전형방법: 지원서 1부 (본교양식)

6. 자격취득 및 자격증 발급
1) 수료 후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2) 수료 후 일정 자격검증 시험을 거쳐 치유요가테라피 강사 자격증 발급 (대학원 산학협약 요가교육전문협회)
3) 교육기관 및 기타기관에 강사추천
– 초,중,고등학교 특기적성, 사회단체 및 문화센타, 시 체육관, 복지관 등 요가 강사 취업
– 기업체 연수교육, 대학 시간강사, 기업요가 특강 등 요가 강사 추천

7. 책임교수
임동호 (동방대학원 대학교 자연치료학과 전임교수, 요가전공, 철학박사) 외 지도교수 2명

8. 문 의 02)3668-9890 (동방대학원 대학교 문화교육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수행기간 중 대념처경 특강)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과 대념처경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념처경은 위빠사나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통으로 바라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행복의 삶을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수행에 동참해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원	대 상
2012년 10월 20일 – 10월 26일 [6박 7일]	우 또다나 사야도 [통역:일창스님]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대념처경 특강 및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대념처경 특강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의 면담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 쇼올,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탑상' 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불탑과 불상…재래신앙 대체 과정 살펴야

1. 탑상의 조성 사실

『삼국유사』 전 5권 9편 138조목 중 30조목을 수록하고 있는 「탑상」편은 36조목을 싣고 있는 「기이」편에 이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흥법」편과 「탑상」편 사이에 끼어 있는 '동경 흥륜사 금당 십성' 조목을 제외한 숫자이다. 이 조목은 '불법를 중흥시킨' [興法] 신라 출신 열 명을 흙으로 빚은 소상[泥塑]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中宗 壬申本, 1512년)의 편제와 같이 「흥법」편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탑상」은 삼국 혹은 사국 시대에 조성된 탑상의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탑상에 대한 신앙의 시말(始末)을 보여주고 있다. 불탑과 불상을 가리키는 「탑상」이라는 편명이 풍기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30조목 중 너 댓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탑상에 대한 신앙의 연기(緣起)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는 불탑과 불상의 조성 인연이 있는가 하면 조성과는 무관하게 홀연히 탑상이 출현하거나 아니면 존상의 진신이 출현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불탑과 불상은 붓다의 삶과 직결된다. 흔히 우리는 남방 불전에 의하여 붓다는 6년 고행과 3*7일 선정 끝에 정각을 얻고 45년 전법을 한 뒤 80세에 열반에 들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북방 불전은 붓다는 19세 출가 이후 6년 고행 끝에 다시 6년 수행을 통해 성불을 하였으며 49년 혹은 50년의 설법 끝에 79세 혹은 80세에 열반에 들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연대는 천태학의 오시(五時)교판에서 말하는 전법 기간을 셈해 보면 알 수 있다. 즉 12년의 수행 끝에 깨침을 얻은 붓다는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 2*7째에 『화엄경』을 설하였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어서 오백 명의 비구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자리를 떴다. 그러자 붓다는 다시 그들의 안목에 맞추어 12년 동안 녹야원에서 아함부 경전을 설하였다. 이어 8년 동안 방등부 경전(『범천사익소문경』, 『유마경』)을 설하였다. 뒤이어 21년 내지 22년 동안 반야경 경전을 설하였다. 마지막으로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고 열반 직전 1일 1야 동안 『열반경』을 설하였다. 설법 기간을 모두 합쳐 보면 49년 또는 50년이다.

붓다가 열반에 들자 인도의 풍습에 따라 화장을 하였다. 그의 유해(舍利)는 8등분으로 나준 뒤 불교를 신행하는 여덟 명의 왕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유해를 가져가 분묘를 만들었다. 그 분묘를 신성하게 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뒤늦게 도착한 두 왕은 할 수 없이 그 재와 병을 가져가 각기 회탑과 병탑을 세웠다. 뒷날 아쇼카왕이 다시 이들 분묘에 모신 붓다의 사리를 나누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리를 모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사리를 모신 시설물을 탑파(塔婆, stupa)라 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상의 조성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원전 313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재위 BCE. 336~323)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였다. 그가 서인도 지방에 진출하면서 불교계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알렉산더는 간다라 지역에 많은 희랍계의 예술가들을 보내 문화 공작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희랍 신상과 인도 신상의 양식이 결합된 불상이 널리 조상(造像)되었다. 이것은 대승불교 발전의 촉매가 되었다.

워낙은 붓다 재세 당시에 불상 조성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붓다가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러 도솔천에 올라가자 우전왕은 붓다가 그리워 그를 닮은 불상을 조성하였다. 그 뒤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후 불상 조성의 구심은 미투라 지역으로부터 아잔타와 엘로라 지역을 거쳐 간다라 지역 주변까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들 불모(佛母)들이 빚어낸 불상은 신앙의 대상으로 승화되면서 인간적인 붓다를 넘어서서 신비적인 붓다로 변화하였다. 보통의 인간과 다른 특색을 지닌 32상 80종호를 지닌 붓다를 형상화한 불상은 그의 비범한 인격을 상징화한 것이었다. 불모들은 점차 붓다의 신성성과 신비성을 가미하면서 더욱더 추상화된 불상을 조성해 갔다. 그리하여 불상에 대한 신앙은 법보와 승보에 대한 신앙으로 확산되면서 신성한 삼보에 대한 신앙으로 정착되어 갔다.

탑에 대한 신앙의 연기 실어
불상은 대승불교 발전에 촉매제
붓다 사리 나눈뒤 불탑 조성 확대

2. 탑상에 대한 신앙

인도 대승불교는 불탑신앙의 흥기와 불전문학의 탄생 및 대승불전의 찬술 등을 기원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출가자들은 고요한 승원에 앉아 자신의 이익[自利]와 자신의 깨침[自覺]에 치중하고 윤회의 주체로 상정한 미세한 존재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면서 대중들과 멀어져 갔다. 그러자 대중들은 붓다의 진신에서 나온 사리를 모신 불탑을 벌판에 세우면서 그를 향해 칠보로서 보시 공양 공경 예배를 하였다. 모든 경제권이 불탑 주변에 집중되었다. 한동안 무관심했던 출가자들은 교단 내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자자 주도의 불탑신앙을 전환시키기 위해 공덕사상을 제창하였다. 때마침 불전문학의 탄생에 힘입어 대승불전이 찬술되었다. 그리하여 출가자들이 주장한 전법 공덕사상은 힘을 얻었다.



황룡사 9층 목탑 3D 조감도. 신라시대 불탑과 불상 신앙은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을 대체했다.

그들은 『금강경』의 "무릇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凡所有相]/ 모두 허망한 것이니[皆是虛妄]/ 만일 형상을 지닌 것들이 진실한 모습이 아님을 보게 되면[若見諸相非相]/ 곧 여래를 보게 된다[即見如來]"는 사구게와 같은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공덕이 불탑을 향해 칠보로 보시 공양 공경 예배하는 공덕보다 크다고 역설하였다. 출가자들은 벌판에 모신 사리 불탑 대신에 승원에 경권(경전) 불탑을 조성하면서 신앙의 구심을 승원으로 옮겨갔다. 재가신자들은 공덕사상의 창안에 부응하여 다시 승원에 모신 경권 불탑으로 옮겨 신앙을 하였다. 결국 재자가 주도의 대승불교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출가자 주도의 아비달마 불교로 축을 옮겨갔다. 그리하여 아비달마 불교의 주도 아래 대승불교는 부분적으로 흡수되었을 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반면 동아시아로 전해진 북방불교는 불탑 속에 사리와 경권을 동시에 봉안하였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중국의 여러 탑이나 한국의 불국사 서탑 석가탑에서 나온 사리병과 묵서지편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전신앙과 사리신앙이 동거하고 있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환인과 환웅을 숭배하는 천신신앙과 단군을 숭배하는 산신신앙 및 고목신앙과 토템신앙은 한동안 서로 길항하였다. 하지만 새로이 전래된 불교는 천신과 지신과 용신이 상호 결합된 재래신앙을 포용하여 불교의 호법신중으로 섭수하면서 대표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와 달리 이차돈의 순교 사건과 법흥왕의 출가 사건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삼국유사』는 이러한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의 갈등과 대결과 전환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다.

신라의 불교 전래 과정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묵호자가 불교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것은 향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향을 사루면 향기가 널리 퍼지니 신성에 정성을 도달케 하려면 신성은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재래의 신성관념이 불교의 삼보에 대한 신성 관념으로 대체되면서 불교의 신성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단군과 주몽과 혁거세 등이 보여주는 천신신앙과 웅녀와 유화와 알영 등으로 대표되는 지모신 신앙은 천신과 지신에 대한 숭배사상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용신신앙의 주체였던 한 부족이 가락국을 거쳐 신라로 옮겨온 석탈해 이야기는 천신과 지신 이외에 용신 신앙의 존재를 시사해 준다.

이처럼 이들 이야기들은 모두 재래의 신성관념이 불교의 신성관념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불교는 이들 천신과 지신과 산신 및 용신 신앙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보호를 받거나 그들을 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의 전입이 재래신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속의 일부 향가와 민요 등은 이러한 갈등과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절창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탑상」편이 보여주는 신앙의 시말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재래의 천신과 지신과 산신 및 용신 신앙의 기반 위에서 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불교적 용신앙은 호법룡과 호국룡이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탑상과 불국토사상

『삼국유사』「흥법」편의 '원종흥법 염촉멸신' 조의 "절과 절들은 별자리처럼 벌려 있고[寺寺星張] 탑과 탑들은 기러기처럼 날아간다"[塔塔雁行]는 묘사처럼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신라인들에게는 불국토였다. 신라인들은 고구려와 백제와 가야보다 강력하게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했다. 그들은 불교적 우주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우리 선조들은 경주 남산을 중심으로 한 수미산 세계관을 자신들의 우주관으로 확보하고 불국토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특히 경주 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이나 황룡사 장육상, 구층탑 등은 모두 불법의 수호 아래 불국토를 이룩하여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국 사찰들이 창건되고 불탑들과 불상들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계기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고구려와 백제 역시 호국 사찰과 불탑과 불상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유독 신라의 경우에는 호국과 호법사상에 입각한 사찰과 불탑과 불상들이 다수였다. 호국 사찰과 불탑과 불상들은 법흥왕의 불교 공인 이래 진흥왕부터 본격화 되었다. 그런데 이후 오랜 재위를 한 진평왕 대에 이르러 성골(聖骨)의 남자가 다하였다. 성골 귀족들은 진골에게 왕위를 넘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흥왕 이래 확립된 골품제 체제에서 성골 후사를 얻지 못한 진평왕의 명에 의해 진종설 및 불연국토설로 창안한 것은 아닐까?

승원 경전불탑 조성 신앙 옮겨가
북방불교 사리와 경전 동시 봉안
신라 불국토 상징 불탑으로 발현

삼국 또는 사국에 불교가 유입된 계기를 더듬어 보면 정복 전쟁 하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그드른 전쟁이란 상황에서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종래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충분한 구실을 다했다고 생각되었다. 해서 삼국의 불교 전입 경로는 바로 삼국 혹은 사국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상호관계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진평왕 당시 삼국 또는 사국은 수십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삼한일통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것은 영토 확장을 꾀한 진흥왕 이래 이미 가동되고 있었다. 그런데 진평왕 대에 성골의 남자가 끊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반과 같은 광인에게 정권을 넘기느냐 아니면 공주 선덕에게 왕위를 넘기느냐는 갈림길에 있었다. 결국 그들은 선덕을 후사로 결정하였다. 때문에 여인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될 선덕을 위해 보다 많은 기획과 장치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기획과 장치는 국가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때문에 종래의 재래신앙을 아우른 불교는 '신라 십성'에 들어 있는 안함과 자장과 같은 고승들이 불연국토설과 진종설 등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창안해 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워낙은 안함에 의해 불연국토설이 기획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다가 자장이 귀국 이후 본격화한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 내지 국가를 위한 현세이익적인 불교신봉은 종래 샤머니즘의 무격적 신앙을 대신하여 그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샤머니즘과 불교의 교대가 이루어지고 무격(巫覡)의 무력(武力) 대신 불승의 위력(威力)을 드러내는 사실 혹은 설화가 나타나게 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탑상」편은 불교의 양대 신앙대상인 불탑과 불상에 대한 숭배와 조성사실 및 재래신앙에서 불교신앙으로 대체되는 과정과 정착되는 과정을 「의해」편과 함께 『삼국유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황수영, 「삼국유사와 불교미술」, 동북아세아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연구』(1982).
이기백,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6, 1954.
김정배, 『한국고대사론의 신조류』(고려대출판부, 1980).
홍윤식, 「삼국유사와 탑상」, 동북아세아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연구』(198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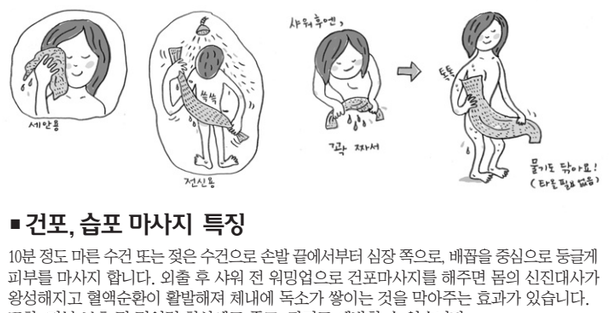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양 도 공 고

한국불교 법인
불교교육 법인
우리불교 법인
현대불교 법인
불교통합 법인
대승불교 법인
대중불교 법인
011-412-8040 법광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수익사업 공고

1. 연못장 가족화분 납골묘 설치
개별납골 그 위에 연꽃을 심어드림
500~2천만원(유리뚜껑은 선택)
2. 기일제사 안하고 명절재사만 지낼 집
3. 육지 부주갱이 나물 튀각용, 효소 주문용
울릉도 부지갱이와 같은 종류 부주갱이 나물
4. 전자납골당 500~1천만원 활용 1년
041)544-4441 한학선원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룡길 192-21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부처님 진신사리와 혈사리,
가섭불 진신사리와 치사리를
모시고 전국 사암, 포교원
어디든 순회법회를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0-2506-2425
서봉 합장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병)
• 야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천도재, 49재, 바라무, 점안식 등 아주 저렴하게 집전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010-4193-1707
철학 1개월 수강으로
개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신도시 지역)
011-9514-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귀포 정당사)
010-5219-70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부천)
011-9707-3490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0-9506-5706

새로 창건한 사찰을
맡아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및 불심 가득한
보살님을 모십니다
(전주지역)
010-9647-07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심 와 기 도

• 소원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053)981-8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시)
031)471-597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기도
스님
모십니다
(경주지역, 면접장소-서울)
011-417-6800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 051)721-6444

비구니 행자(예비스님) 모집

1. 부처님 공부는 큰 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철저한 행자(예비스님). 자율교육
3. 2년 공부 후 주지발령
4. 학력, 나이에 관계없음
010-2669-1800

보은영옥(자성사리) 사업공고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약30분내에
순수한 고인 의 유골만을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30~150만원 /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보은의 사랑. 정각사 _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단씨맹파명리 전문교육처

맹파명리 원저자 중국 단건업 선생 혼인응기특강
일 시 : 10월 27일 ~ 11월 3일 (토,일 : 주간 6시간, 평일야간 : 3시간)
내 용 : 다혼, 독신, 도화, 데릴사위, 부모반대결혼, 남편.
처를 극하는 명, 나쁜혼인, 좋은혼인, 음란명.
강의장소 : 서울 / 홈페이지 : www.mangpa.com
학산맹파명리연구원 011-1743-0543
한국단씨맹파명리학회 031)918-7550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http://cafe.daum.net/indelamang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은 장소, 시간, 남녀노소 어느것 하나에도
구애됨 없는 우리불교인 모두의 인터넷 사이버법당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법문DVD와 CD무료보시



예천 법연선원 대공스님은
불교TV무상사 초청
일요법문 내용을 담은
DVD와CD를 무료 보시합니다.
011-861-6252

주지 직인 공고

• 사찰명 : 국청사
• 주 지 : 혜 성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803번지

상기사찰은 2012년 9월 14일부로
주지 직인을 새로 공고하오니,
2012년 9월 14일 이전 직인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011-212-9810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10월 5일 (금) 오후 2시

• 대 상 – 역학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 / 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원목 법상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포교원임대
- 위 치 : 서울
- 법 당 : 60평
- 요 사 : 60평
- 임대료 : 1억8천
- 시설비 : 1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7억 (은행 3억 가능)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부지 : 약 2500평
- 목조법당 32평(아파트 대단지 인접)
-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총가액: 13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보증금 포함 시설비 총 2500만원 월 40만원 ,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11억 예산
(서울 – 안양 – 의왕)
010-5466-3321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 평수:1층 40평요사채. 방3칸
- 2층 : 40평 법당
- 완벽한시설로써법회 즉시가능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 52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 650만원

010-9963-1770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동구
- 평수 40평 3층
- 방2개, 공양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현재 법회 운영중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8485-019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 평수:1층 40평요사채. 방3칸
- 2층 : 40평 법당
- 완벽한시설로써법회 즉시가능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 52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 650만원

010-9963-1770

사찰(급)안내

- 위치: 전북남원 지리산자락35년
- 총부지 1800평
- 요사채(목조기와지붕18평)
- 조립식 60평 • 황토찜질방 10평
- 용왕각,법당25평 • 산신각 6평, 독성각 2평(전체 콘크리트 기와지붕)
- 계곡에 흐르는 석간수
- 스님 입원관계로 급히 양도 코져함
- 양도가액 : 2억3천만원

010-4708-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사찰 대 80평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 산자락에 위치, 법회 민원 없음
- 약간의 텃밭
- 가액: 2억 5천만원

010-5346-4138

토굴 임법당(급)

- 위치 : 경북 의성 IC 10분거리
- 대지 93평, 방2, 법당, 공양간
- 황토 목조(약 100년 보수완료
- 상단불,좌우원불,토불,주련 기타 집기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급 가액: 3천 5백만원

010-4113-10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 소재
- 옆개울과 연못이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대지 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도 있음
- 가액 : 3억 (꼭 필요한분만에게 가격조절 가능)

011-861-62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북구 칠성시장 부근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2542-2227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오류동역 남부
- 약 1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300만원(절충불가)
- 철학원 운영중입니다
- 급 안내 합니다

011-729-6011

토굴·암자 안내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부개리
- 대지 143평
- 건물 : 법당 가능 8평, 요사채 6평
- 주차장완비
- 대숲 좋음, 비구니스님 환영
- 가액: 4천 8백만원(꼭 사실분)

054)336-0890
010-2772-565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시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51)506-4038

땅(급)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리면 고곡리 (고령IC 근접 30m)
- 사찰터로 최적임

010-5626-6001
서 숙 광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평수 : 대지 ,63평
- 법당 .11평 요사채 ,25평
- 전세 : 3,000만원

(몸만들어와도 됩니다)

010- 7459-2977

포 교 원 안 내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 대지 : 98평
- 요사채: 방3칸 거실:1 화장실 :1
- 법당 : 30평
- 보증금: 500 월세: 30만
- 시설비 : 1,300만원 (절충가능)

010- 4753-8289

토 굴 안 내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부개리
- 대지 143평
- 건물 : 법당 가능 8평, 요사채 6평
- 주차장 완비
- 대숲 좋음
- 가액: 4천 8백만원(꼭 사실분)

054)336-0890
010-2772-56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2층 60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 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 3백만원,시설완벽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278-1488

사 찰 안 내

- 위치: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 단독 2층 중 1층 전부 50평
- 모든시설완비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010-7382-030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입구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95-789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통도사 주변
- 산사사찰, 대지 800평
- 1000년 고법당, 1000년 고석불
- 임대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
- 단청고법당, 요사채2동, 산신독성
- 계곡물 철철 흐르고 주차 30대

010-4640-4747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갓바위길
- 사용대지 200평
- 텃밭有 건평 약 70평 중 법당 안채 분리
- 넓은 마루, 화장실2
- 공기좋고 살기 좋은 조용한 절
- 보증금 2천 3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600만원(조정가능)

017-217-1919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전세가능

031)791-9022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찰터안내

-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야산)
- 10만평, 강원도 경계지점 관리: 임업용산지 등
- 혼재 40~60년 소나무 낙엽송 가득 전기: 도: 샘물접 사찰: 수목장: 전원주택 혐오시설 없음
- 앞터져 있고 이보다 싼땅은 없음 (주변 땅 20~30만)
- 가액: 평당 85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 금정산
- 현대식 사찰 3층 68평 전체
- 기본시설 완비 운영중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기타조건 협의 결정
- 사찰운영 능력있는 60세전후 스님 원함
- 꼭 운영하실 스님만 연락바람

010-2561-736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역세권
- 대지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 가액 : 7억 9천만원 (절충가능)

010-6237-5964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
- 중앙 시장 입구
- 평수 약 30평, 2층 건물 중 2층
- 옥상사용
- 구조 : 임법당1, 방2, 입식주방, 화장실2
- 올전세 380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8223-48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가흥 2동 472번지
- 방2개 주방 욕실 법당 산신각
- 뒷산에 밭도있음
- 월세 : 1년에200만원 (전세는 서로조절가능)

054)632-7513 8시이후
011-9370-7513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진구 전포3동
- 대지 : 26평
- 건물 : 26평 (무허가)
- 양도가 : 1억 (시설비포함,몸만들어옴)

010-4848- 8236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 (제주시내)
- 100평가량 (법당 50평가량)
- 법당, 방3, 샤워실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5035-583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180 (팔도시장내)
- 평수 : 35평 법당 . 소불 100불
- 에어콘완비, 즉시입주가능
- 전세 : 1,0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 1,200만원

010-8664-422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전통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가액 : 30억 7천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가액 : 7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삼보기획 사찰 안내

삼보기획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부지 : 56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5억5천

1억정도에서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무관
법률, 세무, 무료, 상담 환영, 양도,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구입하실분 연락주세요

삼보기획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임야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주변시세 평당 22만원

011-809-7434 주인직접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 13-1, 산14-1
- 22,150평, 1/2지분, 평단 8,500만원
- 구인사 근접, 부동산 사절

- 위치: 경기 연천군 연천읍 사일 산 47번지
- 3937평 평당 6만원
- 사찰터 및 가정묘 최고적지 야산

010-3893-1749 / 010-2301-1749

토 지 안 내

- 토지주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 임야 곰봉산 아래 4만 8천평중 약 30,000만평
- 분할가능 해발 약 800고지 전망 트여있고
- 포장도접 : 전기 : 샘물콸콸 계획관리 임업용산지
- 등혼재 농장 개발 가능
- 평당 1만 3,000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대지 100평, 건물 1층 주택 24평
- 2층 법당 조립식 20평(종교집회장허가필)
- 아미타불, 좌우협시불, 지장불, 칠성불, 각각후불탱화
- 신중탱화, 산신용왕불탱화 에어컨 2개
- 즉시법회가능
- 관음단 관세음보살 108소불은 대체
- 가액: 1억 55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52)249-5532 / 010-2647-5532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 잡아함경 –

선과 뇌 -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아리타 히데호(日 동방대 생리학 교수) · 겐유 소큐(日 복취사 부주지)

〈1〉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과 몸은 전체적으로 하나이다

〈선과 뇌〉(운주사 刊)는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일본 임제종 스님이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은 좌선과 명상의 효과를 담고 있다.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선적인 생활이 몸과 뇌에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금주부터 5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주〉

아리타 히데호(有田秀穗)



1948년 동경 출생.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동해대학 병원에서 호흡기를 전문으로 진료했다. 쓰쿠바대학 기초의학교실에서 뇌신경의 기초연구에 매진한 후, 뉴욕주립대학에 유학했다. 1996년부터 동방대학 생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로토닌 결핍뇌〉 〈우울증과 키레루를 치료하는 훈련〉 등이 있다.



겐유 소큐(玄侑宗久)



1956년 후쿠시마현 출생. 게이오대학 중국문학부를 졸업하고 여러 직업을 체험한 후 교토 천용사 전문도량에 입문했다. 현재는 임제종 묘심사파인 복취사 부주지로 있으면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중음의 꽃〉으로 제125회 아쿠다카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물의 축선〉 〈선적 생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등이 있다.

양극단의 체험에서 중도를 깨닫다

겐유: 우리가 고행하는 이유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관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이런 정도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잇습니다. 그러나 고행을 하면 그 아이덴티티는 계속해서 반전을 거듭합니다.

아리타: 계속 밀어붙일 수 있나요?

겐유: 됩니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계속 밀어붙이면 그 경계를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 경계를 프론티어라고 하면 자신의 프론티어를 앞으로 계속 넓혀 가는 프론티어 스피릿(frontier spirit)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몸이 젊어집니다. 그 이유는 잠자고 있는 능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리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줌으로서 뇌의 신경, 특히 노르아드레날린 신경계는 확실히 반응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계를 넘어서 까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면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식도, 감정도, 그리고 세로토닌 신경계도 보통이상으로 활성화되고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한 한계 이상의 것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겐유: 요즘은 민감한 것을 높에 평가합니다. 감각이 예민하다든지, 감성이 풍부한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함경〉 등의 경전에서는 '감각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눈 · 코 · 피부 · 입도 그 감각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양극단을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의 전달물질로서뿐만 아니라 체험으로서 양극단을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것들을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심'은 평상시의 마음이지만 그 상태는 '무딘' 상태입니다. 또 저는 '중용'과 '중도'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중용'은 중국의 용어인데, 중국적인 '중용'은 처음부터 중용입니다. 석가모니는 '중용'이 아니라 '중도'입니다. 양극단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그 중심점을 알게 됩니다.

극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론을 확연하게 알지 못합니다. 극단을 체험하고 이론화하면서 그 후에는 대처 가능합니다. 석가는 29세에 출가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치스런 생활을 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둡니다. 그런 이후에 고행이 있고, 좌선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깊이는 다릅니다.

아리타: 세로토닌 신경은 확실히 감각을 억제해 줍니다. 가장 좋은 예는 통증입니다. 세로토닌은 내인성(內因性) 진통제로 통증을 억제합니다.

감각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자극에서 생깁니다. 그 감각 반응이 억제돼 버립니다. 따라서 감각에 대한 감수성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키느냐, 도는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석가가 '감각을 믿지 말라'고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프거나 맛있거나 맛없는 것 등, 이것들은 모두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로토닌 뇌의 모든장소에 영향 미친다

아리타: 세로토닌 신경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호흡법과 리듬 활동을 할 때 활동 수준이 쑥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뇌피질의 움직임이 억제되거나 통증이 감소되거나 몸의 자세를 좋게 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세로토닌 신경은 세로토닌을 합성합니다. 세로토닌 신경은 대뇌피질, 마음, 자율신경, 근육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겐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출된 세로토닌을 통해서입니까?

아리타: 세로토닌의 방출 대상 부위는 거의 뇌 전체입니다. 그래서 마치 뇌 전체가 세로토닌을 방출하는 듯이 보입니다. 세로토닌은 내분비물질처럼 혈액을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은 한정된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하나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휘봉에 따라 각 파트의 연주가 아주 흥분되기도 하고 침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뇌 간부야말로 중요하다

겐유: 뇌간(腦幹)이라는 부위는 오래된 뇌에 해당합니다. 그런 오래된 뇌에 중요한 기능, 즉 뇌 전체를 조절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아리타: 뇌간은 대뇌피질에 작용해 대뇌피질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언어기능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조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위는 옛날부터 뇌간이었던 것입니다. 대뇌피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면 · 각성의 중추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뇌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있었던 신경이 새롭게 형성된 대뇌피질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뇌피질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영역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뇌간인 셈입니다.

겐유: 뇌간의 활동을 우위로 하고 대뇌피질을 바보로 만들어 뇌간을 중시한 몸의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아마 명상이나 좌선의 기법일 것입니다.

아리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뇌간은 호흡과 씹는 것과 보행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호흡, 씹는 것, 보행의 리드미컬한 행동이 세로토닌 신경을 흥분시키고, 그 흥분이 전뇌 기저부라는 곳을 매개로 하여 대뇌피질에 영향을 미치고, 또 척수로 내려가서 통증을 억제하는 작동도 합니다. 그런 신경회로가 구비돼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낸다든가, 성적인 것과 먹는 것 등의 본능을 조절하는 것, 이런 여러현상들을 뇌간의 세로토닌 신경으로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뇌피질이 흥분하면 베타파를 발생시키면서 열심히 움직이는데,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억제됩니다.

우선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므로 그것으로 전뇌 기저부를 매개로 해 대뇌피질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지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어뇌를 억제하고, 끊임없이 호흡에 의식을 집중시키는 수행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수행을 하면 다른 것에 기분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대뇌피질의 전전두엽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내부 장기에서도 드러난다?

아리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은 뇌에도 있지만 세로토닌이 가장 많은 곳은 장관(腸管)입니다. 그 장관에서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은 장관의 연동운동을 항진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에는 우울증이나 조현증 등 여러 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들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제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현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겐유: 뇌를 직접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리타: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장을 포함해서 근육도 마찬가지이고, 몸 전부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 전체를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은 대뇌뿐만 아니라 내장으로도 표현되고, 근육으로도 표현되고, 통증의 감각으로도 표현되는 법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통증 감수성이 높아져서 통증도 심해집니다. 자세도 나빠지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대뇌피질의 각성 상태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몸 전체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세로토닌 신경이 다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과 몸은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겐유: 그러나 마음과 의식은 따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식이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전기신호가 형성되고, 그것이 의식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겠죠?

아리타: 뇌파를 측정해서 의식의 명료성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마음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풀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변한다

아리타: 뇌는 학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훈련으로도 변합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으로 일부 뇌 기능이 파괴돼도 다른 부분은 작동합니다. 다른 부위가 보상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학습과 경험, 그리고 훈련으로 뇌의 회로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암기만 아니라 음악도 좋습니다. 언어 기능은 좌뇌가 담당하고 음악은 자극되면 언어뇌인 좌뇌 쪽으로 점차로 연계돼 갑니다. 그리하여 파괴된 회로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좌우뇌의 연결성이 강화돼 뭔가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지능도 있다

겐유: 뇌 기능이나 지능에 관한 '계층이론'에서는 지능을 '결정성(結晶性) 지능(일반적 지식이나 판단력, 이해력 등, 과거에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동성(流動性) 지능'(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으로 분류합니다. 지금까지는 뇌의 가치를 그 논리적 효용성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뇌의 기능과 가치는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 뇌의 기능은 점점 쇠퇴해 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몸만 아니라 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생득적인 기능을 주축으로 한 도형인식이나 영상 기억 등은 '유동성 지능'으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의미도 없는 것을 그대로 암기하는 지능입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들이 아주 잘합니다. 이 기능은 어떤 때는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 쇠퇴해 가지만, 인간의 뇌에는 그렇지 않은 지능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향상돼 가는 지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성 지능'이라 합니다.

젊을 때는 어떤 정보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만 대응해서 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향상되는 지능은 부분을 보는 기능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조합해서 한 순간에 조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종합적인 판단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나이를 먹어서도 유지할 수 있고 계속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은 아주 즐거운 능력입니다. 이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독서와 산책이라고 말합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운주사에서 펴낸 〈선과 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 거리)
◑ 전시관(2009년 준공) 2층 240평 .대웅전, 종각, 지장전 (120영가 분 모셔있음)
산신, 용왕전 외 2,500여평 (국도변 마을 안에 있음)
◑ 경주, 대구, 영천 30분 거리
◑ 전시관 고불상(20년 전부터 한국, 인도, 태국, 티벳,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직접구입 한 원품 불, 보살님) 총 구입가격 40억 이상.
◑ 인도 2000년 된 목재화상 고불상, 1000여년된 고불상, 일부 고불상은 훼손이 심하여 크리스탈 개금, 순금 개금불, 티벳에서 구입한 만다라.
◑ 2012년 초파일 참여인원 : 약 2500 불자님
◑ 2층 전시관 완공내역 : 15억원
◑ 눈물흘리는 약사여래불 좌상 있는 곳
◑ 주지스님 직접 양도
◑ 서포항 개발지로서 준 주거지, 매매해 두시기만 하여도 배 이상 매매가 보장.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26억 급 양도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일부 공개됨.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우경' 이야기 (40)

물고기가 된 왕

"나의 살을 먹고 모두 행복해지시오"

옛날 잠부드비파에 설두라건녕이라는 큰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다. 그는 팔만사천 크기의 땅과 육만 산천과 팔십억 촌락과 이만명의 부인과 수없이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왕은 이렇게 속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졌는데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일체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가엾이 여겼다. 그리고 지극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다.

어느날이었다. 왕은 정원을 거닐며 궁녀들과 한가로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점성사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무슨 일이냐?"

"화성이 나타날 조짐이 보입니다. 만일 화성이 나타난다면 이십년 동안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변이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화성이라...만일 그런 재앙이 생긴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이 나라도 사라질 것이다"

왕은 신하들을 모아 의논을 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런 제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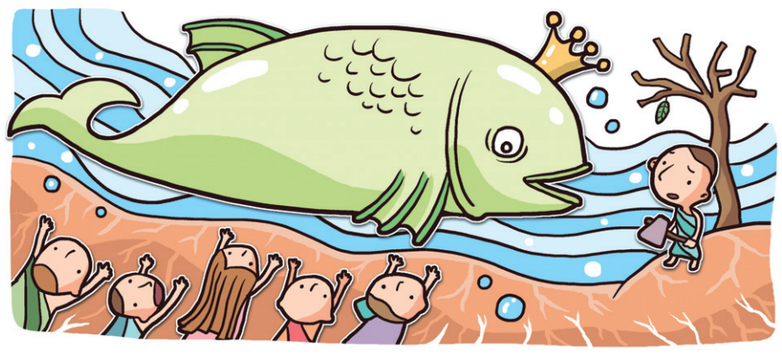
"여러 지역에 영을 내려 인구를 조사하고 또 창고에 있는 현재 곡식을 계산해 그 수량을 파악하고, 이십년 동안에 한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려 곡식 계산과 수량 파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모두 계산하니 백성들의 하루 몫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드디어 화성이 나타나고야 말았다.

그리고 점성사의 말대로 가뭄이 들었고 농사는 흉흉해졌다. 농사를 망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다. 늘 백성들을 걱정하던 왕은 어떻게 백성들을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 또 고민했다.

"나의 복덕이 부족한 탓인가?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저렇게 굶어죽어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동산에 오른 왕은 먼 하늘을 쳐다본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자리잡게 된다. 그는 일어나서 사방을 향해



삽화 · 강병호

예배하고 이내 서원을 세운다.

"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살릴 의무가 있다. 이 몸을 버리고 일체 백성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다짐한 왕은 나무 위로 올라가 땅에 떨어지고야 만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아래 강에는 땅을 다 덮고도 남을 엄청난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왕은 어마어마한 물고기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느날 목공 다섯 사람이 나무를 베기 위해 강가로 갔다. 그러다가 강에서 꿈틀거리는 큰 물체를 발견하게 된다. 이상하게 여긴 한 목공이 다가가 이를 살핀다. 그것은 세상에서 여지껏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물고기였다.

"이보시오. 목공 양반들. 만일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하거든 내 살을 먼저 먹으시오. 그리고 배가 부르면 가지고 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지금 내 살을 배불리 먹으면, 나는 뒤에 부처가 되어 법으로써 세상을 구제할 것이오. 당신들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오. 만일 먹을 것이 필요하거든 모두 와서 내 살을 가져가라고'

굶주림에 지쳤던 목공들은 기뻐하며 각기 도끼로 물고기의 살을 쪼아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물고기의 살을 가지고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말하는 물고기가 있다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나?"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게나. 물고기가 자기 살을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 줬다네"

사람들은 아귀처럼 모여들어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모두 강가로 달려갔다.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고"

물고기는 굶주린 백성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사람들은 물고기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모여들어 물고기의 살을 떼어가기 시작했다.

한쪽 살이 없어지면, 곧 스스로 몸을 뒤척여 다른 쪽 살을 먹이고 그 살이 없어지면 먼저 먹은 곳의 살이 돋아나고, 살이 돋아나면 또 몸을 뒤척여 그것을 먹었다. 피가 나고 온몸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물고기는 꿋꿋이 버텼다.

"그래 나의 살을 먹고 모두 행복해지시오. 나의 이런 고통 따위는 아무려면 어떠하오. 나는 당신들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소"

점차 백성들도 기력을 회복했고 굶주리는 백성은 사라져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갔다. 그렇게 가뭄의 저주가 내렸던 20년도 지나갔다.

물고기는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살을 나눠주고 또 그 살이 자라면 또 떼어주기를 반복했다. 백성들은 그 살을 먹고 살아났고 모두 자비심을 내어 천상에 태어나게 됐다.

물고기는 부처님으로 태어났고 그 최초의 살을 먹은 목공 다섯 명은 비구가 되었다. 또 이후 그 살을 먹은 여러 사람들은 팔만 하늘 사람과 여러 제자들로서 구원을 받게 됐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NAVER 영일상사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佛器)
아주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량 525g, 유효기간 10년

※본 제품은 10년간 사용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마이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의 장 특허출원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유*무선 겸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어떤 것도 그냥 나한테로 밀어넣고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스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미에 대해서 잠깐 여쭈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이 공동묘지에 묻혀져 있던 그런 영령(英靈)들이 큰스님과는 어떤 인연이었기에 그런 좋은 인연이 되셨는지요.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큰스님: 인연이 별다르게 따로 없는 겁니다.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 허허허. 우리 모두가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들입니다. 이게 생시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와 꿈과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바람결같이 돌아가고 찰나찰나에 만남이 있는 것이 그대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 집을 지으려니까 인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인연이 돼서 하나로 되니까 금방 그 영령들은 백이든지 천이든지 만이든지, 모두가 인간으로 환토를 한 거죠. 환토를 해서 내나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또 내놔지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여래의 집에 들었다가 여래가 죄 된 거죠. 부처가 다 됐다 이 소리죠. 이 모두가 이렇게 긴요하고 이렇게 모두 무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자2(남):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쭙고 다시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같은 그런 논장을 보면은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그 다음에 뭐 장식(藏識)이다,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팔식(八識)이라 그러죠. 그 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팔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다 팔식이다라고 하는 그 식(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여쭙니다.

큰스님: 그거를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七識)이다 하는 것은 우리네 육근(六根)이 공(空)해서 돌아가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八識)입니다. 적게 따진다면 칠식이요, 넓게 전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은 팔식에 속합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팔식 하면 벌써 칠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 하면 팔(八)이라는 건 없어지고 식(識)만 남아서 그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송두리째 둘이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처 자리 아닌 자체가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질문자2(남):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일순간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없어졌다 또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생각 일어났다가 한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은, 그것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 낙(樂)'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그러한 마음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큰스님의 말씀을….

큰스님: 하하하. 만날 말씀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여기 걸어올 때에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이게 생멸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일어났다 또는 가라앉았다 이게 마음이 이렇다는 것과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한번 방편으로 얘기해볼까요? 아버지 노릇 하다가 남편 노릇 하다가 또는 형님 노릇 하다가 자식 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일어났는데 금방 딴 걸로 돌아갔어요. 금방 딴 걸로 돌아가고 딴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면은 "왜 그래!" 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은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을 하면은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은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하려도 "여보!" 할 테고, 좋은 말을 하려도 "여보!" 할 겁니다. 그런 걸 대치를 해서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질문자2(남): 예. 그러시다면은 그 한생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같이 이해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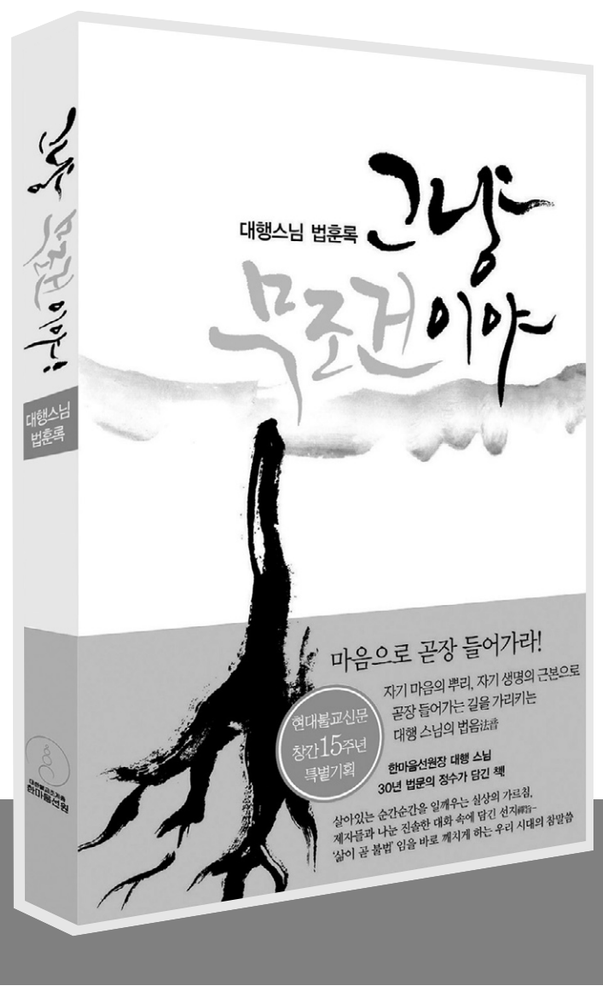
큰스님: 번뇌심이, 본래심이 번뇌심과 다르다고 그 관습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계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저 수행하는 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료.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걱으로다가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더라. "이건 무슨 까닭인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게 그 속에서, 한 속에서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건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라 하는 소립니다, 그게.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하고 친 게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서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속지 말고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다 제대로 되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마다 거기다가 놨습니다. 놓으라고 그런 방편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에는 일어나는 그 마음 번뇌도 망상도, 또는 도라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걸어오듯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걸어오듯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공법이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서 불이 들어와서 가정이 밝게 살고 사회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바로 한마음에 밝게 불이 켜졌을 뿐입니다.

질문자2(남): 재료를 재료로서만 알고 재료에 결코 끄달리지 않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스님: 네.

질문자2(남):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큰스님께서도 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물질문명이라는 이 편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금 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큰스님의 말씀을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끄달리는 의식들이 너무 힘이 세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려 하고 어떤 닥쳐오는 시련이나 아니면은 죽음과 삶의 길에 도달했을 때, 그 큰 재료가 있을 때에만 그런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 문명이 편리해지다 보니 여기에 끄달리고 있는 이런 저희들의 이 중생심이 과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저희들의 지금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코 앞에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일러주십시오.

큰스님: 이 마음이란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죠.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전깃줄을 이쪽에서 하나 대주면은 그냥 불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불이 들어오면은 그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그 밝음을 좇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죠?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밝으니깐 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 그 도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로 변통을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구원하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다가 한마음이 같이 돼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손으로서, 그 천백억화신 자체의 손이 한 손이 돼가지고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모르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하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은 그 마음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행이 나옵니다. 마음이 생기고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없죠?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게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如來心)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이런 용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불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심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이쪽 전깃줄에다가 이쪽 전깃줄을 붙여주면은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붙여주고, 작은 데는 작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준 사이가 없다 이거야. 왜냐? 네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면에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은 서로서로가 교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써 계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러는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다 물리학이다 하는 이름을 넘어서서 심성의 학이라야 되고, 심성과학이라야 되고, 심성물리학이라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것도 없고 저래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은, 크다 작다 한 것이 없다라고 한 뜻은 어떠한 까닭에 없다라고 했는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뜻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전에 나를 친견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했으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준다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되묻고 되물어서 오히려 전깃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외려 불발이 되어서 안될 수가 있거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돼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십중팔구는 되죠.

그러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하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갔으면 되는 거를, '귀가 있으면 듣겠지!' 하고 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야 되는 거지 조건이 있다면 '너는 이런 업이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업보를 지었으니깐 못하고, 무슨 이러한 병이 있으니깐 너는 못하고….' 이런 이유가 붙으면은 그것이 전깃줄과 전깃줄이 어떻게 붙습니까? 이유가 없이, 불을 켜려면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전깃줄을 한데 합치는 거죠. 이걸 붙일까 말까, 이거 붙일까 말까 하고 붙입니까?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그래서 컴컴하면 딱 붙여서 불을 켜서 밝게 살고, 잠자고 싶으면은 잠자고 먹고 싶으면은 먹어라 이 소립니다. 변소 가고 싶으면 변소 가고. 하하하.

질문자2(남): 예. 큰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어서 큰스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또 여쭐 말이 있어서, 대중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한 물건도 없는데,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랴.' 하는 그런 말씀들과 또 어떤 스님들께서는 '깨닫고 난 뒤에는 보림(保任)을 잘해야 된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을 것이라도 있지만은 깨닫고 난 뒤에 보림을 잘못하면은 그건 또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크신 스님들의 말씀이 아직까지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으로 돼있습니다.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림을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깨닫고 나서 보림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건덕지도 없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허허허. 왜냐하면은 내가 자성부(父)와 자성 자(子)가 한데 합쳐지면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데 합쳐졌을 뿐이지 자기가, 즉 씨를 심어서 싹이 났을 뿐이지 자란 것은 아닙니다. 예? 자라려면은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머리 안 깎은 사람들이나 입산을 할 때는 이 무명초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선 다짐을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애당초에. 그랬는데 이 형식적으로만 끊어버렸지 수행해나가는 데 진실하게 우리가 무명초 하나하나를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서 놓는 데서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점수(漸修)다 하는 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나를 발견했으면은 보림이라고 해도 좋고 보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넣고 나한테 그냥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림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놓고 가야 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거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고, 이렇게 해서 둘 아닌 도리를 또 두 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가서는 둘 아닌 도리를 탁 알았는데 나투는 도리를 몰라. 아까 전깃줄과 전깃줄을 대어주고 떼어주고 대어주고 떼어주고 하는 도리를 모른다면은, 모두 일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투는데, 즉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나툴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서 만약에 나툼의 도리를 안다면 일체가 나 아님이 없이 모두가 난데 자기가 자기 꺾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점수(漸修)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아! 너도 나도 다 둘 아니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둘이 다 맞으니까 둘이 다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하하.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물렁물렁하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형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정신과 둘 아니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물만생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같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어야 되고 버림이 없어야 항복을 받고, 항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도리가 나옵니다. 질문하실 분 또 없습니까?

질문자3(남자 어린이): 네. 저는 주인공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번에도 병이 났는데 주인공을 믿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믿어도 안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스님: 허허허.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뜻이 있어. 우리가 돌아서서 갈 때도 있고 앞으로 그냥 갈 때도 있지? 응. 어떻게 바로 가는 것만 가는 거고 이렇게 뒤로 가는 거는 가는 게 아니겠어? 싸울 때도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하는 때도 있지?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우리가 싸우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거든. 응? 후퇴를 해야 살지? 그렇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그 살리기 위해서 후퇴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후퇴를 하는 것도 법, 전진을 하는 것도 법이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돼.

※위 법문은 1992년 9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싸울 때도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면
뒤로 물러서야 살게 되듯이
후퇴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자 세상보기

불교평론 폐간은 퇴행이자 폭력



이 도 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그간 한국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며 대중의 불심에 불을 지피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웠던 〈불교평론〉이 52호(2012년 가을호)를 끝으로 폐간할 위기에 있다. 가을호에 실린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이란 글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맥이 끊겼던 선(禪)을 되살려낸 근대 최고의 선지식이 바로 경허 선사다. 윤창화 대표는 이 글에서 경허선사의 '막행막식' 을 다루었고 선사가 주색잡기를 참회하였다고 밝혔다. 수덕사를 대표로 덕숭문중에서는 이를 경허선사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간주하고 〈불교평론〉의 폐간을 요구하였고, 그동안 이 잡지를 후원해오던 만해실천선양회에서 이를 수용한 모양이다.

이런 양상을 보며 인연에 따라 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기보다, 무엇인가 악연에 따라 일어나지 않을 일이 꼬리를 무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수덕사의 대응은 오히려 경허 선사의 얼굴에 재를 뿌리는 꼴이다.

필자는 윤 대표의 글에서 '따스한 인간의 얼굴을 한 경허' 를 보았는데, 그들은 '추한 파계승' 의 모습을 본 모양이다.

〈삼국유사〉 '광덕과 엄장' 조에서 국문학자들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는 올곧게 수행하여 단번에 부처가 된 광덕이 아니라 탐욕에 이끌렸지만 뼈저린 참회를 하여 어렵게 부처가 된 엄장이다. 이와 유사한 설화는 경상도 땅에 숱하게 널려 있는데, 대중들은 늘 엄장과 같은 이들을 더 위대하게 평가하였다.

성찰과 참회를 통하여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다. 수덕사 문중에서는 경허 선사(1849~1912)의 입적 100돌을 맞아 신격화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외려 대중들이 따스한 인간의 얼굴을 한 선사를 만날 기회를 앗아갔다.

그들은 폭력을 행하여 부처님의 뜻을 어겼다. 선진국의 언론에서는 이런 경우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는다. 윤대표의 글에 정녕 문제가 많았다면 같은 비중과 지면으로 반론을 쓰면 된다.

대중들은 두 글을 읽고 어느 것이 진리이고 허위인지 판별할 것이다. 허위를 통하여 진리를 새삼 반추하고, 진리를 통하여 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 이제 〈불교평론〉은 발행인의 것도, 편집위원의 것도, 만해실천선양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든 독자의 것이다. 수덕사는 반론을 쓰는 대신 폐간을 요구하여 독자들이 이 잡지의 글을 읽고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을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며 역사를 17세기 이전으로 퇴행시켰다. J.S 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인류에겐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다.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침묵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인류를 침묵시킬 권리가 없는 것과 같다.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데 대한 폐해는 그것이 인간의 권리를 탈취하며 그 의견의 당사자들보다도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마저 박탈한다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John Milton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상의 공개시장을 천명하며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를 펴낸 것이 1644년이다. 그 이후 인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였고, 이로써 중세의 암흑시대를 벗어나 현대로 이행하였다. 21세기 오늘 수덕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7세기 이전으로 돌리려는가.

교조는 어느 시대나 지성의 무덤이다. 비판이 없이 학문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각 문중의 선지식은 주례사비평에 의해서만, 각 문중의 문도들에 의해서만 빛을 발하는 '우물 안 개구리' 로 머물 것이다. 필자는 경허선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평가가 자유롭게 행해지기를 바라면서 〈불교평론〉이 복간될 때까지 저항할 것이다. 진리와 자유는 지식인의 신앙이다.

사부대중 칼럼

딸의 소박한 결혼식 이야기



이 학 종
미디어 붓다 대표

작은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다. 한 유력 일간지가 '부모의 눈물로 올리는 결혼식' 이라는 시리즈를 내보내면서 거창한 결혼식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아젠다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것도 이런 아젠다가 교계로까지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경, 딸의 결혼식을 소박하게 치른 것이 입소문으로 알려졌고, 시대적 흐름을 발 빠르게 간파한 현대불교신문에서 딸의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식 한 달 전쯤, 딸과 예비 사위가 아주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때 아이들이 전한 이야기의 대강은 이런 것이었다.

"△잘못된 결혼문화의 사슬을 풀고 싶고 △고가의 드레스나 웨딩사진 등 호화스러운 결혼산업에 휘둘리고 싶지 않으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결혼식을 가족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자신들을 잘 알고 아껴주는 분들과 덕담을 나누는 친밀한 자리로 만들고 싶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식장까지 와야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으며 △왜곡된 부조(축의금) 문화를 거부하고 싶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간에 도와주고 힘이 됐던 분들에게 자신들이 대접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

뚜렷한 소신과 정연한 논리로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는 말에 토를 달수 없었다. 망설이는 표정을 짓자 딸아이는 즉각 반기문 유엔총장 등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도 작은 결혼식을 했다며 압박(?)을 가했다.

"그렇게 하자. 너희가 옳다." 우리 부부는 '흔쾌하게' 작은 결혼식에 동의했다. 다만 하객을 양가 각 30명씩 60명 이내로 하자고 했을 때, 고민이 생겼다. 도저히 30명 이내로는 하객을 정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짧은 실랑이 끝에 "아빠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 10명을 더 할당하겠다' 는 딸의 '배려' 를 끝으로 작은 결혼식은 최종 결정됐다.

그래봐야 40명. 고심 끝에 직계가족 외에 친인척은 대표로 가장 연세가 높은 사촌형님 두 분으로 제한했다. 그러다보니, 몸담고 있는 불교계에는 결혼을 알릴 수 없었다. 자주 만나는 지인들 두어 분에게만 알렸다. 굳이 식장에 올 필요는 없다는 말과 함께. 화환과 축의금은 사양했고, 날짜와 장소도 평일 오후 4시, 서울이 아닌 춘천의 한 리조트 식당으로 정했다. 참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나름의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해서 소요된 비용이 총 1,500만원. 식사, 하객 선물, 신랑신부 옷(한복), 양가부모와 형제의 옷, 신혼여행, 리조트 객실과 아이들이 살 화천의 느릅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한 국수공양 비용까지 일체가 포함된 액수다.

채식식당에서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꺾지 않았다면 1,000만 원 선에서 가능했지만, 식장만큼은 아빠의 생각을 따르라고 하자 잠시 머뭇거린 후 받아들였다. 폐백, 예단, 패물, 이바지 등은 양가의 합의로 모두 생략했다. 식후 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폐백을 대신하고, 패물은 시어머니가 물려주는 반지와 목걸이로 대체했다. 이불은 친정엄마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목화솜 이불을 새롭게 틀어서 만들었고, 가구나 전자제품은 있는 것을 충분히 재활용하며, 그릇은 양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해결했다.

주례도 두지 않았다. 신랑신부가 성장하는 동안 가르침을 주었던 스님 3분, 목사님 2분, 신부님 1분, 은사 2분(신랑신부의 스승) 등 총 8분의 덕담으로 대신했다.

결혼식 내용도 독특했다. 미술과 연출을 전공한 아이들이기에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다. 길놀이패의 여는 마당에 이어 한복을 갖춰 입은 신랑신부가 입장하고, 스님의 축원에 이어 스승 여덟 분의 덕담, 작은 공연에 이어 신부 아빠의 성혼 순이었다. 그리고는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가 함께 테이블을 돌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은 끝났다.

축의금 접수대도 없고, 화환 사절 팻말이 서 있는 식장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낯설어하던 하객들의 표정은 식이 진행되면서 미소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라며 야단을 쳤던 사촌형님들은 "그래, 잘 했다. 사실 이게 맞다" 며 도리어 칭찬을 해주셨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던 신랑신부의 친구들도 "이런 결혼식이라면…"하면서 부러워했다.

하객들에게 신랑신부의 이름을 새긴 '생태수건' 과 화천 산 '들기름' 한 병씩을 나눠드리니 모두들 함빡 웃음이다. 축의금도 받지 않고, 선물까지 나눠주는 결혼식이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社說

'불교평론' 이대로 폐간될 수 없다

착잡하다. 엎지러진 물의 공과를 누구에게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사실 물을 수도 없다. 불교계 매체라는 코뚜레를 꿴 순간부터 한 번은 올 사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어이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황망할 따름이다.

〈불교평론〉은 척박한 한국불교학계에 논쟁이라는 싹을 띄운 지성의 장이었다. 매호의 기획특집은 기존 불교학이 가져올 수 없었던 색다른 주제와 접근을 선보였다. 생각은 했지만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런 〈불교평론〉의 특징은 학술과 저널리즘이라는 양변의 경계선을 마치 외줄을 타듯이 지켜온 결과이다. 주류 학계 학술지들도 못하던 일을 불교계의 학술 계간지가 해내 온 것이다.

하지만 〈불교평론〉은 폐간 된다. 발행처가 폐간을 결정했고, 〈불교평론〉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허스님 주색과 삼수갑산' 이라는 특별기고가 문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다행히 불교학계와 몇몇 스님, 재가자들을 중심으로 〈불교평론〉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 현직 편집위원들도 이르면 10월 초 확대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응 스님은 〈불교평론〉을 살리기 위해 200만 원을 공개 기탁하기도 했다.

많은 학자들은 주장한다. 건설적인 학술논쟁은 불교학계의 논단을 풍성하게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그 논단의 토대가 돼 온 〈불교평론〉이 폐간돼서는 안돼는 존재가 됐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고 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불교학의 다양한 담론들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군포교, 전역 후 관리 없으면 '도루묵'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군종교구 자료에 의하면 내년의 수계인원이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군내 신자수는 줄고 있다. 군 불자 수는 2007년 11만 1000명을 기점으로 2008년 10만 4000명, 2011년 8만 900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전체 군 장병 수가 줄어들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장병들의 수가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군내 무종교인 수는 50%에 달한다.

이 무종교인을 불교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수계 인원이 일선사찰의 신도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역 이후 이들을 관리하는 사후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된다. 수계 이후 군장병들은 불자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신도로서 활동하지 못한다. 이 전역 후 사후관리 부재는 군법사들 내부에서 10여년 전부터 논의되던 것이어서 심각성은 커진다.

이런 점에서 이웃종교인 천주교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한다. 천주교는 세례대장과 교적제도를 통해 세례 받은 교인들을 관리한다. 천주교의 경우 세례는 단 한번 밖에 받을 수 밖에 없어 세례 인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세례대장은 세례 받은 곳에서 관리하며 교적은 이사 가거나 이동시 해당 관할 성당으로 이관된다.

우리 불교계도 군장병들이 전역 후 지역사찰과 청년회 등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수계 현황을 전산화 시켜 장병들이 주거하는 일선 사찰과 수계 정보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다.

최근 포교 현장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포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전역 이후 일선 사찰서 법회에 참여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유도하는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다.

또한 단순하게 군법사의 육성법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트렌드에 맞게 힐링 및 마음프로그램과 문화 활동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눈높이 법회가 돼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휴휴암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은 손에 항상 책을 안고 다니시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위 없는 지혜를 갖추게 해주시는 지혜관세음보살님 입니다. 돌 성벽에 가족이름 새기실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 휴휴암 묘적전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휴휴암을 창건한지 5년 후 무지개가 자주 뜬 자리에 27m관세음보살님 형상의 바위가 누운채로 나투어 쉬고 계시는 휴휴암에 또다시 기이한 현상으로 바다 연화법당 고기바위 주변에는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새까맣게 몰려와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나와 있어도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갈매기들이 잡아먹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신비함을 더 해줍니다.

휴휴암에서는 사찰을 창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국내 유일한 다라니기도 도량입니다.

휴휴암을 창건한 홍법스님은 어려서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좋아하여 보살님이 외우고 계시는 신묘한 신통력이 나온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 독 기도를 드렸고 지금은 천만 독 원을 세우고 기도 드리고 있는 휴휴암에서 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법스님은 다라니에 나오는 화천수 불보살세계를 고려불화로 그려 굴법당에 모시고 다라니를 모르고 기도드리는 불자들을 위해 다라니 해설집을 편찬하여 전국에 다라니기도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스님은 천상세계의 환희지에 머물러 진언을 외울 때는 대장군의 힘이 생기고 온몸에 경련이 자주 일어나더니 다라니 위신력으로 수많은 천신들도 보이고 외롭고 힘든 중음신들도 보여서 매년 9월 관음재일 날 수륙영가 천도재를 지내는데 나로 인해 다치고 고통 받다가 죽어간 사람이나 축생 미물들까지도 위패를 올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슬픔을 달래주고 그 한 맺힌 원결을 풀어주어 좋은 몸 받아서 좋은 세상에 가시라고 수륙영가천도재를 지내 주었더니 바다고기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연화법당 고기바위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 화천수 불보살 세계를 고려 불화로 그려 모신 다라니 굴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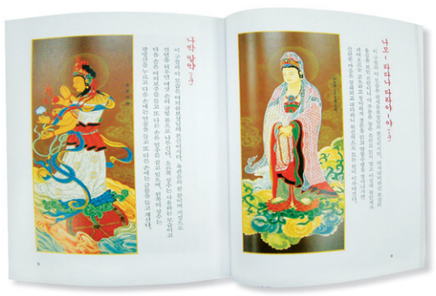


◇ 매년 음력 9월 관음재일날 수륙영가 천도재 봉행

스님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드릴 때 약왕보살님과 약상보살님 대목을 외울 때는 그 분들이 오랜 전생에 수행자들에게 의약품을 전해주고 많은 병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행이 현실처럼 스쳐 지나가고 약사여래 부처님께 기도 드리고 몸을 어루만질 때는 부처님의 신통력이 스님의 몸속으로 전율처럼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더니 신묘하게도 약손이 되어 버린 스님이 수많은 병고로 고통 받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알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드리고 신묘한 약손이 되어버린 스님

머리에 열이나고 아파서 잠을 못 자는 분, 목이 아프고 손이 저리고 팔이 쑤시고 어깨통증으로 고생하는 분, 가슴이 조여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게 사는 분, 허리디스크로 오랫동안 고통 받는 분,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분, 발바닥 손바닥이 쑤시고 아파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 배가 차고 복부통증과 만성 소화 불량으로 오랫동안



◇휴휴암 홍법스님이 편찬한 "신묘장구대다라니 해설집"은 휴휴암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값 15,000원

고통 받는 분, 손발이 차고 시리고 힘이 없고 추위를 심하게 타는 냉증 있는 분, 병원에서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어도 발이 저리고 마비가 자주 오는 분이나 기도할 때 108배만 해도 다리가 아프고 참선할 때 발이 유난히 저려서 화두 집중도 안되고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분, 갑자기 눈이 안보여서 안과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도 시리고 잘 보이지 않는 분,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만성 피부건성과 아토피 가려움증으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 몸이 가렵고 조금만 긁어도 피가 나고 깜짝 놀라거나 슬쩍 건드려도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분, 주부습진이나 발가락 무좀으로 약을 바르고 약을 먹어도 가려워서 힘든분, 밥 먹을 때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분, 머리카락이 빠지고 원형탈모가 갑자기 생기거나 흰 머리가 많이 생겨서 병원 약을 먹고 발라도 효과가 없는 분, 감기나 기침을 오래도록 심하게 하여 병원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분들도 기혈을 돌려 열을 빼주면 감기와 기침 따위는 바로 사라집니다.

아이들도 몸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비뚤어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딴 짓을 하므로 치유하고 교정을 해 주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마디가 굵어져서 병원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분, 난치병으로 오래도록 고생하고 풍토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병자들을 수많은 병원에서 한방에서 침, 뜸, 부항, 약으로도 고치지 못

일평생동안 아파서 고통 받는 분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더니 일어나서 춤을 추고 고맙다고 소리내어 우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고 고생하는 분들이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허리협착증 수술을 받으라고 사진을 보여주고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나이 드신 분이 병원에 가면 무릎에 연골이 없다고 한다는데 스님이 본 병자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무릎 연골이 없거나 허리 협착증일 수도 있으나 99%는 협착증이나 연골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상담 후 스님의 민간요법으로 빠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유를 받으면 몸이 날아갈듯이 좋아져서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즐거워들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병들을 현대의학에서도 쉽게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휴휴암에서 치유받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다 하니 설마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번만 받아도 그 자리에서 효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으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고 막혀 있는 혈관을 원활하게 풀어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어 아픈 통증도 사라지고 온 몸이 따뜻해져서 몸이 부드럽고 얼굴빛이 화사하게 밝아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유가 끝나면 몸에 막힌 기혈이 풀리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아픈 부위가 피멍이 드는데 보기와는 달리 아프지 않으며 아픈 부위가 시원함을 느끼고 나이에 따라 7일 정도 지나면 멍이 없어지고 약을 먹거나 바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풀리고 나이가 많은 분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으며 아픈 부위에 따라 옷을 걷어 올리거나 벗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본인과 직계가족의 동의가 없이는 치유하지 않습니다. 치유가 끝나면 스님의 지시를 따라 주어야 회복이 빠릅니다.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고혈압 환자는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만한 보호자가 있다면 치유 할 수도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병약한 분들의 병을 치유하는 입장에서 혹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이해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직계가족 동의서가 있어야 치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일평생동안 아파서 고통 받는 분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더니 무거운 몸이 가벼워져서 움직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좋다고 일어나서 절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엎드려서 한없이 소리 내어 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라니 위신력을 받아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병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타법, 교정법, 요법 중에 두 가지는 어려워서 아무나 배울 수 없고 신심 깊은 불자에 한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타법만이라도 전수 해 주어 사찰이나 가정에서도 본인의 몸은 물론 가족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불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휴암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 종무소 033)671-0093,0094,0095



◇휴휴암 앞바다에 누워계신 해중관세음보살님(길이 27M)



◇거북이로 화현한 남순동자(거북바위)